

발간등록번호

11-1541000-001132-01

농림수산 서비스산업 발전방안 연구

김 병 료 선 임 연구 위원
이 병 훈 부 연구 위원
윤 종 열 전문 연구 위원
민 자 혜 초청 연구 위원
이 정 희 위촉 연구 위원
전 익 수 부 연구 위원

연구 담당

김 병 료	선임연구위원	연구 총괄, 제5장 집필
이 병 훈	부 연구 위 원	제2장, 제5장 집필
윤 종 열	전 문 연 구 원	제4장 분석 및 집필
민 자 혜	초 청 연 구 원	제2장, 제3장, 제4장 분석 및 집필
이 정 희	위 촉 연 구 원	자료 수집 및 정리
전 익 수	부 연구 위 원	제1장 분석 및 집필

머 리 말

농림수산 서비스산업은 농산물의 생산, 식품제조, 농자재 생산 및 농어촌 지역주민의 생활과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모든 서비스를 포함하며,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일자리 창출과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매우 큰 산업으로 성장잠재력이 큰 산업이다. 그런 의미에서 농림수산업의 외연을 넓히는 차원에서 서비스산업을 적극 육성, 지원할 필요가 있다. 특히, 그동안 생산부분과 전후방 관련산업 중심의 정책을 추진해 오던 농림수산 분야가 앞으로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도 서비스산업의 발전은 필수요건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는 농림수산 서비스산업에 대해 일반적으로 합의된 정의조차 없는 상황이며 농림수산 서비스산업에 관련된 국내외 연구자료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같은 맥락에서 이 연구는 농림수산 서비스산업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여 정의하고, 생산, 부가가치, 사업체 수, 취업자 수 등 현황을 정량적으로 파악했다는 점에서 매우 가치있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연구를 위해 국내 현황 뿐 아니라 OECD 자료를 활용하여 주요 국가들과의 국제비교 결과까지 제시한 점은 좋은 시도라 할 수 있다.

이 연구 결과가 미래 농림수산업의 성장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농림수산업의 범위 확장을 위한 서비스산업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무쪼록 연구 결과가 정부의 효율적인 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하며, 연구를 지원한 농림수산식품부와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11. 11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이 동 필

요 약

이 연구는 농림수산 서비스산업의 개념과 정의를 수립하고, 국내·외 농림수산 서비스산업의 현황과 발전사례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며, 이를 토대로 미래 농림수산업의 성장 동력으로서 활용가치가 높은 농림수산서비스 산업의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데 목적이 있다.

농림수산 서비스산업에 대해 일반적으로 합의된 개념에 대해 정확히 정의되어 있지 않다. 농림수산 서비스가 하나의 산업 부문으로서 정착되기 위해서는 농림수산 관련 부문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과 기능 및 역할의 확립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농림수산 서비스를 농림수산물 및 식품의 생산과 생산물의 운반, 배분, 소비를 원활히 지원하는 경제적 활동 또는 행위로 정의하고, 농림수산 서비스산업은 농림수산업에서 생산 활동 및 생산물과 관련된 포괄적 서비스 활동 대상(업종)을 총칭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정의에 기초하여, 유사한 특징을 가진 산업을 묶어 유형화하여 현황 분석에 도입하였다. 후방관련 서비스산업은 농림수산물 생산을 위한 생산요소를 관리하고, 생산에 보다 원활히 투입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로, 농림수산업 투입재의 물류 및 도소매업, 서비스업 등이 포함된다. 생산관련 서비스산업은 생산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로서, 생산 및 경영지원 컨설팅, 농지거래, 재해보험 등의 예를 들 수 있다. 전방관련 서비스는 생산된 농림수산물이 보다 원활히 소비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이며, 지역관련 서비스는 농림수산업 생산 활동의 기본단위인 농어촌공동체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지원하거나, 경관농업·농어촌관광과 같이 농어촌지역에서 농림수산물 외에 생산되는 서비스로 정의하여 분석에 도입하였다.

농림수산 서비스산업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총산출액, 부가가치, 취업자 수 등을 분석하였다. 또한 통계청의 사업체기초통계를 통해 사업체 및 종사자 수 등을 분석하였다.

산업연관표를 활용한 분석 결과 2009년 농림수산 서비스산업의 총산출액은 86조 6천억 원으로, 2005년 65조 58억 원에 비해 28.9%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내었으며, 전체 농림수산업 대비 농림수산 서비스산업의 비중 또한 2005년 1.56배에서 2009년 1.74배로 증가하였다. 또한 2009년 농림수산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는 33조 1,140억 원으로, 2005년 26조 4,190억 원에 비해 25.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농림수산업 대비 2005년 1.08배에서 2009년 1.27배까지 증가한 것으로 보아 농림수산업에 비해 농림수산 서비스산업의 규모 확대가 진전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2009년 농림수산 서비스산업의 취업자 수는 총 165만 9천 명으로, 전산업 대비 8.41%에 달해, 총산출액이나 부가가치보다 전산업 대비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림수산업 대비 취업자 수 비중이 2005년 0.82배에서 1.02배로 증가해 농림수산업의 취업자 수보다 농림수산 서비스산업의 취업자 수가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사업체기초통계를 통해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 추이를 분석한 결과, 서비스 사업체 수는 감소하는 반면 종사자수는 증가추세를 보임에 따라 농림수산 서비스산업의 규모화가 지속적으로 진전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009년 농림수산 서비스산업 종사자 수는 219만 명으로, 2000년 199만 명에서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사업체 수는 같은 기간 81만 개에서 5% 감소한 77만 개로 나타나, 그 수가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유형별 사업체 수는 식품관련 서비스산업과 전방관련 서비스산업이 각각 72.3%와 23.8%로 가장 비중이 크며, 세부 업종 중에서는 한식 음식점업의 사업체 수가 28만 개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방관련 서비스산업 업종 중 과실 및 채소 소매업과 육류 소매업의 사업체 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데, 이는 지난 10년간 대형유통업체 및 SSM의 점포 수 급증으로 인해 개별 소매점포 개소수의 감소를 초래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역관련 서비스산업 중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이 2009년 기준 13,962개로 나타났는데, 이는 2004년 하반기부터 주5일제의 단계적 시행에 따라 여가문화가 확산되면서 휴양콘도업, 펜션 등의 사업체 수가 급증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유형별 종사자 수의 비중을 살펴보면, 식품관련 서비스산업과 전방관련 서비스산업이 각각 71.7%와 23.1%로 대부분이고, 그 외 생산·후방·지역관련서비스는 각각 1~3% 수준의 비중을 차지하며, 각 유형별 비중은 사업체 수와 대체로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전·후방관련서비스의 경우 비중이 소폭 감소한 반면, 생산자·지역·식품관련서비스의 비중은 소폭 증가하였다. 특히 지역관련서비스는 비중은 크지 않으나 종사자 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에 따라 향후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서비스 사업체 수는 감소하는 반면 종사자수는 증가추세를 보임에 따라 농림수산 서비스산업의 규모화가 지속적으로 진전되는 산업구조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서비스산업 구조 변화에 능동적으로 부합하는 제도적 지원도 개선될 필요성이 있다.

한편, 소득수준의 향상과 기호의 다변화 등으로 농수산물 및 식품에 대한 구매 패턴이 다양화됨에 따라 관련 서비스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부가가치 확대 도모가 요구된다. 뿐만 아니라, 지역별 농림수산 서비스산업 사업체 및 종사자 수 비중이 수도권 및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농림수산업과 보다 관련이 있는 지방 확산을 유도할 수 있는 유인책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농림수산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방향으로서, 무엇보다도 농림수산 서비스산업이 전체 농림수산분야 성장에 기여한다는 인식의 제고와, 정부 부처간의 원활한 협의를 통해 정책추진의 일관성과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 중장기 발전방안으로서 공공 부문과 민간부문의 발전방향 및 지원체계 차별화, 농림수산 서비스산업의 R&D 투자 확대, 농림수산 서비스 관련 통계 개선, 농림수산 서비스산업 관련 규제 개선 등을 제시하였다.

농림수산 서비스산업의 중장기적 발전 전략으로서, 우선 지역 기후서비스, 농업고용촉진서비스 등 민간이 담당하기 어렵고 고비용이 수반되는 공공서

비스의 경우 중앙정부 차원에서 특별한 예산지원을 통해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조속히 제공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반면에 기존에 민간부문에서 진출하기 어려웠던 분야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는 농림수산 서비스산업 사례들을 적극 발굴, 수집한 후, 모델화하여 전국적인 확산 프로그램을 만들어 서비스산업의 지속적 확산 속도를 높일 필요성이 있다.

우리나라의 전체 농림수산분야에서 농림수산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투자가 부진하여 여전히 낮은 생산성과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농림수산 서비스산업의 혁신과 성장동력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률적인 하나의 사업보다는 농림수산관련 서비스산업별 특성과 패턴을 반영한 복수의 유형을 가진 농림수산 서비스 R&D 사업을 육성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농림수산 서비스 관련 통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서비스산업에 관해 공공기관에서 발표되는 통계자료로는 통계청의 「서비스사업통계조사」와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가 있으나, 업종 분류 체계 상 농림수산 서비스산업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

농림수산 서비스산업 분야에서 새롭게 생겨난 업종이나 직업군의 경우, 공식통계에서 잡히지 않기 때문에, 관련 통계편제 확대 및 통계 인프라를 확충하는 한편, 관련부처의 지원기능을 통합하여 정부 지원체계의 효율화 및 일관성 제고를 도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농림수산 서비스산업 관련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 농림수산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지원으로 금융, 세제 지원이 유력한 수단이나, 보다 근본적인 정책은 실질적인 서비스산업의 규제개혁 및 제도개선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업종별 또는 지역적으로 특수한 환경들을 고려하여 농림수산 서비스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를 강구하고, 경제구조변화에 대응하여 관련 법 및 제도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

Abstract

A Study on the Promotion Strategy of Service industry in Korean Agricultu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fine the concept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Service Industry: AFFSI' draw implications by analyzing the industry's current state and examples of its development around the world, and make strategies to develop the industry which has a high utility value as the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industry's future engine of growth.

No clear definition has been established for the generally agreed concept of AFFSI. In order for the AFFSI to take root as a legitimate industry sector, it is important to have a clear definition and a detailed description of the industry's functions and roles. In this study, AFFSI is defined economic activities that expeditiously assist the production, delivery, distribution and consumption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s produce and foods. The concept is defined as a generic term for all service activities (businesses) related to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s production and products.

Based on this definition, industries with similar characteristics are classified and adopted in the analysis of the current state. The backward service industry is a service industry that manages production elements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and assists their speedy input. The service industry includes logistics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s inputs, wholesals and retails, and service businesses. The production-related service industry is a service industry that helps make these production more expeditious. Examples of such an industry include production and management consulting, farmland transaction, and accident insurance. Forward services are services that help make the delivery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s commodities to consumers more smooth, and local services are services that support the smooth operation of a farming community, the basic unit of production, or services such as landscape agriculture and rural tourism other than the field production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s commodities.

In order to understand the current state of the AFFSI, this study analyzed

the industry's total output, the value added, and employment figures using the Input-Output Tables of the Bank of Korea. Also, the numbers of businesses and employees are analyzed based on Statistics Korea's basic statistics on businesses.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while the share of forward and backward businesses decreased a little, the share of producer, region, and food-related services increased a little. In the case of region-based services, in particular, it is thought that they can play an important role in invigorating the regional economy since the number of workers the region-based businesses employ is increasing despite their small share in the local economy. Also, since the number of employees is on an increasing trend despite the decline in the number of businesses, the industry structure shows a continued progress in increasing the business scale of the services. Therefore, there is a need to improve the institutional support so that it can actively respond to the structural change of the service industry.

Meanwhile, the purchasing pattern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products and foods is diversifying due to increasing income and diversifying consumer taste. As a result, there is a need to increase the value added by invigorating the service industry. Moreover, since it was shown that AFFSI businesses and workers are concentrated in the Seoul metropolitan region and large cities, it seems necessary to make a plan to induce the spread of AFFSI businesses and workers from large cities to rural areas.

With respect to the basic direction for developing the AFFSI, it is important to raise the understanding that the AFFSI contributes to the growth of the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industry as a whole, and secure consistency in implementing policies with a clear set of rules made through consultation between government ministries. To achieve these goals, this study made the following suggestions as part of a mid and long-term development plan: differentiation of development direction and support system for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increase in R&D investment, and improvement of statistics and regulations.

First of all, it is necessary to speedily provide necessary public services that the private sector cannot provide those due to high cost, such as weather services and employment inducements, and this should be done at the central government level through a special budget. Also, it is necessary to accelerate the spread of AFFSI businesses by actively finding successful cases of such businesses in industry areas where it has been difficult for private firms to

make inroads into and by making business models and promotion programs to spread agricultural service businesses nationwide.

Although the share of AFFSI businesses to the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industry as a whole has been increasing gradually, the service businesses are still small and show low productivity due to weak R&D investment. Therefore, in order to make innovations and transform the industry into an engine of growth, it is necessary to take into account the characteristics and patterns of each service sector and develop R&D projects of multiple types, rather than one uniform project.

Also, there is a need to improve the statistics related to AFFSI. Currently, there are statistical data provided by public institutions and these are "Service Business Statistics Survey" of Statistics Korea and "Input-Output Tables" of the Bank of Korea. However, since these statistical data have limitations and cannot precisely figure out the current state of the AFFSI, it is necessary to make improvements.

In the case of new agricultural service businesses and employment types, data is not available an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make the government support system efficient and raise consistency by merging the support functions of related ministries while expanding the statistics organization and infrastructure.

Lastly,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regulations on the agricultural service industry. In developing the service industry, finance and tax benefits are powerful tools but the fundamental way to address the issue is to improve the regulations and institution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take into account special business or regional environments and take measures loosening the regulations that hinder the development of the agricultural service industry and push forward legal and institutional reorganization in response to structural changes of the economy.

차 례

제1장 서론

- 1. 연구 배경, 필요성 및 목적 1
- 2. 연구내용 및 방법 5
- 3. 국내외 연구동향 6

제2장 농림수산 서비스산업의 정의 및 범위

- 1. 서비스 산업의 특징 8
- 2. 국내 서비스산업의 동향 12
- 3. 농림수산 서비스산업의 정의 및 범위 15

제3장 농림수산 서비스산업 현황

- 1. 국내 현황 분석 19
- 2. 국제 비교를 통한 현황 분석 45

제4장 농림수산 서비스산업 발전 사례

- 1. 국내 농림수산 서비스산업 발전 사례 48
- 2. 해외 농림수산 서비스산업 발전 사례 87

제5장 농림수산 서비스산업 발전방안

- 1. 농림수산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방향 96
- 2. 농림수산 서비스산업의 중장기 발전방안 97
- 3. 농림수산 서비스산업 발전의 유형별 세부 추진과제 100

부록

- 1. 사회적 기업 현황 103
- 2.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서비스업 포괄범위 107
- 3. 그림 2-1의 서비스산업 세부항목 설명 108
- 4. 농림수산관련 서비스 지역별 사업체 수 112
- 5. 농림수산관련 서비스 지역별 종사자 수 113
- 6. 한미일 총산출액 및 부가가치 비교(2005년) 114
- 7. 한미일 총산출액 및 부가가치 비교(2000년) 115
- 8. 산업연관표 부문분류표(한국은행) 116
- 9. 산업연관표 부문분류표(OECD) 118

- 참고 문헌** 119

표 차례

제1장

표 1-1.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주요 내용	2
표 1-2. 농림수산업 부문별 고용자수	3
표 1-3. 연구내용 및 방법	5

제2장

표 2-1. 서비스산업 분류체계	11
표 2-2. OECD 국가의 서비스산업 유형별 노동생산성(2007)	13

제3장

표 3-1. 농림수산 서비스산업 유형의 정의	21
표 3-2. 농림수산 서비스산업의 유형별 총산출액 비중 추이	24
표 3-3. 농림수산 서비스산업의 유형별 부가가치 비중 추이	26
표 3-4. 농림수산 서비스산업의 유형별 취업자수 비중 추이	28
표 3-5.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림수산 서비스산업 유형별 업종 구분 ..	30
표 3-6. 농림수산 서비스산업의 유형별 사업체 수	32
표 3-7. 농림수산 서비스산업의 유형별 사업체 수 상위 5개 업종	34
표 3-8. 농림수산 서비스산업의 유형별 종사자 수	39
표 3-9. 농림수산 서비스산업의 유형별 종사자 수 상위 5개 업종	40
표 3-10. 농림수산 서비스산업 총산출액 기준 국제비교	46
표 3-11. 농림수산관련 서비스산업 부가가치 기준 국제비교	47

제4장

표 4-1. 농기계 임대사업 연도별 지원실적	52
표 4-2. 제천시 약용작물 생산 동향	64
표 4-3. 제천시 한방산업 관련사업 현황	65
표 4-4. 제천의 한방산업 관련 사업 현황	67
표 4-5. 2009년 청람의 사업 현황	75

그림 차례

제2장

- 그림 2-1. 한국의 서비스산업에 의한 산업분류 구조 11
- 그림 2-2. 농림수산 서비스산업의 분류 18

제3장

- 그림 3-1. 농림수산 서비스산업의 총산출액 추이 23
- 그림 3-2. 농림수산 서비스산업의 유형별 총산출액 추이 24
- 그림 3-3. 농림수산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 추이 25
- 그림 3-4. 농림수산 서비스산업의 유형별 부가가치 추이 26
- 그림 3-5. 농림수산 서비스산업의 취업자수 추이 27
- 그림 3-6. 농림수산 서비스산업의 유형별 취업자수 추이 28
- 그림 3-7. 농림수산 서비스산업의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추이 31
- 그림 3-8. 농림수산 서비스산업의 지역별 사업체 수(2009년) 33
- 그림 3-9. 생산관련 서비스산업 사업체 수 상위 5개 업종 추이 35
- 그림 3-10. 후방관련 서비스산업 사업체 수 상위 5개 업종 추이 36
- 그림 3-11. 전방관련 서비스산업 사업체 수 상위 5개 업종 추이 36
- 그림 3-12. 식품관련 서비스산업 사업체 수 상위 5개 업종 추이 37
- 그림 3-13. 지역관련 서비스산업 사업체 수 상위 4개 업종 추이 38
- 그림 3-14. 농림수산 서비스산업의 지역별 종사자 수(2009년) 39
- 그림 3-15. 생산관련 서비스산업 종사자 수 상위 5개 업종 추이 41
- 그림 3-16. 후방관련 서비스산업 종사자 수 상위 5개 업종 추이 42
- 그림 3-17. 전방관련 서비스산업 종사자 수 상위 5개 업종 추이 43
- 그림 3-18. 식품관련 서비스산업 종사자 수 상위 5개 업종 추이 43

그림 3-19. 지역관련 서비스 종사자 수 상위 5개 업종 추이 44

제4장

그림 4-1. 전국 지역기후서비스 현황 49
그림 4-2. 서비스 영역별 제천시 한방산업 관련 사업 분포 68
그림 4-3. 영농조합법인 새벽의 지역순환형농업 사업구조 73

부 표 차 례

부록 1

부표 1-1. 사회적 기업의 인증 전 유형	104
부표 1-2. 인증 및 예비 사회적 기업의 공간 분포	105

부 도 차 례

부록 1

부도 1-1. 도시와 농촌의 인증 사회적 기업 업종별 분포	105
부도 1-2. 도시와 농촌의 예비 사회적 기업 업종별 분포	106

제 1 장

서 론

1. 연구 배경, 필요성 및 목적

1.1. 연구 배경

1.1.1. 국내 서비스산업 정책 동향

- 국가 정책적으로 내수 활성화를 통한 위기극복 및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해 주요 서비스업종의 성장 동력화 노력을 전개함.
- 그간 서비스산업에 대한 정책 기조는 규제개혁 및 제도개선, 인력육성 등에 초점을 맞추어 왔으나, 서비스산업 선진화와 생산성 향상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규제개혁 이상의 제도적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됨.
- '08년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비전과 추진전략을 수립한 이후, 5차례의 종합대책과 8차례의 분야별 대책 등 총 13차례의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이 발표됨.

- 서비스산업 R&D 투자 확대를 위한 재정·세제지원 강화, 추진체계 정비, 전문 연구기관 육성 등을 추진함.

표 1-1.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5차례의 종합대책 (‘08~‘09)	(제1차) 서비스 수지 개선, (제2차) 규제 합리화 (제3차) 인프라 확충, (제4차) 차별개선과 유망서비스 육성 (제5차) 내수기반 확충
8차례의 분야별대책 (‘10~‘11)	콘텐츠·미디어·3D 산업 발전전략, 사회서비스 육성, 서비스업 해외진출, 관광레저산업 육성, 교육서비스 활성화, 연구개발서비스업 활성화, 보건의료서비스 육성, 전문자격사

- 농림수산 분야의 서비스 산업에 대해서는 산업적 측면에서의 접근보다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최소한의 공공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정책에 초점을 맞추어 옴.
 - 정부는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주거, 교통, 교육, 보건의료, 사회복지, 응급, 문화여가, 정보통신의 8대 분야 31개 항목으로 구성된 농어촌 서비스 기준 제도를 도입하여 2011년부터 본격 시행함.
 - * 관련법이 제정되고 농어촌서비스기준 및 농어촌영향평가제도가 도입되었으나 농어촌 주민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성과 부족
 - 영국과 독일 등 서구 선진국에서는 농어촌 서비스 기준이 이미 제도화 되어 있음.
 - * 영국은 광우병과 구제역 창궐로 인한 농촌의 사회적 고립과 경제적 쇠퇴를 개선하기 위해 농촌 서비스 기준을 「농촌백서(2000)」에 담아 공표한 이후, 매년 서비스 기준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여 「농촌 서비스 기준 경과보고서」를 발간함.
 - * 독일은 1949년 헌법에 해당하는 기본법의 공표시 법률조항에 ‘전 국토에 대한

등가치적 생활조건 확립'을 명시하고 있고, 각 주정부는 서비스 공급기준 및 시설 설치 기준들을 제시하고 있음.

* OECD에서는 최근 농촌지역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 전달을 위한 정책수단 개발 논의 심화(관련 의제 상정).

1.1.2. 농림수산물 관련 산업

- 농림수산업 생산의 규모화·기계화와 이촌향도로 생산부문 고용은 감소하는 반면, 농림수산업 투입재산업과 식품부문의 발달, 관련 서비스업의 분화와 다양화, 보건·의료·복지 등 공공서비스 증대로 식품산업(그 중 유통업, 외식업)·투입재산업·서비스부문의 고용은 증가 추세

표 1-2. 농림수산업 부문별 고용자수

단위: 천 명

구 분	2000	2008
농림수산업(생산, 1차산업)	2,243	1,686
생산서비스부문	33	41
전방관련 가공·제조업(식품제외)(2차)	149	143
식품제조업(2차)	225	217
농자재부문(2차)	110	169
후방관련 서비스부문	24	23
전방관련 서비스부문	1,938	2,077
계	4,723	4,356

자료: 사업체기초통계(통계청), 농림수산물 주요통계(농림수산물식품부).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0) 재인용.

- 특히 농림수산업, 식품, 공공부문 관련 서비스산업은 농식품 및 농촌지역의 일자리 창출에서 매우 중요
 - 농림수산물 서비스산업 육성은 농림수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공공 서비스부문 육성은 농어촌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1.2. 연구 필요성

- 시장개방과 융복합 산업 발전으로 농림수산업 및 관련 산업의 발전 필요성과 가능성이 동시에 증대됨.
- 이에 따라 관련 서비스수요의 다양화·고도화로 농림수산업 관련 서비스산업의 성장가능성이 확대됨.
- 그러나 농림수산 서비스산업은 국내 서비스산업 발전 정도에 비하여 발전이 매우 미흡함.
 - 생산관련(기술, 교육, 컨설팅, 금융 등) 및 후방관련 서비스산업(종자, 농자재 및 농기계)은 대부분 국가지원에 의존하여 민간영역 발전 미흡
 - 전방관련 서비스산업(유통, 수출지원, 외식 등)은 분야별 편차가 존재함.
 - 농어촌 지역 서비스 중 농어촌 관광서비스는 현재 발전 초기단계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으나 농어촌 복지서비스는 아직 미흡함.
- 한편, 기존의 정부 정책도 농어민을 정책 대상자로만 설정, 농림어업의 1·2차 산업의 보호 및 육성에 치중되어 있어 관련 서비스산업에 대한 정책적 육성 노력이 부족함.
- 그러므로 부가가치 및 고용 창출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고, 미래 농림수산업의 성장 동력으로도 활용가능하며, 농림수산업의 범위 확장에도 기여할 농림수산서비스 산업의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1.3. 연구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외 농림수산 서비스산업의 현황과 발전사례를 분

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미래 농림수산업의 성장 동력으로서 활용가치가 높은 농림수산서비스 산업의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데 있음.

2. 연구내용 및 방법

표 1-3. 연구내용 및 방법

연구 내용	연구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수산 서비스산업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의 및 개념 명확화 - GDP대비 생산액, 부가가치, 종사자 수 및 외국 현황과 비교 - 분야별(전방/생산자/후방/식품/지역 등) 발전 정도 비교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헌검토 통계자료 분석 전문가그룹 워크숍 현장방문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수산 서비스산업 문제점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반적 저발전, 분야간 편차 등 현황 문제 - 제도적 미비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헌검토 전문가그룹 워크숍 현장방문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농림수산 서비스산업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에 정책 영역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사례 - 국가 차원의 관련 서비스산업 적극적 육성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헌검토 전문가그룹 워크숍 국내외 현장방문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수산 서비스산업 발전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학계 전문가, 정부주요부처관계자, 농업인 등 이해관계자와의 워크숍 및 토론회를 거쳐 전략수립

3. 국내외 연구동향

- 통계개발원(2008)의 「한국의 서비스산업: 서비스업총조사 종합보고서」는 매 5년마다 실시하는 2005년 서비스업 총조사 결과를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한 보고서로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현황과 특징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보여줌. 그러나 농림수산업을 중심으로 생산서비스 및 전후방 관련서비스로 구분하여 접근하고는 있지 않아, 농림수산업과 관련된 서비스업의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 한국개발연구원(2010)의 「서비스 중장기 선진화 계획 수립을 위한 공개토론회」 보고서에는 경제의 서비스화에 따른 경제성장, 경기변동, 물가, 고용 등 우리나라 거시경제 여건 변화의 주요 특징, 서비스업 선진화를 위한 중장기 전략, 서비스 규제개혁 및 정책추진체계의 평가, 전문직 서비스·사회 서비스·영세형서비스·방송·통신 등 주요 부문별 선진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 있으나 농림수산업과 관련하여 접근하지 않아 농림수산업 서비스에 대한 직접적인 시사점을 도출하기는 어려움. 그러나 최근 농촌지역에서도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사회서비스 중 육아·고용·돌봄 서비스 부문과 식품산업과 관련된 영세서비스업인 음식 및 숙박업에 대한 간략한 정책 평가 및 대응방안은 본 연구에 시사하는 바가 있음.
- 산업연구원(2008)의 「서비스산업 혁신지원체제 연구」는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우리나라 서비스 부문의 생산성을 높여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위한 성장동력으로 삼기위한 서비스혁신에 대해 초점을 맞춘 연구임. 서비스부문의 낮은 생산성이 제조업의 높은 생산성을 잠식함으로써 경제성장을 정체시키는 현상인 ‘보몰의 병폐(Baumol’s disease)’를 극복할 수 있는 서비스 혁신과 관련하여 서비스 혁신 방법론보다는 서비스 혁신의 하부구조를 이루는 혁신지원체제에 관한 분석과 정책 대안을 제시하려는 연구로

서, 농림수산업 관련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산업연구원(2010)의 「소규모 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 연구는 여행업, 유학대행업, 자동차대여업, 결혼중개업, 반려동물업 등 생활형 소규모 서비스업에 대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함. 그중 농림수산식품부 농정 영역으로 새롭게 진입한 반려동물업에 대한 활성화방안은 본 연구에 시사하는 바가 있음.
- 경기개발연구원(2007)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업 육성 방안 연구」는 경기지역 경제 현황과 서비스산업 육성의 필요성을 제시하여 경기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주요 서비스 부문별 정책 전략과 관련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음.
- 농림수산업 관련 서비스산업에 관련된 국내 연구자료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며, 국외 연구자료 역시 개발도상국 경제발전을 위해 국제협력기구 또는 각국의 ODA담당기관에서 개도국의 실제 농림수산 서비스산업 시스템 구축 및 지원 사례를 위주로 연구된 수준임. 독일 대외기술협력단(GTZ, 2000, 2001)은 Agricultural Service Systems - A Framework for Orientation에서 시스템 이론에 입각하여, 농림수산 서비스산업의 정의와 범위를 규정한 바 있음.
- 그러나 농림수산 서비스산업의 정의 및 범위에 대한 이론 체계 수립이나 전반적인 현황과 육성방안에 대한 연구는 국내외 모두에서 매우 미흡한 수준임.

제 2 장

농림수산 서비스산업의 정의 및 범위

1. 서비스 산업의 특징

1.1. 서비스의 개념

- 서비스는 광범위하고 이질적인 다양한 성격의 경제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어 정확한 정의와 개념 설정이 어려움.
- 일반적으로 서비스는 농림수산업이나 제조업 부문에 상품 생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활동'으로 정의됨.
 - ※ 사전적 정의는 “생산된 재화를 운반·배급하거나 생산 또는 소비에 필요한 노무를 제공하는 것(www.wikipedia.org)”.

1.2. 서비스의 일반적 특징¹⁾

- 대부분의 서비스는 행위, 수행 등과 같이 구매 전에 실체를 객관적으로 느낄 수 없음(무형성, intangibility)²⁾.
 - 대부분의 서비스는 대상(Object)이 아닌 행위(Performance)에 가까움.
- 재화와 달리 향후 수요에 대비해서 재고로 저장할 수 없음(소멸성, perishability).
- 생산과정과 동시에 소비가 이루어짐(동시성, simultaneity).
 - 제조업과 달리 생산과정에서 품질 관리(quality control)가 이루어지기 어려움.
- 다양한 고객의 필요(heterogeneous needs)로 인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일정하지 않아 완전히 똑같은 서비스를 매번 수행할 수 없음(변동성 또는 이질성, variability or heterogeneity).
 - 동일한 종류의 서비스라도 품질은 고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1) 통계개발원, 한국의 서비스 산업, 2008; Morgan, C., & Murgatroyd, S. Total quality management in the public sector, Buckingham, UK: Open University Press; Deutsche Gesellschaft für Technische Zusammenarbeit(GTZ) GmbH, Agricultural Service Systems: A Framework for Orientation.

2) 그러나 특수한 기능이나 품질의 종자, 비용을 제공하는 서비스 등과 같은 특정 서비스는 대상에 서비스가 배태되어(embedded) 나타나기도 해서 유·무형을 구분하기가 어렵다고 보는 전문가들도 있음(Huppert and Urban, 1998; GTZ, 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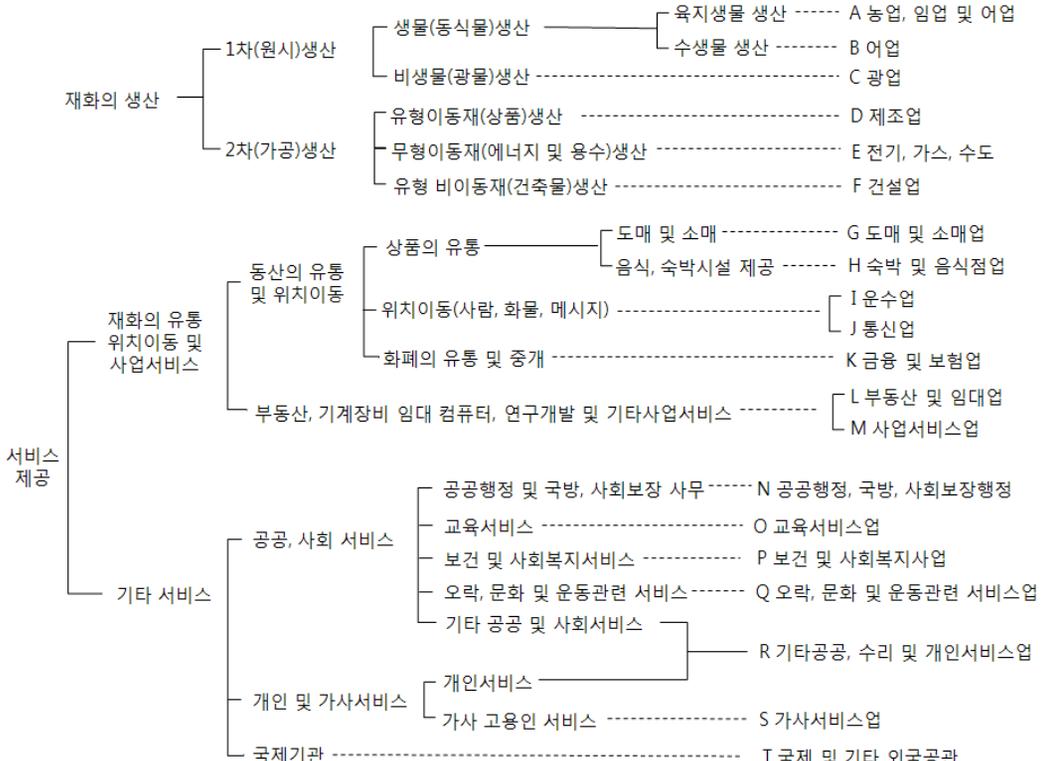
1.3. 서비스산업(service industry)의 정의

-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에서 C. Clark은 서비스산업을 1차 산업(농림수산업)과 2차 산업(광업, 제조업)을 제외한 3차 산업을 모두 포괄하는 의미로 정의하고 있음(부록 2참조).
 -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서비스업 총조사에서 건설업과 전기, 가스, 수도사업 등의 공익사업(public utilities)은 서비스산업에서 제외함³⁾.
- 그러나 서비스 행위가 점차 복잡하고 다양해지면서 서비스산업의 개념과 분류도 다양해지고 있음.
 - 서비스업을 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의 주체에 따라 구분
 - 서비스의 기능에 중점을 두어 구분
 - 서비스의 행위에 따른 구분
 - 서비스 산업 분야의 유사성에 따른 구분
- 최근에는 서비스산업의 범주에 속하는 다양한 산업을 열거하거나 유사한 특징을 가진 산업을 묶어 이를 구별하여 나열하는 방식이 보편화되고 있음(그림 2-1 참조).
 - 연구목적에 따라, 지식기반서비스업과 일반서비스업으로 구분
 - 수요자에게 공급되는 서비스의 기능적 성격을 기준으로 개인 서비스(personal services), 생산자 서비스(producer services), 물류유통 서비스(distributive services), 사회 서비스(social services)로 구분⁴⁾

3) 건설업은 생산된 재화가 유형재의 성격을 띠고 있고, 전기·가스·수도사업 등은 거대 생산설비의 유형재화를 이용해야만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서비스산업에서 제외하고 있음(통계개발원, 2008).

4) Schettkat and Yocarini(2005), "The Shift to Service Employment : A Review of the Literature," *Structural Change and Economic Dynamics*.

그림 2-2. 한국의 서비스산업에 의한 산업분류 구조



자료: 통계개발원(2008). 항목별 세부설명은 부록 3(“서비스산업 세부항목 설명”) 참조

표 2-1. 서비스산업 분류체계

분류	산업
물류유통 서비스(Distributive Services)	도소매업, 운수보관업
생산자 서비스(Producer Services)	통신, 금융, 보험, 부동산업, 사업서비스, 기계 장치임대업, 광고 및 방송
사회 서비스(Social Services)	공공행정 및 국방, 교육, 의료, 사회복지
개인 서비스(Personal Services)	음식업, 영화 및 오락, 문화서비스, 기타서비스업

자료: 하봉찬(2006),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정체현상과 시사점”, 「KIET 산업경제」, 산업연구원

2. 국내 서비스산업의 동향⁵⁾

- 우리 경제에서 서비스 부문은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고, 이러한 현상은 선진국들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관찰되는 보편적 현상임.
 - 1981년 전산업의 46.7%를 차지하였던 서비스업의 부가가치는 1995년 51.8%, 2000년 54.4%, 2005년 56.3%, 2009년 60.7%를 차지함.
- 서비스산업이 성장한 원인으로서는 고령화 및 여성경제활동 증가 등 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서비스 수요의 증대, 복지수요에 대응한 정부 부문의 확장, 서비스의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탄력성과 낮은 가격탄력성(수요측 요인), 서비스의 중간재 투입 증가 및 서비스 외주화, 서비스업과 제조업 간의 생산성 격차(공급측 요인) 등이 있음.
- 우리나라 서비스산업 고용 비중은 2009년에 취업자의 68.5%, GDP(실질)의 60.7%를 차지하나, 선진국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임(KDI, 2010).
 - 2007년 기준으로 서비스산업의 고용 비중은 OECD 30개국 중 20위, 부가가치비중은 27위(OECD in Figures 2009)
 -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노동생산성은 비교가능한 28개 OECD 국가 중 최하위

5) 황수경(2010), “경제의 서비스화와 경제성장 및 고용 간의 관계”, 서비스 중장기 선진화 계획 수립을 위한 공개토론회 자료집.

표 2-2. OECD 국가의 서비스산업 유형별 노동생산성(2007)

단위: 천 달러, 명

순위	서비스업 계		도소매, 음식·숙박		운수·창고·통신		금융,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커뮤니티, 사회 및 개인서비스	
	서비스업 계		도소매, 음식·숙박		운수·창고·통신		금융,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커뮤니티, 사회 및 개인서비스	
1	룩셈부르크	117.8	룩셈부르크	67.2	룩셈부르크	116.9	룩셈부르크	186.1	룩셈부르크	72.8
2	미국	84.5	벨기에	63.6	미국	113.3	아일랜드	167.3	미국	59.7
3	아일랜드	78.8	미국	59.3	그리스	109.4	미국	153.3	아일랜드	56.1
4	프랑스	73.0	스웨덴	53.4	이탈리아	97.9	프랑스	129.2	일본	53.4
5	벨기에	72.3	오스트리아	53.1	벨기에	92.2	그리스	125.6	그리스	52.4
22	아이슬란드	49.5	슬로바키아	35.5	독일	65.8	영국	91.7	핀란드	42.1
23	포르투갈	46.9	캐나다	34.5	오스트리아	65.0	덴마크	90.7	한국	38.5
24	헝가리	43.9	체코	33.8	아이슬란드	62.4	네덜란드	85.1	헝가리	34.4
25	체코	43.2	뉴질랜드	33.3	슬로바키아	50.9	폴란드	78.7	체코	34.2
26	슬로바키아	42.1	헝가리	29.9	한국	50.6	슬로바키아	76.8	아이슬란드	32.2
27	폴란드	42.0	포르투갈	28.2	헝가리	44.3	한국	72.4	슬로바키아	30.9
28	한국	38.9	한국	17.9	폴란드	39.8	체코	59.3	폴란드	29.1
평균	OECD	61.4	OECD	44.4	OECD	75.1	OECD	110.6	OECD	45.7

주: 캐나다는 2005년, 호주, 일본, 뉴질랜드, 포르투갈은 2006년, OECD는 단순평균임.
 자료: OECD, STAN Database for Structural Analysis. 2010. KDI(2010)에서 재인용.

- 투입(고용)과 산출(생산) 측면에서 모두 서비스화가 진전되었으나 산출증가가 투입증가에는 현저히 미치지 못함.
 - 지난 20년간 고용비중은 연평균 1%씩, 부가가치비중은 연평균 0.5%씩 증가
- 일부 서비스업에서는 고용이 증가했지만 생산성은 오히려 크게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함.

- 2004~2008년 동안 사업서비스업에서 고용은 3.7% 증가, 노동생산성은 3.2% 감소, 보건 및 사회복지업에서 고용은 6.6% 증가, 노동생산성은 2.6% 감소함.
 - 생산성 감소를 동반한 고용 증가는 저부가가치, 저임금 일자리의 양산을 의미함.
 - 서비스산업에서 고용의 양적 확대와 더불어 생산성 향상도 뒷받침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업종별로 유통서비스업과 개인서비스업에서는 취업계수가 감소, 생산자서비스업과 사회서비스업에서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임.
- 고용탄성치로 보면, 생산자서비스업과 사회서비스업에서 부가가치 1% 성장 시 고용은 각각 1.32%, 1.31% 증가하여 생산액 증가율 이상의 고용 창출효과를 보임.
- 서비스업의 산업연관효과와 관련하여 2007년 서비스업의 중간투입비는 38.3%(제조업 54.9%)로 산출의 11.7%가 제조과정에 투입, 서비스업 투입 비율은 20.7% 수준임.
- 서비스업의 취업유발계수는 10억 원당 18.1명(제조업은 9.2명)으로 제조업의 2배에 달함.

3. 농림수산 서비스산업의 정의 및 범위

3.1. 농림수산 서비스산업의 정의

- 농림수산 서비스가 하나의 산업부문으로서 정착되기 위해서는 농림수산 관련부문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과 기능 및 역할의 확립이 매우 중요함.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 ‘농림수산업 서비스’는 일반적인 개념인 ‘서비스’ 보다 구체적이며 다양한 성격의 경제적 활동을 포함하고 있음.
 - ‘농림수산업 서비스’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되고 일반적으로 합의된 개념은 없음(GTZ, 2000).
- 전형적인 측면에서 농림수산 서비스는 농업연구, 농업기술보급교육 및 정보 서비스, 교육과 훈련, 농촌 금융과 보험, 농산물 마케팅과 시장개척, 농림수산물 재배 및 사육을 위한 투입요소 제공서비스, 정부의 규제 및 조정 서비스, 운송기반 등 사회기반 제공 서비스 등으로 유형화하여 정의되기도 함.
- 다양한 관점(perspective) 측면에서 농림수산업 서비스의 정의를 ‘품목 관점 (commodity perspicitve)’, ‘서비스 관점(service perspicitve)’ 그리고 ‘생산요소 관리 관점(factor management perspective)’으로 구분할 수 있음.
 - 품목 관점: 특정 품목을 생산하고 수확하여 소비하는데 필요한 일련의 서비스들에 집중
 - 서비스 관점: 자금조달이나 교육, 혁신 등과 같은 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서비스들을 조직하거나, 전문지식을 지닌 전문가들을 활용하는 것과 관련된 서비스들에 집중
 - 생산요소 관리 관점: 농업 생산요소를 관리하고 적용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에 집중

- 규모적 측면으로는 미시(micro-scale) 수준(농가 단위), 중범위(meso-scale) 수준(지역단위), 거시(macro-scale) 수준(국가적 단위) 등의 수준(Level) 단위로 구분하여 정의하기도 함.
 - 거시 수준: 전·후방관련 서비스, 생산관련 서비스, 식품관련 서비스
 - 중범위 수준: 지역관련 서비스
 - 미시 수준: 농가 및 생산자단체 지원 서비스

- 이러한 다양한 개념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농림수산 서비스는 농림수산물 및 식품의 생산과 생산물의 운반, 배분, 소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경제 활동 또는 행위로 정의됨.
 - 즉, 농림수산물의 생산, 분배와 관련된 서비스(생산관련 서비스, 전방관련 서비스, 후방관련 서비스), 농어촌 공동체와 관련된 지역서비스, 그리고 농림수산물의 2차 생산물인 식품과 관련된 서비스를 포괄함.

- 농림수산 서비스산업은 농림수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련 업종을 일컫음. 즉, ‘농림수산업에서 생산 활동 및 생산물과 관련된 포괄적 서비스 활동 대상(업종)’을 총칭함.
 - 예를 들어, 농림수산업 생산부문과 관련된 투입재 지원 서비스, 생산자 지원 서비스, 생산물 유통 서비스, 지속적인 농업생산 활동의 외부효과로서 생산되는 농촌경관 및 자연자원 제공 등이 포함됨.
 - 농림수산물을 원료로 생산, 가공, 조리, 제조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 영역과 이를 통해 생산된 식품 생산물을 포장, 보관, 수송, 판매하는 모든 식품관련 서비스를 포함함.

3.2. 농림수산 서비스산업의 범위

- 최근 들어 생산 중심의 농림수산업 여건이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농림수

산업 서비스 관련 부문의 연계를 통한 농림수산업의 범위 확장으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함. 따라서 이미 앞 절에서 정의된 농림수산업 서비스 개념 정의에 기초하여 유사한 특징을 가진 산업을 묶어 범주화 하면 농림수산업 서비스의 범위를 보다 타당한 기준과 근거에 맞게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음.

1) 생산 및 전후방 관련 서비스

○ 농림수산업에서 생산단계에서 소비단계까지 생산 또는 생산물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포괄적 서비스 영역

① **후방관련 서비스:** 농림수산물 생산을 위한 생산요소를 관리하고 생산에 보다 원활히 투입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 예: 농림수산업 투입재(노동, 비료, 농약, 농기계, 하천사방, 선박 등)의 물류 및 도소매업, 서비스업 등

② **생산관련 서비스:** 생산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 예: 생산 및 경영지원 컨설팅, 농림수산행정, 농지거래, 재해보험 등

③ **전방관련 서비스:** 생산된 농림수산물이 보다 원활히 소비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 예: 농림수산업 산출물의 물류 및 도소매업, 검역 등

2) 지역 관련 서비스

○ 1·2차 생산물인 농림수산물과 가공품 등의 재화를 제외하고, 농림수산업 생산 활동의 기본 단위인 농어촌 지역에서 생산되는 3차 서비스와 농어촌공동체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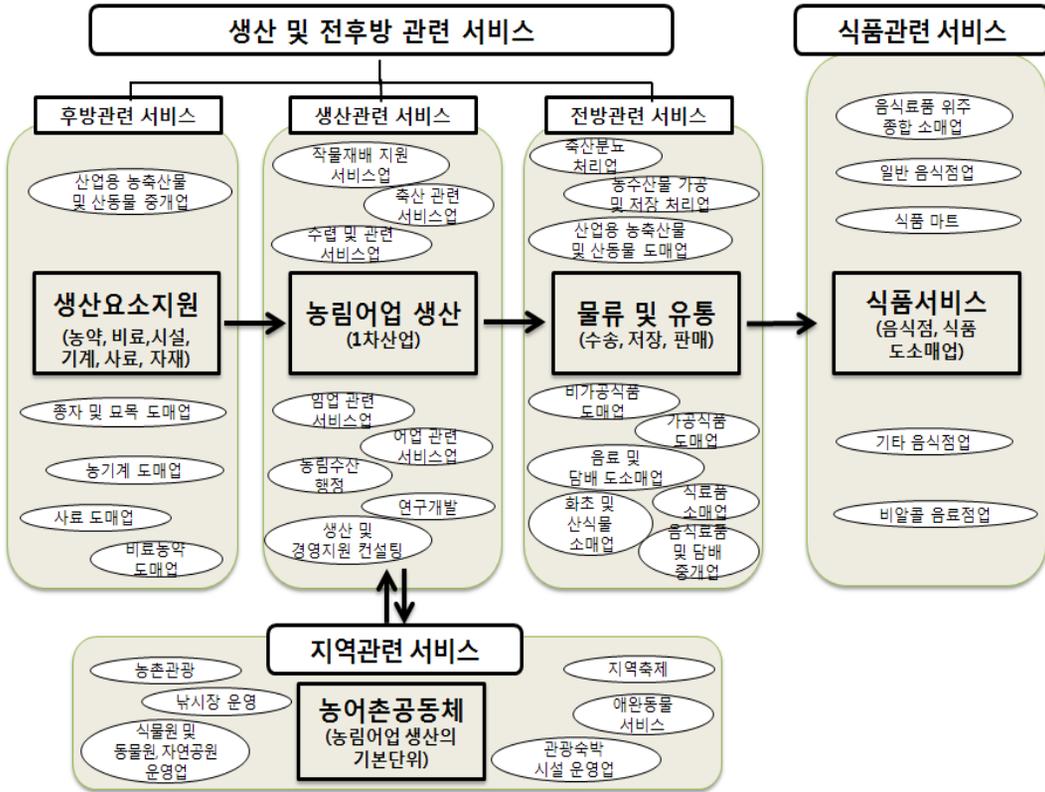
- 예: 농어촌 관광, 경관농업, 농촌 보건·의료·교육 등

3) 식품관련 서비스

○ 농림수산물 원료 및 가공품을 활용한 식품 제조·포장·저장·가공·수송 및 판매와 관련 부가서비스 제공을 통해 부가가치 창출을 지원하는 서비스

- 예: 음식점, 제과점업, 커피전문점, 식품 마트 등

그림 2-2. 농림수산 서비스산업의 분류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0)을 참조하여 제작성한 것임.

제 3 장

농림수산 서비스산업 현황

1. 국내 현황 분석

- 산업연관표와 사업체기초통계를 활용하여 농림수산 서비스산업의 현황을 분석하였음.
- 농림수산 서비스산업의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통계자료상의 문제 등으로 실증적·전반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임. 다양한 분석기법을 이용하여 농림수산 서비스산업의 성장 잠재력을 추론하였음.
- 김철민 외(2008)에 따르면, 농림수산 관련 산업의 부가가치 추정은 농림수산업의 정의와 분류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이용하는 통계 방법이나 추정방법에 따라서도 그 결과가 달라지므로, 정형화된 방식이 존재하지 않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앞 장에서 정의한 농림수산 서비스산업의 범위에 따라, 생산관련서비스, 후방관련서비스, 전방관련서비스, 식품관련서비스, 지역관련서비스 등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그 현황을 분석함.

1.1.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현황 분석

1.1.1. 분석 방법

- 김철민 외(2008)의 선행연구에서는 농림수산 관련 산업의 부가가치 및 종사자수 추정에서, 농림수산업 관련 산업의 정의와 연관 정도를 동시에 고려하여 분석함.
 - 농림수산 관련 산업으로 정의된 부문만을 단순 합산하여 추정할 경우, 농림수산 관련 산업의 경계에 있는 산업이나 주요 농림수산 관련 산업이지만 정의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제외되는 단점이 있음.
 - 또한 산업연관표의 기본부문은 403부문으로 나뉘어 있어, 보다 세밀한 산업 구분은 어렵기 때문에, 이 방법에 따른 추정은 정확도가 떨어지는 한계를 지니고 있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김철민 외(2008)의 방법론을 수정·보완하여 농림수산 서비스산업의 정의와 전후방 연계 정도를 동시에 고려하는 방식을 도입함.
- 산업연관표 부문 중 농림수산 서비스산업의 정의에 부합하는 농림수산업 서비스 부문과 음식점업 부문은 100%를 반영함.
 - 농림수산 서비스 부문은 2005년 부문 개정을 통해 새롭게 도입되었음. 수리관개 서비스, 농협 지도 서비스, 축산 서비스, 임업 서비스, 어업 서비스를 포함하는 산업 부문임.
 - 음식점 부문은 일정한 장소에서 접객시설을 갖추고 그 자리에서 소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음식이나 음료 등을 조리하여 제공하거나, 조리된 음식료품을 구입·판매하는 활동을 포함하며, 일반음식점, 주점, 기타음식점 등으로 구분됨.

- 농림수산서비스 부문과 음식점업을 제외하고, 서비스산업 부문별로 농림수산업 부문과의 연관 정도를 고려하기 위해 특정산업의 중간투입비 중 농업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 즉 농업의 중간투입비율을 이용하여 전체 서비스업 중 농림수산업과의 전후방 연계 정도를 반영하는 방법을 도입함.
- 농림수산업의 전방관련 서비스업은 서비스업에 속하는 산업 부문의 중간투입비 중 농림수산업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을 연관된 정도로 봄.

표 3-1. 농림수산 서비스산업 유형의 정의

유형 구분	유형별 개념 정의
생산관련서비스	산업연관표 중 농림수산업서비스 부문 100% 반영
후방관련서비스	산업연관표 중 서비스업 해당 부문에의 농림수산업 중간투입비율 적용
전방관련서비스	산업연관표 중 서비스업 해당 부문이 농림수산업에 투입재를 공급한 비율 적용
식품관련서비스	산업연관표 중 음식점업 부문 100% 반영

주: 1) 본 표의 유형별 정의는 산업연관표를 통한 추정에 한정됨.

2) 앞 절에서 제시된 지역관련서비스는 산업연관표를 통해 추정해내는 데 한계가 있어, 본 분석에서 제외함.

$$A_{aj} = \frac{a_{aj}}{\sum_{i=1}^n a_{ij}} \quad (j=1,2,\dots,a,\dots,n), (a = \text{농업부문 행})$$

A_{aj} : 농업과의 연관정도 계수

a_{aj} : j 산업부문에서 농업부문 중간투입액
(농업부문의 j 산업부문 중간수요액)

$\sum_{i=1}^n a_{ij}$: j 산업의 중간투입비 합계

(특정 산업의 산업연관표상의 행 중간투입비 합계)

i 와 j 는 각각 산업연관표에서 행과 열 부문을 의미함.

- 농림수산업의 후방관련 서비스업은 서비스업에 속하는 산업 부문이 농림수산업에 투입재를 공급한 비중을 연관된 정도로 봄.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음.

$$D_{ia'} = \frac{d_{ia'}}{\sum_{j=1}^n d_{ji}} \quad (j = 1, 2, \dots, a', \dots, n), (a' = \text{농업부문 열})$$

$D_{ia'}$: 후방관련산업의 농업과의 연관정도 계수

$d_{ia'}$: i 산업부문에 농업부문 중간수요액
(농업부문의 i 산업으로부터 중간투입액)

$\sum_{j=1}^n d_{ji}$: i 산업의 중간수요액 합계
(특정 산업의 산업연관표상의 열 중간수요액 합계)

- 산업연관표상 3차산업에 해당하는 도소매 및 서비스업⁶⁾에 대해, 위와 같이 추정된 농업과의 전·후방연계 정도를 적용하여 농림수산 서비스업의 총산출액, 부가가치, 취업자수를 추정하였음.
- 분석자료로는 한국은행에서 발간한 각 연도별 산업연관표를 활용함. 2005년 산업연관표는 실측표이며, 2006년 이후부터는 2005년 실측표를 토대로 연장한 결과임. 산업 부문은 기본 분류(403부문) 수준에서 분석함.

1.1.2. 분석 결과

가. 총산출액

- 2009년 농림수산 서비스산업의 총산출액은 86조 6천억 원으로, 2005년 65조 58억 원에 비해 28.9% 증가하였음. 그러나 전산업 대비 비중은 2005년 3.17%에 비해 0.5% 감소함.
 - 농업 대비 농림수산 서비스산업의 비중은 2005년 1.56배에서 2009년 1.74배로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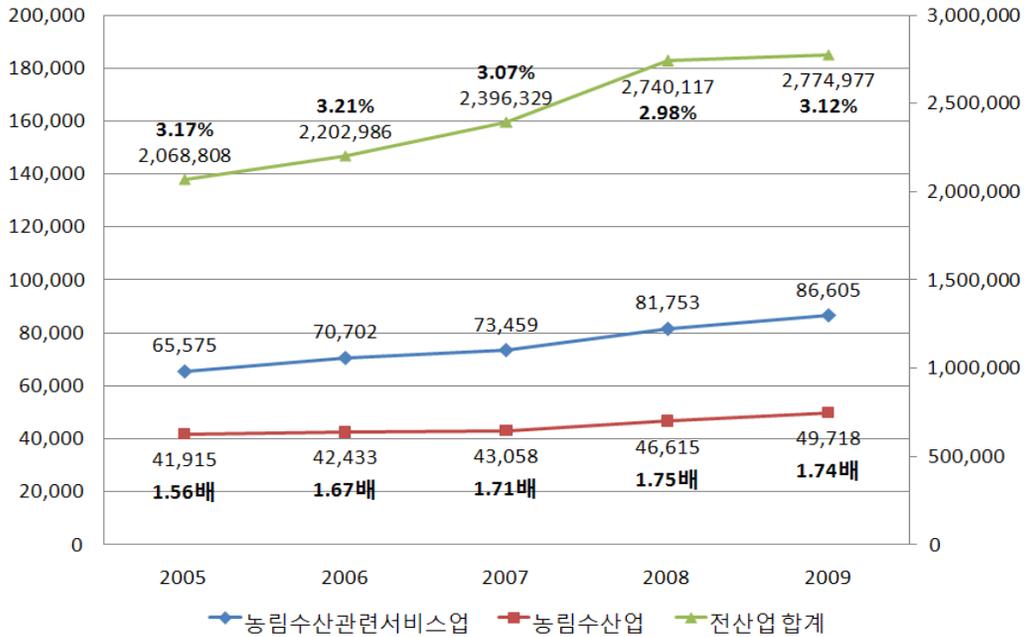
6) 부표의 “산업연관표 부문분류표” 참조.

○ 유형별로 살펴보면 식품관련 서비스 부문의 총산출액은 2009년 70조 3,640 억 원으로, 전체의 81% 이상을 차지함. 지난 5년간 금액과 비중 모두 증가 하는 추세를 보였음.

- 반면, 식품관련 서비스 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부문은 모두 감소세이며, 생산관련 서비스와 전방관련 서비스를 합하면 4.5% 수준으로 낮은 비중 을 나타냄.

그림 3-1. 농림수산 서비스산업의 총산출액 추이(전산업·농업 대비)

단위: 10억 원



주: 괄호 안은 합계 대비 유형별 비중임.

자료: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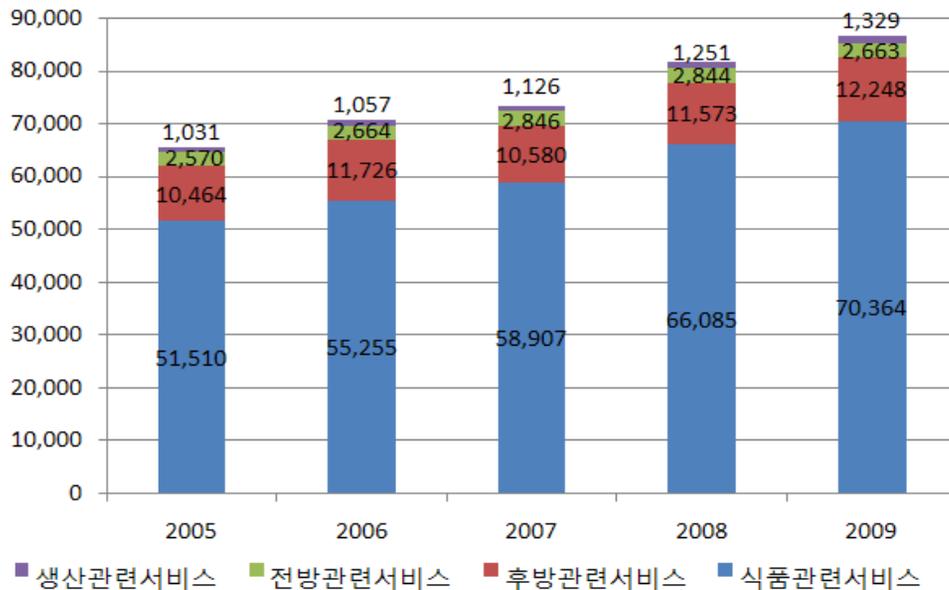
표 3-2. 농림수산 서비스산업의 유형별 총산출액 비중 추이

단위: 10억 원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연평균변화율 (2005-09년)
생산관련서비스	1,031 (1.57)	1,057 (1.50)	1,126 (1.53)	1,251 (1.53)	1,329 (1.53)	6.6
후방관련서비스	10,464 (15.96)	11,726 (16.59)	10,580 (14.40)	11,573 (14.16)	12,248 (14.14)	4.0
전방관련서비스	2,570 (3.92)	2,664 (3.77)	2,846 (3.87)	2,844 (3.48)	2,663 (3.08)	0.9
식품관련서비스	51,510 (78.55)	55,255 (78.15)	58,907 (80.19)	66,085 (80.84)	70,364 (81.25)	8.1
농림수산 서비스산업 합계	65,575 (100)	70,702 (100)	73,459 (100)	81,753 (100)	86,605 (100)	7.2

그림 3-2. 농림수산 서비스산업의 유형별 총산출액 추이

단위: 10억 원



자료: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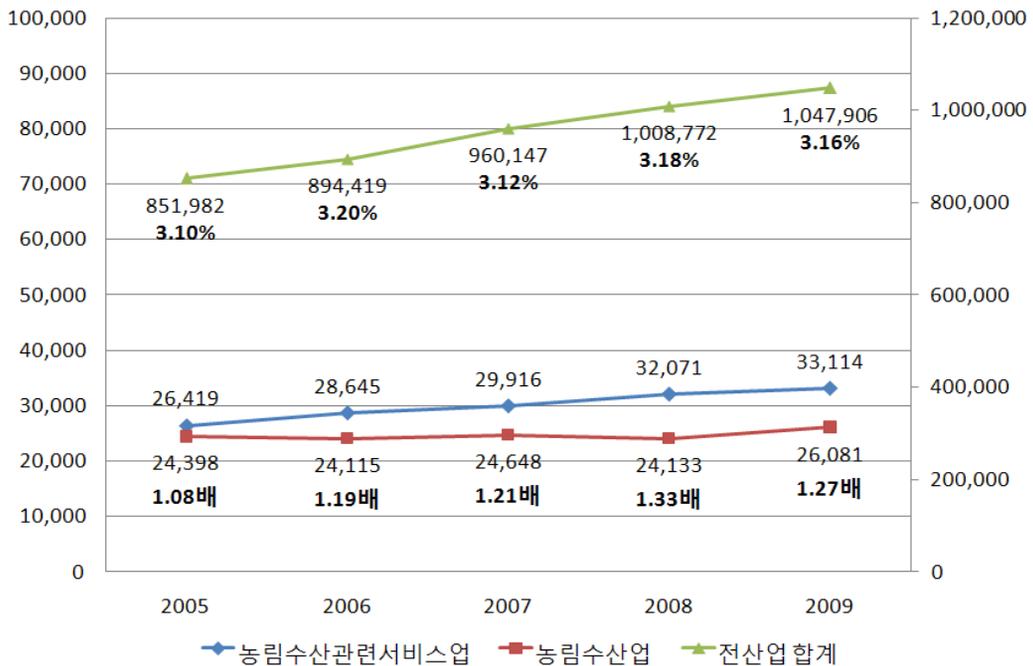
나. 부가가치

○ 2009년 농림수산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는 33조 1,140억 원으로, 2005년 26조 4,190억 원에 비해 25.3% 증가함.

- 2009년 전산업 대비 3.1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05년에 비해 비중에서는 큰 차이가 없음. 그러나 농림수산업 대비 2005년 1.08배에서 2009년 1.27배까지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증가세는 농림수산업에 비해 농림수산 서비스산업의 규모 확대가 진전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그림 3-3. 농림수산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 추이(전산업·농업 대비)

단위: 10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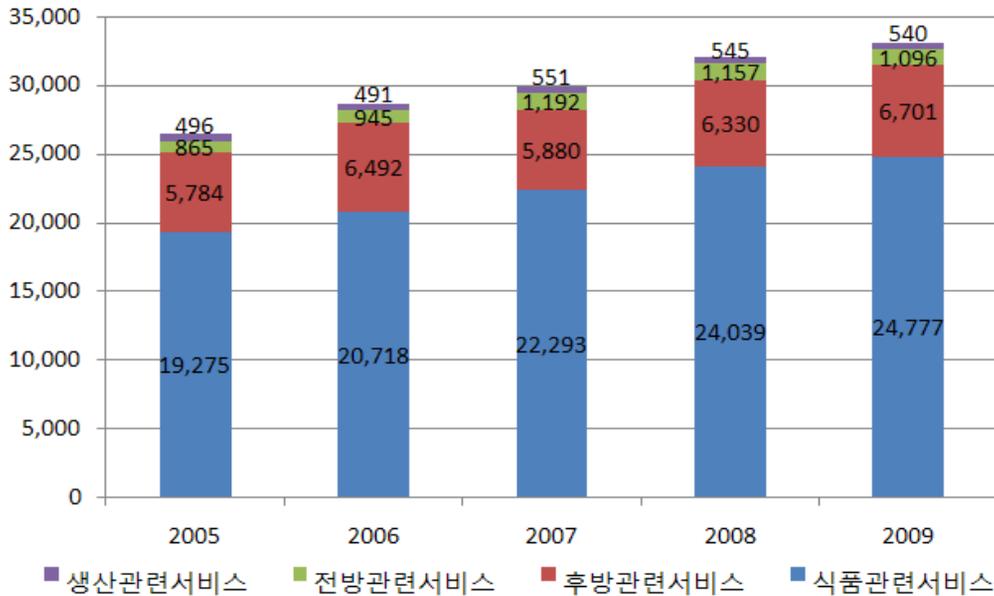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각 연도.

- 유형별로는 생산관련서비스와 후방관련서비스의 비중은 다소 감소하였으나 식품관련서비스가 2% 이상 증가하는 등 농림수산 서비스산업 전체의 비중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4. 농림수산 서비스산업의 유형별 부가가치 추이

단위:10억 원



주: 괄호 안은 합계 대비 유형별 비중임.

자료: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각 연도.

표 3-3. 농림수산 서비스산업의 유형별 부가가치 비중 추이

단위: 10억 원, (%)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연평균변화율 (2005-09년)
생산관련서비스	496 (1.88)	491 (1.71)	551 (1.84)	545 (1.70)	540 (1.63)	2.1
후방관련서비스	5,784 (21.89)	6,492 (22.66)	5,880 (19.66)	6,330 (19.74)	6,701 (20.24)	3.7
전방관련서비스	865 (3.27)	945 (3.30)	1,192 (3.98)	1,157 (3.61)	1,096 (3.31)	6.1
식품관련서비스	19,275 (72.96)	20,718 (72.33)	22,293 (74.52)	24,039 (74.96)	24,777 (74.82)	6.5
농림수산 서비스산업 합계	26,419 (100)	28,645 (100)	29,916 (100)	32,071 (100)	33,114 (100)	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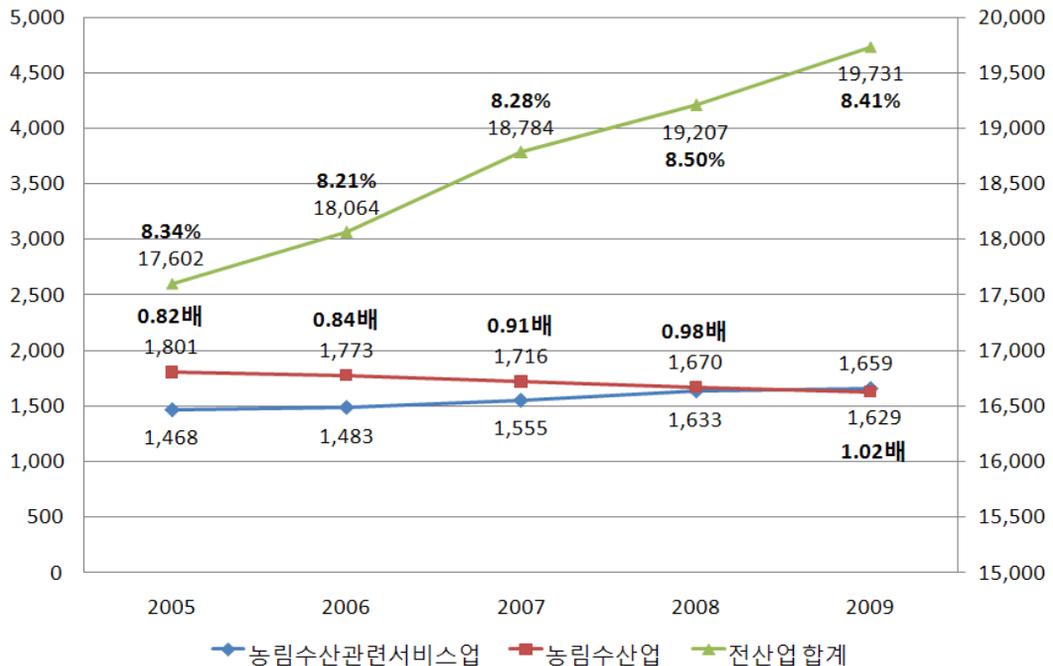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각 연도.

다. 취업자수

- 2009년 농림수산 서비스산업의 취업자 수는 총 165만 9천 명으로 전산업 대비 8.41%에 달해, 총산출액이나 부가가치보다 전산업 대비 비중이 높음.
 - 농림수산업 대비 취업자 수 비중 역시 2005년 0.82배에서 1.02배로 증가해, 2009년에 최초로 농림수산업 서비스산업의 취업자 수가 농림수산업의 취업자 수를 넘어섬.

그림 3-5. 농림수산 서비스산업의 취업자수 추이(전산업·농업 대비)

단위: 천 명



자료: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각 연도.

- 유형별로는 전체 취업자 수의 87% 이상이 식품관련서비스에 편중되어 있어, 총산출액이나 부가가치에 비해서도 식품관련서비스의 집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생산관련서비스는 연평균 증가율이 4.5%로,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남.

표 3-4. 농림수산 서비스산업의 유형별 취업자수 비중 추이

단위: 천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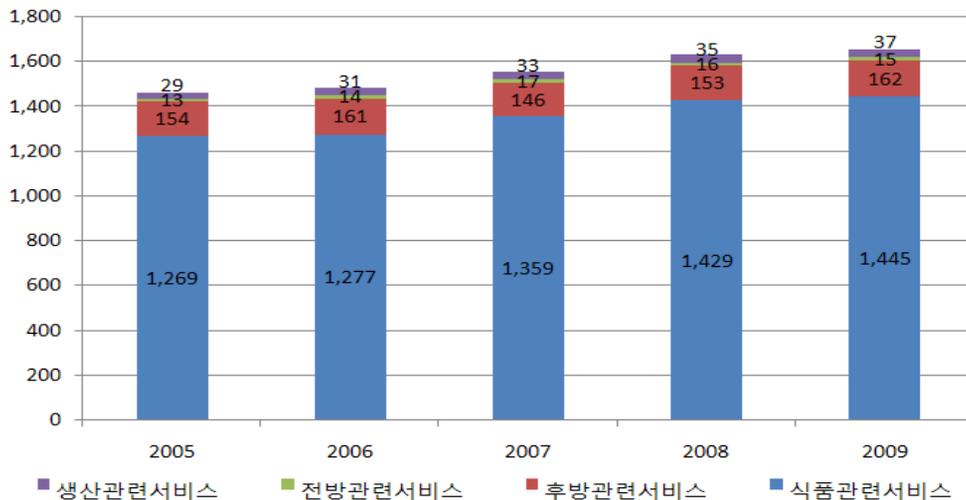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연평균변화율 (2005-09년)
생산관련서비스	31 (2.13)	31 (2.11)	33 (2.13)	35 (2.13)	37 (2.24)	4.5
후방관련서비스	154 (10.46)	161 (10.84)	146 (9.38)	153 (9.38)	162 (9.78)	1.3
전방관련서비스	13 (0.90)	14 (0.92)	17 (1.10)	16 (0.99)	15 (0.91)	3.6
식품관련서비스	1,269 (86.51)	1,277 (86.13)	1,359 (87.39)	1,429 (87.50)	1,445 (87.07)	3.3
농림수산 서비스산업 합계	1,468 (100)	1,483 (100)	1,555 (100)	1,633 (100)	1,659 (100)	3.1

주: 괄호 안은 합계 대비 유형별 비중임.

자료: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각 연도.

그림 3-6. 농림수산 서비스산업의 유형별 취업자수 추이

단위: 천 명



자료: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각 연도.

1.2. 사업체기초통계를 이용한 현황 분석

1.2.1. 분석 방법

- 박성재 외(2010)는 농림수산업 관련 산업을 총 8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사업체기초통계를 토대로 각 유형별 고용자 수 변화 추이를 분석하여 제시하였으며, 농어업의 신성장동력으로서 농식품 서비스 산업의 활성화를 주장한 바 있음.
- 김병률 외(2010)는 농업분야 고용 현황 분석에서 박성재 외(2010)에서의 유형 구분을 보다 세분하여 분석하였으나 농림수산업 및 전후방으로 연관된 제조업까지 포함하고 있어 농림수산업 관련 서비스산업의 현황 및 추이를 보기에는 한계가 있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김병률 외(2010)의 유형 구분을 따르되 제조업에 해당하는 부문을 제외하고, 제 2장에서 제시한 농림수산 서비스산업의 정의와 범위에 따라, 생산관련 서비스, 후방관련 서비스, 전방관련 서비스, 지역관련 서비스, 식품관련 서비스 등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현황 및 추이를 분석하였음. 제9차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세부업종을 각 유형별로 구분한 결과는 표 3-5와 같음.

표 3-5.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림수산 서비스산업 유형별 업종 구분

구분	업종
생산관련 서비스	작물재배 지원 서비스업, 축산관련 서비스업, 수렵 및 관련 서비스업, 임업관련 서비스업, 어업관련 서비스업, 농학연구개발업, 농림수산 행정
후방관련 서비스	산업용 농축산물 및 산동물 중개업, 종자 및 묘목 도매업, 사료 도매업, 농업용 기계 및 장비 도매업, 비료 및 농약 도매업
전방관련 서비스	가금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기타 육류 가공 및 저장처리업, 기타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기타 과일·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축산분뇨 처리업, 곡물 도매업, 화초 및 산식물 도매업, 산동물 도매업, 기타 산업용 농산물 및 산동물 도매업, 과일 및 채소 도매업, 육류 도매업, 수산물 도매업, 기타 비가공 식품 도매업, 육류가공식품 도매업, 수산물가공식품 도매업, 빵 및 과자 도매업, 낙농품 도매업, 기타 가공식품 도매업, 주류 도매업, 비알콜음료 도매업, 담배 도매업, 곡물 소매업, 육류 소매업, 수산물 소매업, 과일 및 채소 소매업, 빵 및 과자류 소매업,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기타 식료품 소매업, 음료 소매업, 담배 소매업, 화초 및 산식물 소매업, 애완동물 및 관련 용품 소매업, 농산물 창고업, 농산물 건조, 선별 및 기타 수확후 서비스업, 음·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
지역관련 서비스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그 외 기타 숙박업, 식물원 및 동물원 운영업, 자연공원 운영업, 낚시장 운영업, 애완동물 장묘 및 보호 서비스업
식품관련 서비스	슈퍼마켓, 체인화 편의점,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 한식 음식점업, 중식 음식점업, 일식 음식점업, 서양식 음식점업,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기관구내식당업, 출장 음식 서비스업, 이동 음식점업, 제과점업,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치킨 전문점, 분식 및 김밥 전문점, 그 외 기타 음식점업, 비알콜 음료점업

주: 앞 장의 유형 구분과 달리, 지역관련서비스는 표준산업분류 상의 업종으로 통계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어, 지역에서 제공되는 범위 내에서 업종을 선정하였으므로, 해석상의 주의를 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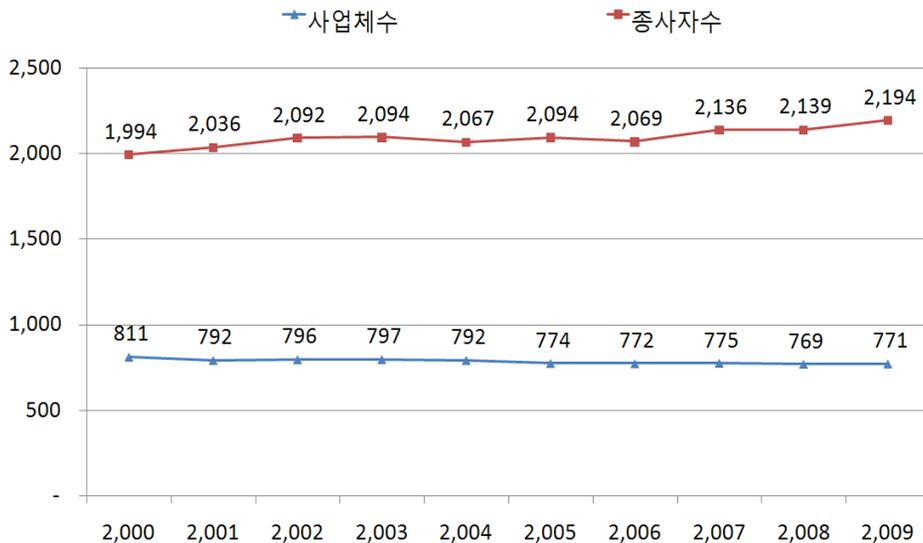
자료: 김병률 외, 2010.

1.2.2. 분석 결과

- 전술한 바와 같이, 최근 10년간의 사업체기초통계 자료를 토대로 농림수산 서비스산업의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 추이를 분석하였음. 그 결과, 서비스 사업체 수는 감소하는 반면 종사자수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에 따라 농림수산 서비스산업의 규모화가 지속적으로 진전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2009년 농림수산 서비스산업 종사자 수는 219만 명으로, 2000년 199만 명에서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최근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반면, 사업체 수는 같은 기간 81만 개에서 5% 감소한 77만 개로 나타나 그 수가 점차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음.

그림 3-7. 농림수산 서비스산업의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추이

단위: 천 개, 천 명



자료: 사업체기초통계, 각 연도.

가. 사업체 수

- 농림수산 서비스산업 사업체 수는 지난 2000년 81만 개에서 5% 감소하여 2009년 77만 개로 나타났으며,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유형별 사업체 수는 식품관련 서비스산업과 전방관련 서비스산업이 각각 72.3%와 23.8%로 비중이 크며, 그 외 생산·후방관련 서비스산업은 1% 미만의 비중을 차지함.
 - 유형별로는 3% 감소한 전방관련 서비스산업을 제외하면 대체로 사업체 수가 소폭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한편, 지역관련 서비스산업의 사업체 수는 2000년 6,700개에 불과하였으나, 2009년 21,108개로 3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비중 면에서도 2000년 0.83%에서 2009년 2.74%까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표 3-6. 농림수산 서비스산업의 유형별 사업체 수

단위: 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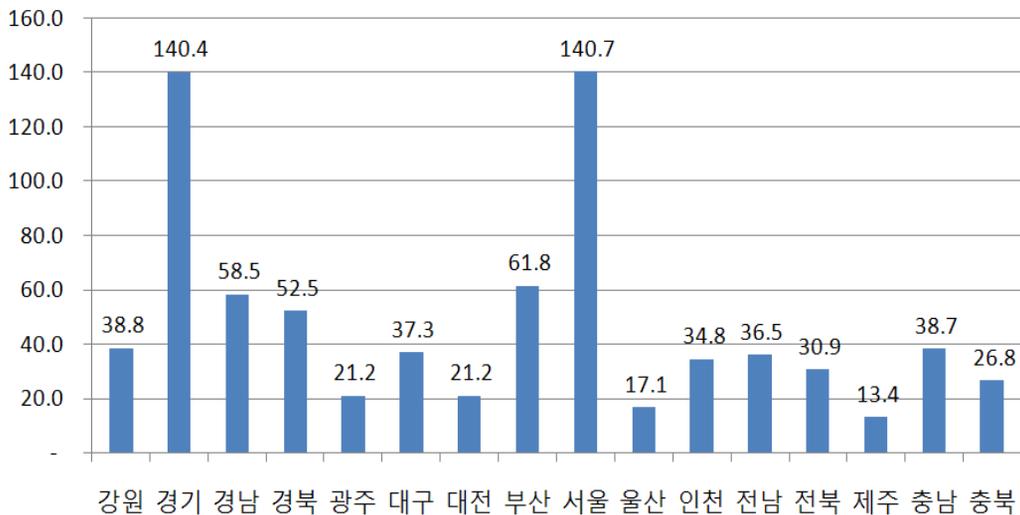
유형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생산자	1,864	1,491	1,539	1,609	1,662	1,701	1,705	1,790	1,774	1,826
	(0.23)	(0.19)	(0.19)	(0.20)	(0.21)	(0.22)	(0.22)	(0.23)	(0.23)	(0.24)
후방	7,083	6,857	6,924	7,023	6,892	7,009	7,057	7,491	7,289	7,130
	(0.87)	(0.87)	(0.87)	(0.88)	(0.87)	(0.91)	(0.91)	(0.97)	(0.95)	(0.93)
전방	219,524	205,822	201,498	192,524	189,715	188,573	185,536	187,416	183,850	183,459
	(27.05)	(25.99)	(25.30)	(24.15)	(23.95)	(24.37)	(24.03)	(24.18)	(23.92)	(23.80)
식품	576,241	570,139	576,096	584,451	581,756	562,990	561,160	560,078	555,927	557,247
	(71.02)	(72.00)	(72.34)	(73.30)	(73.43)	(72.75)	(72.66)	(72.25)	(72.32)	(72.30)
지역	6,700	7,579	10,337	11,728	12,260	13,571	16,800	18,397	19,878	21,108
	(0.83)	(0.96)	(1.30)	(1.47)	(1.55)	(1.75)	(2.18)	(2.37)	(2.59)	(2.74)
합계	811,412	791,888	796,394	797,335	792,285	773,844	772,258	775,172	768,718	770,770

자료: 사업체기초통계, 각 연도.

- 지역별로 살펴보면 2009년 서울과 경기지역이 각각 14만 개(18%)로 전체 사업체 수의 1/3 이상의 비중을 차지함. 그 다음으로 부산(6만 2천 개), 경남(5만 9천 개), 경북(5만 3천 개) 순으로 나타남. 한편, 제주·울산·대전·광주 등 광역시에서 사업체 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3-8. 농림수산 서비스산업의 지역별 사업체 수(2009년)

단위: 천 개



자료: 사업체기초통계, 각 연도.

- 각 유형별로 사업체 수 상위 5개 업종의 현황을 살펴보면 한식 음식점업이 28만 개로 1위이며,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 8만 3천 개, 분식 및 김밥전문점 4만 5천 개 등 식품관련 서비스산업의 사업체 수가 가장 많음.

표 3-7. 농림수산 서비스산업의 유형별 사업체 수 상위 5개 업종

단위: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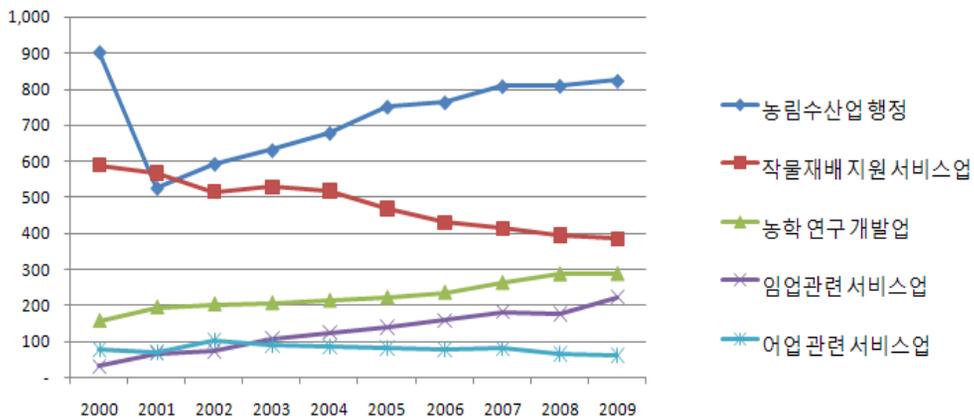
유형	순위	상위 5개 업종	2000	2005	2009
생산관련 서비스 산업	1	농림수산 행정	902	750	822
	2	작물재배 지원 서비스업	229	312	384
	3	농학 연구개발업	157	221	287
	4	임업 관련 서비스업	31	139	223
	5	어업 관련 서비스업	78	81	61
후방관련 서비스 산업	1	비료 및 농약 도매업	3,371	3,641	3,691
	2	농업용 기계 및 장비 도매업	1,423	1,346	1,440
	3	사료 도매업	1,079	1,258	1,305
	4	종자 및 묘목 도매업	489	504	487
	5	산업용 농축산물 및 산동물 증개업	714	256	204
전방관련 서비스 산업	1	과실 및 채소 소매업	32,587	24,523	22,275
	2	육류 소매업	31,203	23,310	22,090
	3	수산물 소매업	24,004	21,184	20,056
	4	화초 및 산식물 소매업	14,356	15,988	17,028
	5	기타 식료품 소매업	12,958	12,814	13,550
지역관련 서비스 산업	1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1,784	4,290	13,962
	2	그외 기타 숙박업	1,675	3,644	5,820
	3	낙시장 운영업	748	1,154	781
	4	자연공원 운영업	104	243	286
	5	애완동물 장표 및 보호 서비스업	2,326	3,644	193
식품관련 서비스 산업	1	한식 음식점업	245,122	272,867	278,978
	2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	120,080	100,572	83,954
	3	분식 및 김밥 전문점	57,221	57,295	45,454
	4	비알콜 음료점업	43,386	28,084	27,768
	5	치킨 전문점	24,416	32,979	26,156

자료: 사업체기초통계, 각 연도.

- 생산관련 서비스산업에 속하는 세부 업종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농림수산업 행정은 2001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농학연구개발업과 임업관련서비스업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반면에 작물재배지원서비스업은 사업체 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그림 3-9. 생산관련 서비스산업 사업체 수 상위 5개 업종 추이

단위: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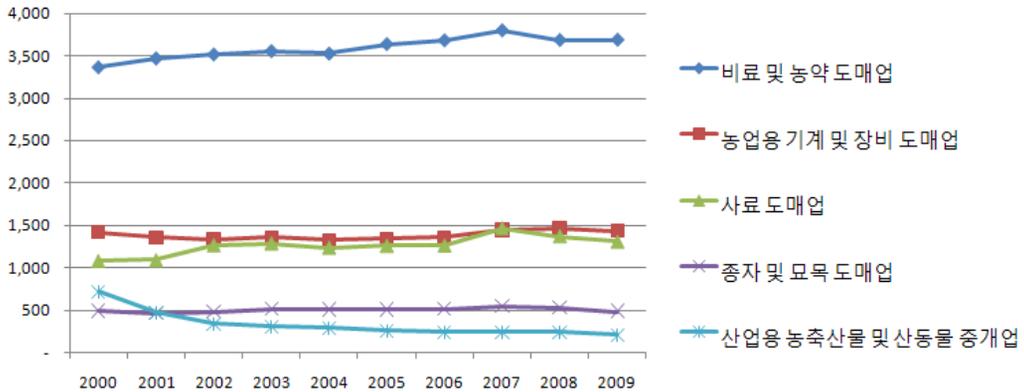


자료: 사업체기초통계, 각 연도.

- 후방관련 서비스산업의 업종별 추이를 살펴보면, 비료 및 농약 도매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지속적으로 사업체 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반면에 산업용 농축산물 및 산동물 증개업은 사업체 수가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냄.

그림 3-10. 후방관련 서비스산업 사업체 수 상위 5개 업종 추이

단위: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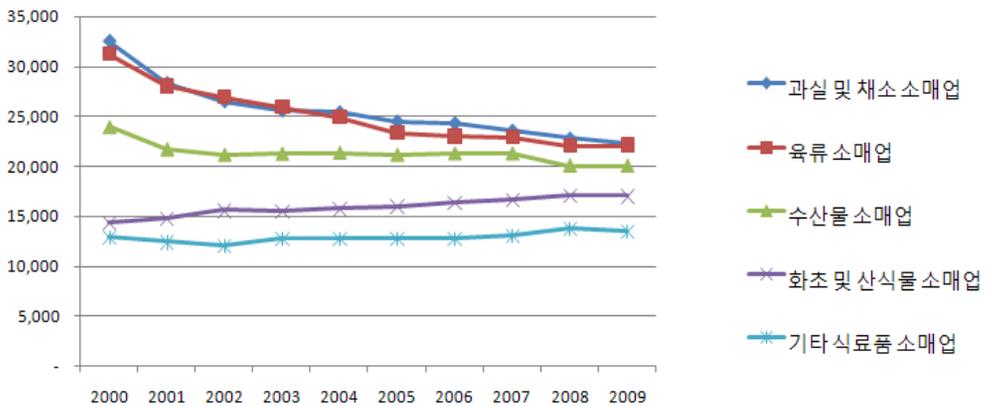


자료: 사업체기초통계, 각 연도.

- 전방관련 서비스산업 업종 중에서는 과실 및 채소 소매업과 육류 소매업의 사업체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절대적인 수는 급격히 감소함. 이러한 추세는 지난 10년간 대형유통업체 및 SSM의 점포 수 급증으로 인해 개별 소매점포 개소 수의 감소를 초래한 것으로 보임.

그림 3-11. 전방관련 서비스산업 사업체 수 상위 5개 업종 추이

단위: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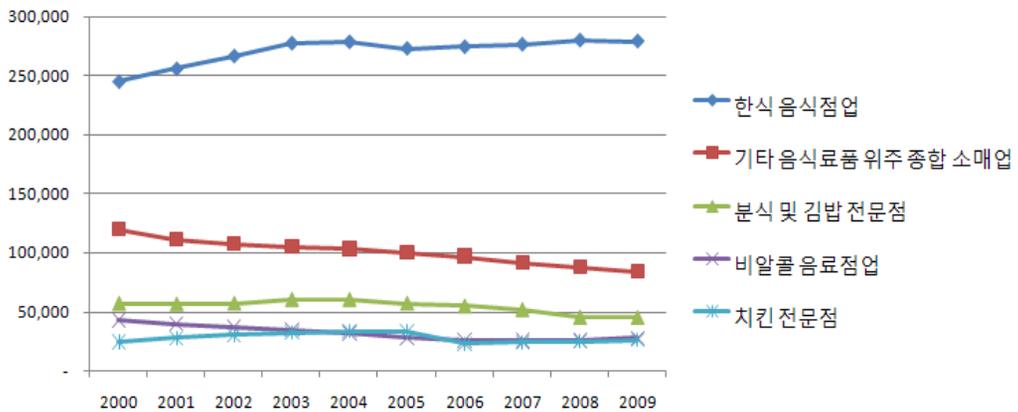


자료: 사업체기초통계, 각 연도.

- 식품관련 서비스산업 업종 중에서는 한식음식점업의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속적으로 사업체 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냄.
 - 반면에 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점과 분식 및 김밥 전문점, 비알콜음료점 업은 대체로 감소 추세를 나타냄.

그림 3-12. 식품관련 서비스산업 사업체 수 상위 5개 업종 추이

단위: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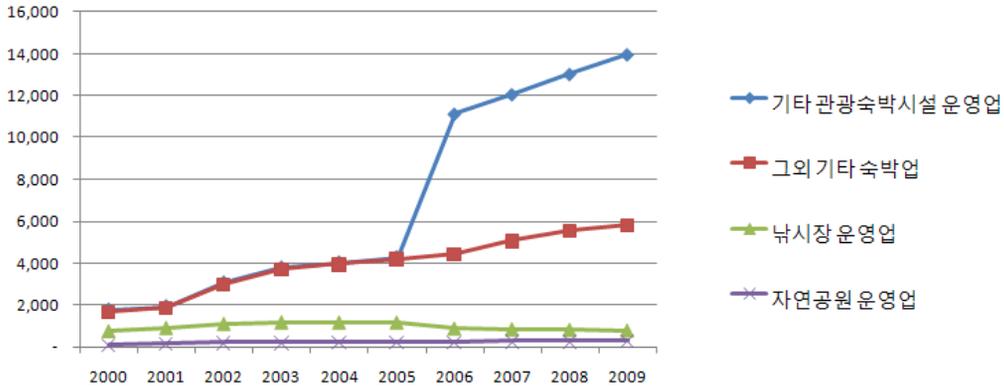


자료: 사업체기초통계, 각 연도.

- 지역관련 서비스산업은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이 2009년 기준 13,962개로 세부업종 중 사업체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특히 2004년 하반기부터 주5일제의 단계적 시행에 따라 여가문화가 확산되면서 휴양콘도업, 펜션 등의 사업체 수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됨.

그림 3-13. 지역관련 서비스산업 사업체 수 상위 4개 업종 추이

단위: 개



자료: 사업체기초통계, 각 연도.

나. 종사자 수

- 유형별로 종사자 수의 비중을 살펴보면, 식품관련 서비스산업과 전방관련 서비스산업이 각각 71.7%와 23.1%로 대부분을 차지함. 그 외 생산·후방·지역관련서비스는 각각 1~3% 수준의 비중을 차지함. 각 유형별 비중은 사업체 수와 대체로 유사한 것으로 분석됨.

- 유형별로는 전·후방관련서비스의 경우 비중이 소폭 감소한 반면, 생산자·지역·식품관련서비스의 비중은 소폭 증가함. 특히 지역관련서비스는 비록 비중은 크지 않으나 연평균 10.4%씩 종사자 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에 따라 향후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이 기대됨.

- 지역별로는 2009년 현재 서울과 경기 지역이 각각 48만 명, 44만 명으로 종사자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제주·울산·광주 등은 종사자 수가 가장 적은 지역으로, 사업체 수의 지역적 분포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냄.

표 3-8. 농림수산 서비스산업의 유형별 종사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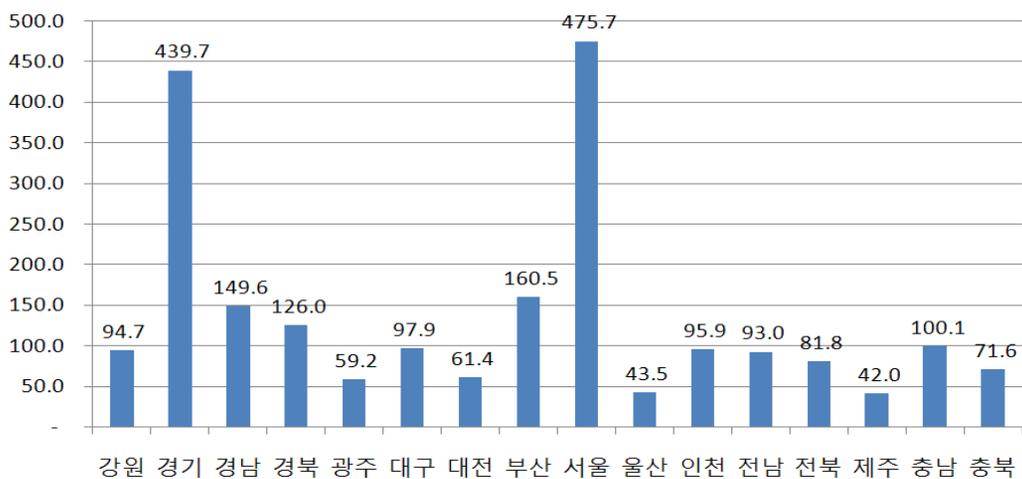
단위: 천 명, %

유형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연평균 증감율 '00-'09
생산	33 (1.64)	35 (1.73)	32 (1.53)	35 (1.67)	34 (1.64)	37 (1.76)	38 (1.85)	40 (1.88)	41 (1.93)	40 (1.84)	2.2
후방	24 (1.21)	21 (1.03)	22 (1.05)	20 (0.97)	20 (0.96)	22 (1.04)	21 (1.03)	23 (1.07)	23 (1.09)	23 (1.07)	△0.5
전방	533 (2671)	520 (2553)	529 (2527)	502 (2398)	485 (2345)	496 (2370)	488 (2361)	503 (2355)	492 (2301)	508 (2318)	△0.5
지역	20 (1.00)	23 (1.15)	28 (1.34)	31 (1.47)	32 (1.56)	37 (1.77)	36 (1.74)	41 (1.90)	44 (2.07)	49 (2.22)	10.4
식품	1,384 (643)	1,436 (705)	1,481 (708)	1,506 (719)	1,496 (723)	1,502 (717)	1,485 (717)	1,529 (715)	1,538 (719)	1,573 (717)	1.4
합계	1,994 (100)	2,036 (100)	2,092 (100)	2,094 (100)	2,067 (100)	2,094 (100)	2,069 (100)	2,136 (100)	2,139 (100)	2,194 (100)	1.1

자료: 사업체기초통계, 각 연도.

그림 3-14. 농림수산 서비스산업의 지역별 종사자 수(2009년)

단위: 천 명



자료: 사업체기초통계, 2009.

- 각 유형별로 종사자 수 상위 5개 업종을 살펴보면, 한식 음식점업이 77만 명으로 1위이며, 기타 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이 14만 명, 분식 및 김밥 전문점이 9만 명 등 사업체 수에서와 같이 식품관련서비스의 종사자 수가 절대적으로 많음.

표 3-9. 농림수산 서비스산업의 유형별 종사자 수 상위 5개 업종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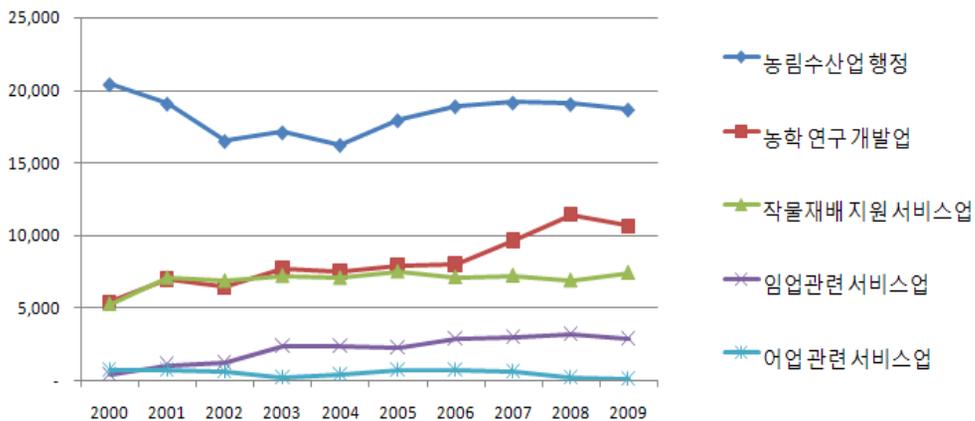
유형	순위	업종	2000	2005	2009
생산관련 서비스	1	농림수산 행정	20,416	17,932	18,678
	2	농학 연구개발업	5,443	7,933	10,622
	3	작물재배 지원 서비스업	3,289	6,771	7,438
	4	임업 관련 서비스업	420	2,293	2,939
	5	어업 관련 서비스업	740	728	137
후방관련 서비스	1	비료 및 농약 도매업	8,586	9,062	10,125
	2	농업용 기계 및 장비 도매업	5,399	4,416	5,059
	3	사료 도매업	4,567	4,434	4,957
	4	종자 및 묘목 도매업	1,494	1,757	1,866
	5	산업용 농축산물 및 산동물 중개업	3,262	1,626	1,083
전방관련 서비스	1	육류 소매업	51,592	39,783	41,866
	2	과실 및 채소 소매업	56,459	41,379	37,192
	3	수산물 소매업	38,538	33,720	32,791
	4	화초 및 산식물 소매업	24,537	27,193	28,437
	5	기타 식료품 소매업	22,408	21,026	22,925
지역관련 서비스	1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4,587	8,706	27,896
	2	그외 기타 숙박업	3,260	7,769	10,990
	3	자연공원 운영업	2,783	4,245	6,465
	4	납시장 운영업	1,847	3,281	1,393
	5	애완동물 장표 및 보호 서비스업	6,640	11,668	307
식품관련 서비스	1	한식 음식점업	601,912	740,920	766,797
	2	기타 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	203,502	165,218	144,068
	3	분식 및 김밥 전문점	107,856	121,224	93,682
	4	비알콜 음료점업	107,584	61,232	66,683
	5	치킨 전문점	73,889	97,167	56,197

자료: 사업체기초통계, 각 연도.

- 생산관련 서비스산업 업종은 대체로 행정에 관련된 업종이 많아, 사업체 수에 비해 대체로 종사자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유형별 비중을 비교하면 총 사업체 수 중 0.2%에 지나지 않으나, 종사자 수에서는 1.8%의 비중을 차지함.
- 세부 업종별로는 농림수산업행정의 종사자 수가 가장 많지만 증가세는 둔화되는 추이를 보이는 반면, 농학 연구 개발업과 임업관련 서비스업의 경우는 2009년을 제외하고는 종사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냄.

그림 3-15. 생산관련 서비스산업 종사자 수 상위 5개 업종 추이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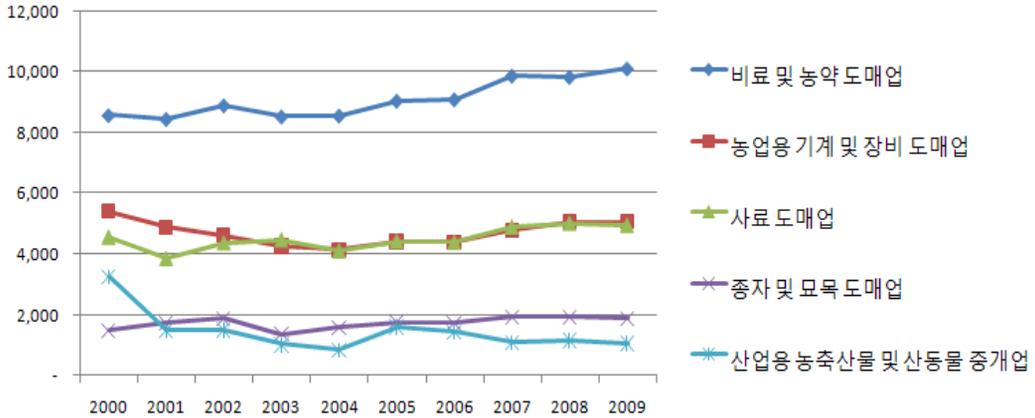


자료: 사업체기초통계, 각 연도.

- 후방관련 서비스산업 유형에 속하는 세부 업종 중에서는 2009년 비료 및 농약 도매업의 종사자 수가 약 1만 명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냈으며, 특히 2006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산업용 농축산물 및 산동물 중개업은 사업체수와 종사자 수 모두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임.

그림 3-16. 후방관련 서비스산업 종사자 수 상위 5개 업종 추이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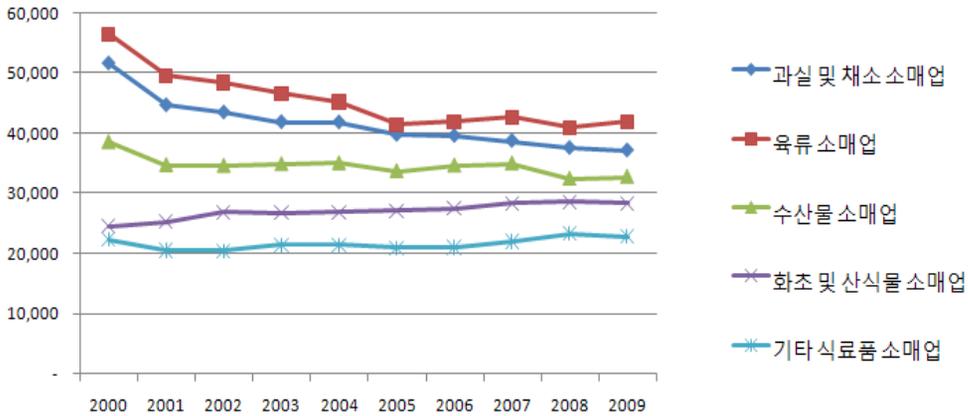


자료: 사업체기초통계, 각 연도.

- 전방관련 서비스산업에 해당하는 세부 업종 중에서 육류 소매업이 종사자 수가 가장 많은 업종으로 나타났는데, 사업체 수가 가장 많았던 과일 및 채소소매업에 비해, 업체에 고용된 인원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육류소매업, 과일 및 채소 소매업, 수산물 소매업 모두 종사자 수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이는 대형유통업체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인해, 비교적 소규모인 농축수산물 소매업의 위축과 그에 따른 고용 감소로 이어진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음.

그림 3-17. 전방관련 서비스산업 종사자 수 상위 5개 업종 추이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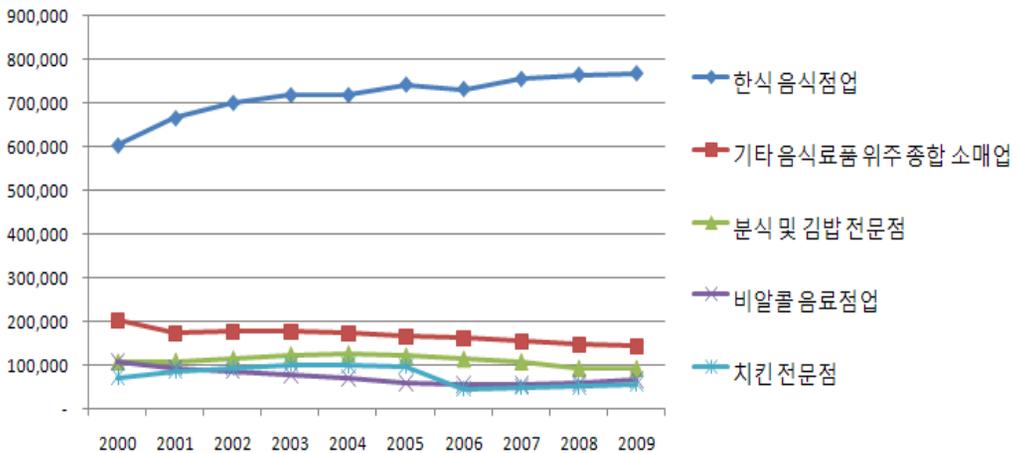


자료: 사업체기초통계, 각 연도.

- 식품관련 서비스산업 유형은 사업체 수에서와 마찬가지로 한식음식점업의 종사자 수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그림 3-18. 식품관련 서비스산업 종사자 수 상위 5개 업종 추이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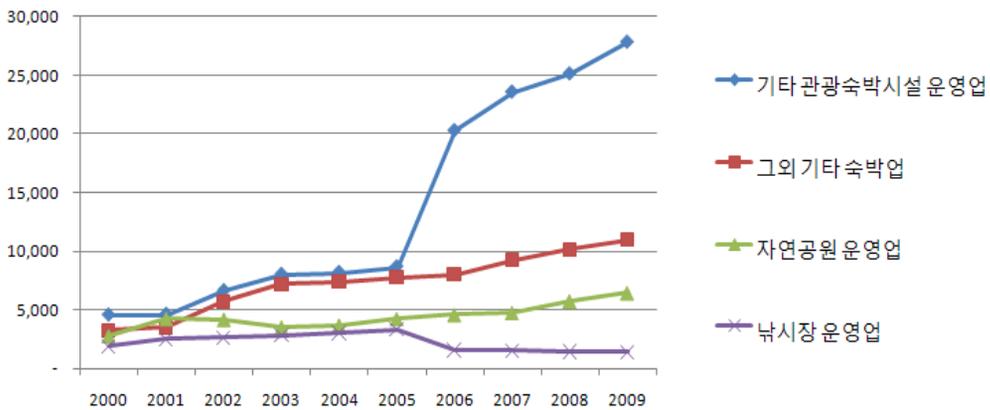


자료: 사업체기초통계, 각 연도.

- 그러나 한식 음식점업을 제외한 나머지 상위 5위의 세부업종은 대체로 감소하는 추이를 보임. 특히 대형할인마트 증가와 업체간 과다경쟁으로 인해 치킨전문점과 분식 및 김밥 전문점의 사업체 수가 감소함에 따라, 종사자 수도 함께 감소하였음.
- 지역관련서비스 중에는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의 종사자 수가 2만 8천 명으로 가장 많으며, 2004년 하반기이후 주5일제의 단계적 시행에 따른 여가문화 확산으로 휴양콘도업, 펜션 등의 사업체 수 급증에 따라 종사자 수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분석됨.
- 반면에 자연공원운영업은 사업체 수에 큰 변화가 없음에도 종사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1개 사업체 당 고용 인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19. 지역관련 서비스 종사자 수 상위 5개 업종 추이

단위: 명



자료: 사업체기초통계, 각 연도.

2. 국제 비교를 통한 현황 분석

2.1. 분석 방법

- 농림수산 서비스산업의 현황을 선진국과 비교해보기 위해, OECD Stat Extracts에서 제공하는 산업연관표를 통해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등의 국가를 대상으로 국제 비교 분석을 시도함.
- 앞 절에서와 동일한 방법으로 산업연관표 중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부문에 농림수산업의 전·후방 연계 정도를 적용하여 농림수산 서비스산업의 총산출액과 부가가치를 추정하였음.
- OECD Stat Extracts에서 제공되는 IO Table 중 Total Table을 바탕으로, 가장 세분된 산업 부문인 39개 부문으로 분석함⁷⁾.
- 분석에 있어 농림수산업은 산업연관표 상의 농림수산업 부문의 값을 그대로 도입하였으며, 전방 및 후방관련 서비스업은 산업 부문별로 각각의 연계 정도를 적용하여 추정한 값의 합임.

2.2. 분석 결과

- 위의 방법을 통해 추정한 농림수산 서비스산업의 총산출액을 비교해보면, 우선 미국과 우리나라의 경우 농림수산업과 전후방 관련 서비스업이 모두 증가하였으나 일본은 2000년 대비 2005년의 감소 폭이 큰 것으로 분석됨.

7) 부록 “OECD Stat Extracts 부문표” 참조.

- 일본은 농림수산업의 총산출액이 18% 감소한 데 비해, 농림수산업 전·후방 관련 서비스업은 38% 이상 감소하여 농림수산업에 비해서도 감소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우리나라와 미국은 공통적으로 2000년 대비 2005년 농림수산업과 농림수산업 전후방관련 서비스업의 규모가 확대되었으나, 미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증가율이 더욱 큰 것으로 분석됨. 특히, 후방관련 서비스업은 5조 4,800만 달러에서 12조 2,270백만 달러로, 2배 이상 증가함.
- 독일은 농림수산업 총산출액에 비해 전후방 관련 서비스업의 비중이 크고, 프랑스는 농림수산서비스와 후방관련 서비스의 비중이 큼.
- 우리나라는 2000년에서 2005년 사이 서비스업이 크게 성장한 데에 기인한 측면이 있음.

※ 서비스업 매출액 증가: 2001년 948조 원 → 2005년 1,221조 원, 28.8% 상승

표 3-10. 농림수산 서비스산업 총산출액 기준 국제비교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00 ⁸⁾			2005			연평균 증감율(%)		
	농림수산업	후방	전방	농림수산업	후방	전방	농림수산업	후방	전방
한국	33,451	5,480	3,850	41,934	12,227	6,997	4.6	17.4	12.7
미국	254,288	140,336	49,949	317,583	165,604	55,766	4.5	3.4	2.2
프랑스	70,846	24,681	11,572	98,143	37,386	11,658	6.7	8.7	0.1
독일	45,264	37,218	10,342	54,047	40,145	12,396	3.6	1.5	3.7
일본	142,189	52,008	43,822	116,702	31,976	27,062	-3.9	-9.3	-9.2

자료: OECD STAT Extracts(<http://stats.oecd.org/Index.aspx>).

8) 원 자료에는 early-2000s, mid-2000s로 표시되어 있으나, 편의상 2000년, 2005년으로 표기함.

- 농림수산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를 국가별로 비교해보면 우선 미국과 우리나라의 경우, 농림수산업과 전후방관련 서비스업이 모두 증가하였으나, 일본은 총산출액과 마찬가지로 2000년 대비 2005년의 감소 폭이 큰 것으로 분석됨.
- 일본의 경우 농림수산업 전방관련 서비스업의 감소율이 39%에 달하는 등 총산출액에 비해서도 부가가치가 더욱 큰 폭으로 감소함.
- 미국은 2~3% 수준인 전후방관련 서비스업의 증가율보다 6.3%에 이르는 농림수산업의 부가가치 증가율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됨. 반면에, 우리나라는 농림수산업에 비해 전후방관련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 증가율이 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독일의 농림수산업 부가가치 규모는 우리나라와 비슷하지만, 전후방관련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가 2~7배 이상 높은 수준임.

표 3-11. 농림수산관련 서비스산업 부가가치 기준 국제비교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00			2005			증감율(%)		
	농림수산업	후방	전방	농림수산업	후방	전방	농림수산업	후방	전방
한국	20,730	3,287	1,516	24,307	7,423	3,068	3.2	17.7	15.1
미국	98,020	91,130	29,504	133,338	104,877	33,034	6.3	2.8	2.3
프랑스	33,730	14,712	7,658	43,915	21,670	6,895	5.4	8.1	-2.1
독일	21,614	24,272	6,731	22,136	25,921	8,311	0.5	1.3	4.3
일본	77,678	32,196	23,917	62,470	21,584	14,528	-4.3	-7.7	-9.5

자료: OECD STAT Extracts(<http://stats.oecd.org/Index.aspx>).

제 4 장

농림수산 서비스산업 발전 사례

1. 국내 농림수산 서비스산업 발전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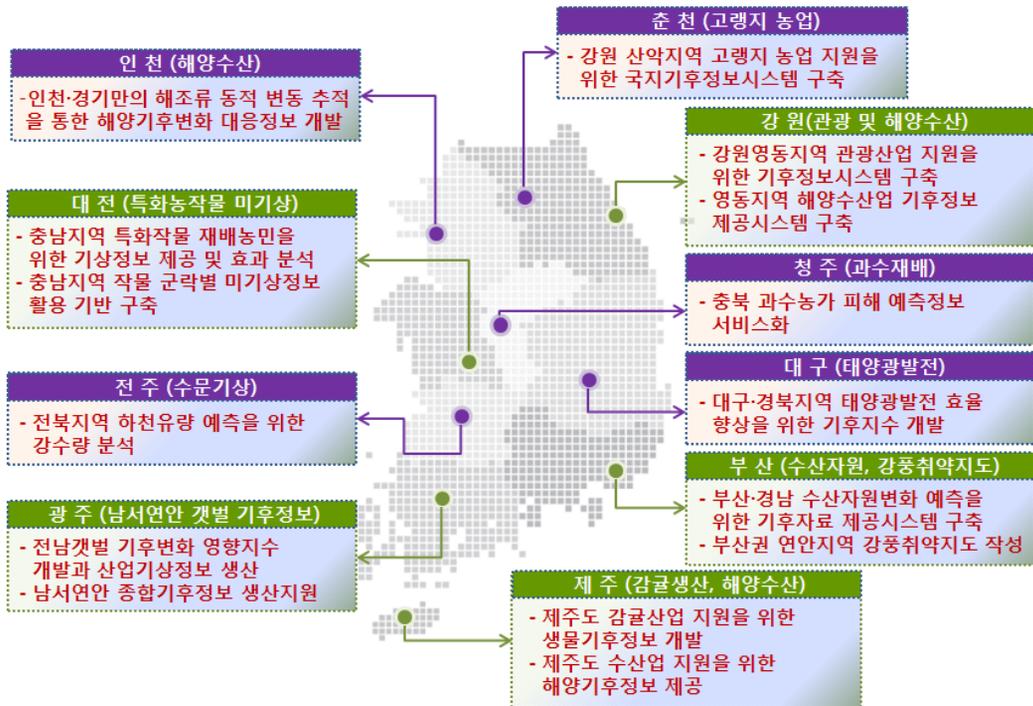
1.1. 생산관련 서비스: 제주 지역기후서비스사업

1.1.1. 현황

- 농림수산업은 재배 가능 작물 선정이나 파종부터 수확에 이르기까지 영농작업 전 과정에 걸쳐 기상·기후에 의한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기상청에 의한 농업 기상정보의 제공은 농림수산 생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서비스라고 볼 수 있음.
- 기상청은 기후변화 영향이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남에 따라, 지역별 특성화 전략 추진의 필요성 및 지역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2011년 「지역기후서비스」 사업(15개 세부 사업, 예산 25억 원)을 최초로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음.
- 지역기후서비스 사업에 대해 기상청은 지자체의 기후변화 적응 및 대응정

책 수립을 적극 지원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고품질의 맞춤형 기후정보를 생산·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어 저탄소 녹색성장을 달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밝힘.

그림 4-1. 전국 지역기후서비스 현황



자료: 기상청 보도자료(2011.04.25).

- 이러한 목적하에, 지역별로 특화된 지역기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 진행 중임. 특히, 제주·춘천·청주·대전의 경우에는 농림수산업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기상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음.
- 제주 지역기후서비스는 지역산업별 기후변화적응을 위하여 고품질의 기후예측정보를 개발하여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기후변화에 따른 감귤 병해충 발생이 증가하고 발생시기도 변화하고 있으나, 제주도의 1차 핵심산업인 감귤산업지원을 위해 특화된 기후정보가 전무하였음. 또한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주변해역의 수온·염분 변화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그에 대비한 기후정보는 제공되지 않았음.
- 제주 지역기후서비스 사업에서는 감귤산업 지원을 위한 병해충 첫 발생 시기 예측 기후정보, 기후 변화에 따른 병해충 발생빈도 및 감염 위험지수 생산 등 생물기후정보를 개발하여, 감귤 농업인 등 감귤산업 관계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 제공 및 평가를 통해 활용도를 제고함.
- 제주 기상청은 기후변화와 감귤산업지원 관계자 간담회(2011년 5월 10일), 기후변화와 지역경제 포럼 등의 행사를 통해 제주도청, 농업기술원, 농진청 감귤시험장, 제주시농협지역본부 뿐만 아니라, 유통인 조직인 감귤출하연합회와 생산자단체인 제주감귤사랑동호회 회원 등 지역기후서비스를 직접 수요하는 감귤 농업인 역시 활발한 참여를 보임.

1.1.2. 시사점

- 제주도에서 감귤산업은 2009년 기준 제주지역내 총생산액의 9%를 차지하며, 당해 작황과 가격수준에 따라 제주의 지역경제를 좌우할 만큼 비중이 큰 기간산업임.
 - 그러나 최근 전세계적인 기후변화에 수반한 이상기온으로 인한 작황 부실, 기온 상승으로 재배적지 고도 상승 등 급격한 생산여건 변화가 발생하면서, 감귤 재배 농업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단기적으로는 농업인들의 영농 의사결정에 필요한 농업기상관측정보의 원활한 제공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큼.

- 이상기후 등 지역 기후변화가 농업생산 영향이 확대됨에 따라 지역별 맞춤형 농업기상 서비스를 제공하여 농업생산의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에서 생산·제공하기 어려운 정보를 공공부문에서 제공하는 생산관련서비스의 긍정적인 발전 사례라고 볼 수 있음.
- 생산관련 서비스는 전반적인 측면에서 민간 차원에서 생산·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는 분야가 대부분임. 따라서, 지역별 맞춤형 농업기상관측정보 서비스, 지역별 농어업고용지원센터, 다문화가정, 취약계층, 돌봄서비스 등 새로운 공공서비스가 연구되는 분야에 대해 농림어업 생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설, 예산, 인력 등 정책지원의 필요성이 높음.

1.2. 후방관련서비스: 농기계임대 및 농작업 대행 서비스

1.2.1. 현황

□ 농기계 대여사업

- 농기계 대여사업은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게 농기계를 임대하여 구입부담을 경감하고 농작업 기계화율을 제고함으로써, 농촌 인구 감소와 농가 고령화에 따른 농업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임.
- 지난 2003년부터 시작되었으며, 농기계 구입가격에 비해 연간 사용일수가 극히 적어 이용효율이 떨어지거나, 밭농사의 이식 작업이나 수확작업 등과 같이 타 분야에 비해 농업 기계화율이 낮은 부분의 농기계를 정부가 구입하여, 대여를 신청한 농가에게 1~3일 동안 단기간 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 정부에서 지자체에 임대용 농기계구입 및 운영비를 지원하며, 용인이나 안성 등 농협에서 운영을 위임받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대부분 지자체가 관내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직접 운영함.
 - 지자체는 농업기술센터 내에 전담부서를 마련하고 폐교나 유휴부지 등 공간을 활용, 대여 사업장을 운영함.
 - 대여 농기계를 배송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농기계임대사업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온라인예약도 실시하는 등 이용 농업인의 편의 증대를 도모함.

- 정부의 지원 실적을 보면 2011년까지 총 220개소에 지원되었고, 2015년 350개소까지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임.
 - 사업 초기 발농사용 농기계 위주로 공급되었으나, 지자체에 따라 논농사용 농기계도 구비하여 대여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4-1. 농기계 임대사업 연도별 지원실적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시행주체	지역농협	시·군	시·군	시·군	시·군	시·군	시·군	시·군	시·군	
사업단가(백만원)	250	250	250	300	500	800	1,000	600~1,200	1,000	
국고지원율(%)	30	30	50	50	50	50	50	50	50	
사업량(개소)	5	8	8	12	20	39	42	61	25	
사업비	계(억원)	14	20	20	38	107	330	400	500	250
	국 고	4	6	10	18	50	165	200	250	125
	지방비	10	14	10	20	57	165	200	250	125

자료: 농림수산물부 보도자료(2010.01.15)

- 농기계 임대사업 관련하여 언론에 보도된 기사와 실제 농업현장에서의 반응을 보면, 농업인들의 호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제도 정착 단계에 접어든 2010년 이후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한 농업인들의 호응이 매우 높음.
- 공정한 사용 예약을 위해 추첨제를 실시하는 등 대여용 농기계 공급이 이용을 원하는 농업인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턱없이 부족한 지역이 다수일 정도로 인기가 높음.

□ 농기계 은행사업

- 농기계 은행사업은 2008년부터 농협이 고가의 논농사용 농기계에 대해 임대를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농기계 임대 뿐만 아니라 농작업 대행, 혼합형(임대형 + 농작업 대행) 등 여건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음.
- 농협중앙회가 1조 원의 ‘농기계은행사업기금’을 5년간 연차적으로 조성하여 사업을 운영함. 고삼농협의 성공모델인 ‘책임운영자지정 임대방식’을 참조하여 농작업대행을 병행하는 은행사업으로, 농업인 실익사업이라는 측면에서 방향성을 설정하여 2008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되었음.
- 농작업 대행서비스는 2009년 전체 논면적 중 3%인 2,800ha에서 2013년 19만ha(전체 논면적 중 20%)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음.
 - 농작업 대행서비스의 범위 또한 기존의 경운·정지·이앙·수확에서, 벗짚 결속·방제·시비 등으로 확대하고, 2012년 이후 육묘·파종·건조 등을 추가할 계획임.
- 고삼농협의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인센티브 지원을 통한 농작업 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 주체를 육성함.
 - 책임운영자에 대해 전국단위 조직화를 추진하며, 2009년 5,500명에서 2012년 1만 명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임. 우수 지역에 대해서는 자금지원 우대 및 우수 책임운영자 교육·포상 등의 인센티브도 지원함.

□ 농작업 대행 시장

- 민간 농작업 대행서비스 시장의 면적 및 시장규모⁹⁾는 농경지 163만8천ha의 37% 수준인 603천ha, 약 1조 원 수준으로 추정됨.
 - 조사 결과, 향후 2014년까지 벼는 재배면적의 65%, 밭은 50% 수준까지 임작업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벼 농사는 재배면적 925천ha의 42%인 389천ha, 6,709억 원, 밭은 713천ha의 30%에 달하는 214천ha, 3,315억 원 수준임.
- 임작업 주체별로는 2009년 기준 민간(전업농) 94%, 농협 3%, 농업법인 3%로 조사되었으며, 임작업료는 민간과 농업법인이 비슷한 수준이며, 농협은 민간대비 5~10% 저렴함.
 - 민간 임작업료(3.3㎡당): 경운 110원, 정지 140원, 이앙 126원, 파종 145원, 수확 215원, 방제 60원

1.2.2. 시사점

- 농업 투입재 관련 서비스 가운데 농업인들의 현장수요가 매우 높은 서비스로서, 고가의 농기계를 개별적으로 구입하여 활용할 때 발생하는 비용부담, 부채발생, 가동률 저조, 관리부실, 고령화 대응 등의 문제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공공서비스로서,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임.
- 농기계대여은행사업을 통해 중고농기계를 매입함으로써 농기계부채를 경감하고, 고가 또는 사용빈도가 낮은 농기계 구입 부담을 감소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음.
 - 그러나 농기계대여은행의 경우 장기 임대 위주로 사업이 운영되고 현장

9) 2009년 8월 농협에서 50개 지역에 대한 표본조사를 통해 조사된 결과임.

수요에 비해 여전히 공급되는 농기계 수가 적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체감하는 실익은 농기계임대사업에 비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현재 정부 주도의 농기계임대사업과 농협의 농기계대여은행사업의 운영 이원화로 인해,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음. 최근 정부의 농기계임대사업 지원 대상에 기존의 지자체 뿐만 아니라 농협도 포함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는 등 운영주체의 통합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보다 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위한 방안 모색이 시급한 실정임.
- 기존에 농작업대행 서비스가 민간 차원에서 자생적으로 형성되어왔으나, 수요자인 농업인들에 대한 접근성 부족과 비용 부담 문제를 개선하는 데 농협의 농기계대여은행사업 및 농작업 대행 서비스가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농작업대행 서비스를 제공해왔던 민간 서비스 제공자들을 농협사업 내의 지역별 책임운영자로서 영입함으로써, 민간 서비스 제공자들의 직업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농협에서도 기존의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윈윈전략이 될 수 있음.
- 농가가 개별적으로 대응할 경우 비용부담이 크고 가동율 저조로 인한 비효율이 발생하며 관리의 어려움이 큰 농작업 기계화 등 후방관련서비스부문에 정부, 생산자조직의 농작업대행, 농기계임대 등 공공서비스 제공으로 농업생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음. 따라서 이에 대한 예산·인력·시설·장비 등 공적 서비스 지원 확대가 필요함.

1.3. 전방관련서비스: 신미네 유통사업단

1.3.1. 현황

- 신미네 유통사업단은 1994년 경북 문경에 설립된 이래, 수출물량의 안정적 확보와 선진적인 저장·선별·포장 등을 목표로, 농산물 유통분야에서 선구적인 산지유통업체임.
- 양파 생산농가와 계약재배, 양파 저장방식인 “컨테이너 재활용 저온저장법” 등 획기적이고 새로운 물류시스템을 개발하여 비용절감과 생산계열화를 실현함으로써 농가에 소득증대를, 소비자에게 안정적인 가격으로 연중 공급하고 지역의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
- 양파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새로운 양파 수집·저장·선별유통방법을 개발하여 물류비를 획기적으로 낮추고 엄격한 품질관리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2000년도에 전국 최초, 최대의 컨테이너 재활용 저온저장시설과 선별포장시설을 설치하여 고품질의 양파를 전국 홈플러스 매장에 연중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음. 이는 신미네 유통사업단 전체 출하량의 60%에 해당하는 물량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있음.
- 신미네 유통사업단은 양파수출과정에서 미작중심의 영농현실과 수집상 중심의 산지유통구조로 인해 농가의 판로와 수취가격이 불안정한 것에 착안하여, 안정적인 물량수급을 위해 1994년에 경북 문경지역에서 양파농가와 계약재배를 시작하였음.
 - 계약재배를 시작하던 초창기에는 계약상대 간 불신으로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파종 전 종자지원과 기술지도 후 전량 수매하는 수직계열화를 정착시키고, 후작으로 생산된 콩과 감자 등도 수매하여 지역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였음.

- 아울러 양파 유통사업단 운영을 통해 저장, 선별포장, 운송 인력을 고용하여 지역주민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
 - 현재 사무직 25명과 생산직 48명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있으며, 감자와 대파 전처리작업의 경우에는 일일 비정규직 40여 명을 인력회사를 통해 조달하고 있음.

- 신미네 유통사업단은 정부의 별도 자금 지원 없이 부설연구소 운영 및 시험 농장에서의 실험 등을 통해 연구개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정부의 지원은 양파 주산지인 전남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나, 기후 등 지역 여건이 확연히 달라 문경지역에 맞는 재배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자체 연구에 역량을 기울이고 있음.
 - 현재 부설연구소에 3명의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있으며, 1,500평의 시험 농장에서 재배기술 연구와 농업인 교육을 병행하고 있음.

- 농산물 수집기능 뿐만 아니라, 계약재배 농가에 대해 농업생산 서비스를 제공함. 동일한 종자와 농자재(농약, 영양제 등) 사용, 영농팀의 영농지도 및 현장방문 등의 농업생산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수집·출하하는 농산물의 균질화를 추구하고 있음.

1.3.2. 시사점

- 대규모 산지유통시설에서 농촌지역 주민을 대량 고용하여 큰 농촌지역 고용효과와 농외소득 증대효과를 보여준 유통모델 사례로서, 계약재배사업을 통해 농업생산서비스도 동시에 제공하고 있음.

- 신미네 영농조합법인이 위치한 곳이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폐기물)을 처리할 때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함. 그러나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폐기물 자원화 업체

에서 양파 고유의 특성으로 인해 기피하고 있어 폐기물 처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현재 연간 57만 톤을 취급하고 있는데, 그 중 15~20%가 폐기물임.

- 축산 부문의 경우, 축산폐기물 발생으로 인한 피해가 크고 해양투기 전면 금지를 앞두고 있어 축산자원화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개발 및 제도 개선을 통해 현재 개별축산시설마다 설치되고 있는 반면, 양파 등 농산물 유통 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는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정책적 관심이 요구됨.
- 농산물유통업체 입장에서 숙련된 농업노동자를 고용하고자 하나 훈련된 농산물유통 관련 노동자가 드물고, 농촌지역에 입지해 있다는 점 등의 한계로 인해 전문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현재 정부 지원책은 단기간의 월급 지원 정도에 불과하여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실정이므로, 전문인력 양성 및 농촌지역 근무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 도입 등의 대책이 요구됨.
- 개별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에 대해 농림수산물부의 현장 애로사항 지원 정책은 있으나, 농산물유통 등 관련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 창구는 아직까지 고려되지 않고 있음.
- 산지유통시설에 대한 농업인들의 수요가 날로 증대되고 있으나 산지유통시설 활성화에 필요한 인센티브, 교육, 예산 등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 따라서 고용효과가 크고 농외소득 증대효과가 큰 사회적 기업 성격이 강한 농업인 등의 가공, 유통시설 등 전방관련 서비스 시설에 대해 시설, 투자, 운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의 지원이 필요함.

- 또한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 재교육 프로그램 등 개별 업체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분야에 대해 정책적 지원이 요구됨.

1.4. 식품관련서비스: 로컬푸드

1.4.1. 현황

- 식품 안전관련 사고의 빈발로 안전한 먹거리 · 건강 · 웰빙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
- 로컬푸드는 먹거리의 이동거리를 축소시켜 석유 사용량과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인다는 점에서, ‘녹색성장’이라는 정부 정책 기조에 부합함.
 - 행안부는 2008년 지역혁신협의회 지역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분야 우수사업으로 ‘로컬푸드 시스템 구축’을 선정한 바 있음.
 - 농식품부는 ‘저탄소 녹색성장 대책’ 세부 추진계획의 하나로 로컬푸드 운동을 지정함.
- 대표적인 로컬푸드의 예로 농민장터, 공동체지원농업(CSA), 도시농업이 있음. 이밖에도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단체급식, 식당, 생협 등이 있음.
 - 농민장터(Farmers' Market)는 가장 단순한 형태의 로컬푸드 운동으로,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직접 판매하기 때문에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사회적 거리가 가장 가까움.
 - 공동체지원농업(CSA)은 생산자인 농민과 회원 소비자들이 생산자에게 영농과 생계에 필요한 현금과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확물을 분배 몫으로 제공받음으로써, 소비자가 영농에 대한 위험을 생산자와 함께 나누는 형태임.

□ 완주군 로컬푸드 사례: ‘건강한 밥상’

- ‘건강한 밥상’은 전북 완주군 180여 농가에서 생산된 친환경 농산물과 반찬 등 신선 먹거리를 매주 또는 격주 단위로 가정에 공급하는 사업으로, 마을 기업으로 출발해 사회적기업 전환을 통해 성공한 대표 사례임.
- 완주군 건강밥상꾸러미 사업은 완주의 생산자와 전주권의 소비자를 연결하는 공동체 지원 농업의 사례로, 지역에서 난 제철먹을거리를 꾸러미 형식으로 꾸러 일반 소비자 가정에 배달하는 방식으로 운영됨.
- 현재 완주 건강밥상 꾸러미 사업은 현재 완주로컬푸드영농법인 ‘건강한 밥상’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마을공동체사업을 추진하는 리더와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결성되었으며, 행정과의 민관협력을 통해 로컬푸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두부, 유정란, 콩나물, 제철채소, 과일 등 11품목
 - 주 1회, 월 4회 공급(현재 격주 회원이 다수)
 - 꾸러미 개당 가격 25,000원
 - 1개월(시범), 3개월, 6개월, 12개월 선납
 - 직배 또는 택배방식(택배비 건강밥상 부담)
- 2010년 10월 중순 전주지역 141가구에 공급하기 시작하여, 2011년 5월 현재 2,440가구로 회원 수가 늘었고, 월 공급물량은 4,838개에 달함(매출액 기준 월 1억 2천여만 원).
- 행정지원 측면에서 완주군은 2008년부터 중장기계획에 유통혁신과제로 로컬푸드를 반영하였으며, 2010년 7월 행정 내 로컬푸드를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함. 또한 현장조직화를 도울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으로 전담계약직을 채용하는 한편, 로컬푸드팀을 운영하고 있음. 2010년 11월에는 로컬푸드 육

성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재정확보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 중임.

□ 원주시 로컬푸드 사례

- 원주시의 로컬푸드 사례에는 원주새벽시장으로 대표되는 파머스마켓과, 생협운동에서 시작되어 사회적기업의 형태를 갖춘 원주학교급식지원센터가 대표적임.
 - 원주새벽시장은 1994년 자연발생적으로 시작된 이래, 관내 농업인들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으며, 지역소농 중심의 새벽시장농업인협의회에서 운영을 총괄하고 있음. 지자체에서도 새벽시장 개설 및 운영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함.
- 생협 운동에서 출발하여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원주학교급식지원센터’는 현재 원주 관내 학교급식에 원주산 친환경 쌀을 공급하고 있음.
 - 뿐만 아니라 친환경 종묘사업이나 지역생산 쌀을 이용한 떡·쌀과자 가공사업 등 가공사업으로의 확장도 검토 중에 있음.
- 또한 원주시는 로컬푸드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원주푸드종합센터 건립(2013년 완공 예정), 민·관·학이 공동참여하는 원주푸드위원회를 발족, 세부분과위원회를 설립하는 등 로컬푸드 대표도시로 자리매김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음.

1.4.2. 시사점

- 지역의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직거래, 학교급식 등 지역의 자발적인 로컬푸드운동은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을 유통하는 데 있어서 기존의 식품유통시스템과는 차별성을 가지는 대안적인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음. 이러

한 과정에서 지역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역농산물 판매를 통한 판로안정화 등에 기여하여 부가가치가 발생함.

- 농민단체, 소비자단체, 협동조합, 유통업자, 가공업체, 복지단체, 지자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가칭)지역먹거리협의회(Local Food Policy Council)와 같은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거나, 개별업체에서는 설립하기 어려운 (가칭)지역 로컬푸드 지원센터 설립 지원 등의 공공정책 수립과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함.
- 일본 후쿠이(福井)현 ‘지산지소의 추진에 관한 조례’ 제정, 치바(千葉)현 이치하라(市原)시 ‘이치하라 시민에게 건강한 웃는 얼굴을 퍼뜨리는 지산지소 추진조례’ 통과 등의 사례가 있고, 국내에서도 최근 원주시, 완주군, 평택시, 청원군 등에서 관련 조례가 통과된 바 있으나 실효성 측면에서 아직까지는 드러나는 성과가 미미함.
- 식품가공에 대한 엄격한 규제사항을 충족하는 시설 없이 농가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가공하여 판매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이는 원주시와 완주군의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점임. 전통식품을 농가에서 생산, 가공하여 판매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현실적 측면을 감안한 규제 완화가 필요함.
- 또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에 관한 지자체 조례 제정을 통해 지원이 가능함. 정은미(2010)¹⁰⁾의 연구에 따르면,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 법률」에 근거해 지자체는 농외소득 활동을 지원·육성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또한 「식품안전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근거하여 농업

10) 정은미,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에 대한 지자체 조례(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0.09.

인이 직접 식품을 가공하여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하여 관련 사항을 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함.

- 농업인의 식품가공은 농외소득에 기여하는 정도가 크므로 지자체의 지원 정도에 따라 새로운 농외소득원으로 개발 가능성이 큰 부분이며,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 법률은 구체적으로 농산물 가공시설 및 교육, 기술 개발,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농산물 가공 기술활용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현장에서 농업인들이 농산물 가공품을 생산하고 창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음.
- 또한 농업인이 식품을 가공하는 방법이 일반 가정에서의 조리방법과 동일하지만 식품으로 판매되기 때문에, 지역 농업인이 가공한 식품 안전에 관해 지자체의 책임있는 관리·지도가 명시된 규정을 마련하여 「식품안전법」 제 5조(국민의 권리와 사업자의 책무)를 원활히 유도하는 것이 필요함.
- 여행이나 관광 기회의 증가로 농촌지역에 위치한 식당 등에서 먹거리를 찾는 경우가 많아짐에 따라, 단순한 지역 특산음식이 아니라 식자재까지 지역에서 생산된 것을 이용하도록 유도하여 보다 실질적인 차원에서 로컬푸드 운동을 전개해 나갈 필요성이 있음.
 - 원주시의 경우 로컬푸드 운동의 일환으로서, 학교급식 뿐만 아니라 결식아동지원예산을 활용하여 지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사용하는 식당을 자체 운영함으로써, 결식아동들의 영양 개선에 기여하고 있음.
- 지역의 농산물을 이용한 학교급식, 공공급식 등 로컬푸드운동 사업은 식품 관련 공공서비스를 지역사회의 고용효과, 지역농산물의 판로확보 등 효과가 있는 사업으로, 사회적 기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 지역경제에서의 파급효과가 큰 로컬푸드 운동의 전국적 확산을 위해 식품가공 관련 규제완화, 예산지원 등 활성화 대책이 요구됨.

1.5. 지역관련서비스: 제천시 한방산업

1.5.1. 현황

- 제천시는 지역의 특화 작목인 약초를 중심으로 생산·가공·상품 판매 및 유통·기술개발·농촌관광 등 전 산업이 연계된 한방산업을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음. 특히 건강특구사업, 한방생태체험마을, 한방 생태숲조성사업 등 한방체험, 건강, 관광, 상품판매, 홍보와 관련된 지역관련서비스 효과가 큰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 제천시의 약초생산량은 과거 10톤 내외를 유지했는데, 최근 지자체의 한방산업 육성 정책으로 2009년에는 771톤까지 증가했음. 제천의 약초생산 비중은 전국대비 3.7% 수준임.
 - 약초 생산량 추이: (01년) 10톤 → (05년) 9톤 → (09년) 771톤
 - 특히 황기, 황정 생산량은 전국의 약 30%를 차지하며, 전국 약초 유통량의 약 40%를 점유하고 있음.

표 4-2. 제천시 약용작물 생산 동향

단위: 톤, %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전국(A)	1,295	1,113	1,422	1,597	1,806	3,135	3,216	4,464	20,664
제천시(B)	10	11	9	9	9	10	13	14	771
B/A	0.8	1.0	0.6	0.6	0.5	0.3	0.4	0.3	3.7

자료: 통계청 KOSIS

- 최근 제천시는 약초를 지역 특화작목으로 선정하여 한방과 더불어 지역의 새로운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해 오고 있음. 제천의 한방산업은 생산부문인 1차 산업에서 한약 제조 등 2차 산업, 한약 도소매, 가공, 의료서비스 등

3차 산업까지 전 산업에 걸쳐 인프라가 잘 형성되어 있음.

- 국내 한방산업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제천시는 2008년 WHO 건강도시연맹에 가입해 한방을 활용한 다양한 국제건강도시 개발에 중요한 경쟁력을 확보함. 또한 2010년에는 제천국제한방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로 국민들에게 한방도시로 확고한 이미지를 심어줌.
- 이처럼 제천시 한방산업의 서비스 여건은 한방제품의 생산·가공·유통·서비스 분야가 모두 지역 내에 연계되어 산·학·연·관의 연계를 통해 사업추진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추구하고 있음.

표 4-3. 제천시 한방산업 관련사업 현황

구분	내용
약초시장	· 74개 업소 · 경매장 · 전시판매장 1개소
한약도소매	· 도매업소 8개, 약업사 16개업소
한약가공	· 제조 3개 업체, 가공시설 9개 업체
한방제제	· 37개업체(식품 22, 화장품 4, 제약 11)
한방음식	· 30개 업소
의료서비스	· 한방병원 1개소, 한의원 25개소
산업단지	· 7개소(바이오밸리 2, 테크노빌 5)

자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방의료관광 활성화 방안」, 2009.

- 제천시의 한방산업 관련 사업으로는 제천 한방산업 클러스터 구축, 한약재 명품화 사업, 고부가가치 상품개발 마케팅 사업, 한방의료관광 사업, 한방 국제건강도시 사업 등이 있음.
 - 제천 한방산업 클러스터 구축: 효율적인 지역 한방산업 육성을 위해 산·학·연·관을 연계하는 한방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한방의 과학화, 산업화 추구

- 한약재 명품화 사업: 산업화의 기본 토대인 지역의 한방자원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5개 사업 추진
- 고부가가치 상품개발 마케팅사업: 풍부한 약초자원을 활용하여 연구개발을 확대하고, 판매 촉진을 위한 마케팅 전략 수립, 상품 판매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추구
- 한방의료관광 사업: 한방자원, 상품, 관광을 연계하여 도시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 고용창출 효과 추구
- 한방 국제건강도시 사업: 제천 한방산업을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에 알리고자 관련 이벤트를 개최하고 외국과의 교류 사업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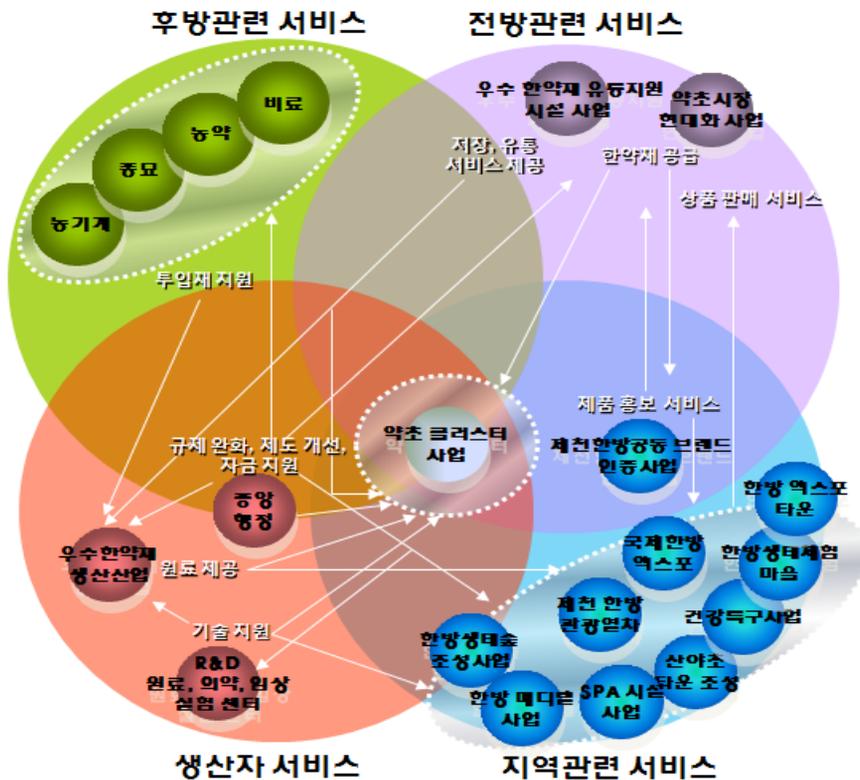
표 4-4. 제천의 한방산업 관련 사업 현황

구분	사업 내용
제천 한방산업 클러스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 농가 및 조합, 약초시장 및 한약 도소매시장 ·학: 3개소 참여 ·연: 5개소 참여 ·관: 34개 기관 참여
한약재 명품화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수한약재 생산(GAP) 사업: 고부가가치화 소득 증대 및 브랜드의 대외경쟁력 강화 ·우수 한약재 유통지원 시설 사업(BTL): 시설 현대화로 안전한 한약재 공급 추구 ·제천 한방공동브랜드 인증사업: 소비자 신뢰구축 및 판매 확대 거양 ·한방생태숲 조성사업: 엑스포에 활용할 재배단지 조성 및 녹지시설 도입 ·산야초 타운 조성: 관광과 연계한 한방테마 공원 조성
고부가가치 상품개발 마케팅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방산업클러스터사업단 운영: 한방산업 발전의 시너지 효과 거양 ·약초클러스터사업: 고부가가치 브랜드 개발 및 명품화 사업 추진 ·전통의약산업센터 설립 운영: 연구개발 및 기업체의 기술혁신 선도 ·한방바이오임상지원센터 운영: 연구기반 인프라 구축 ·고부가가치 한방상품 연구개발 및 마케팅: 한방특화상품 판매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실현
한방의료 관광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에코테라피건강특구 사업: 동·서양 전통의학을 접목한 건강특구 조성 ·한방생태체험마을 사업: 다양한 한방 테마체험 시설 운영 ·리솜 제천한방 SPA 시설 사업: 도시관광객 유치 및 지역 고용창출 실현 ·제천 한방관광열차 LOVE TOUR 운영: 한방테마 헬스투어리즘 활성화 ·한방 메디컬 사업: 체류형 건강증진 관광지 조성
한방 국제건강 도시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방생명과학관 건립 사업: 한방 관련 역사, 의학 정보 등 제공 ·해외교류 협력 사업: 세계 전통의학 정보 교류 및 엑스포 참여 확대 유도 ·한방엑스포 타운 조성: 엑스포 행사장을 한방건강축제 장소로 활용 ·컨벤션센터 건립: 국제학술대회, 비즈니스 포럼, 세미나 개최 등 활용

자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방의료관광 활성화 방안」, 2009.

- 제천 한방산업 중에서 지역서비스 분야는 건강특구사업, 한방생태체험마을, 한방 생태숲 조성사업 등 ‘한방체험+건강+관광+상품판매 및 홍보’가 연계된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 고품질 한약재 생산을 위해서는 후방관련 서비스 영역에서의 투입재(종묘, 비료, 농기계, 농약 등) 지원이 필요함. 이러한 경우, 우수 한약재 생산 사업 분야는 서비스의 수혜자가 되는 것임. 또한 이 사업을 통해 생산된 고품질 한약재는 한방 생태숲 조성 사업, 국제 엑스포, 건강 특구 사업 등 지역관련 서비스 영역으로 공급이 이루어짐. 이러한 경우, 우수 한약재 생산 사업 분야는 서비스의 공급자가 되는 것임.

그림 4-2. 서비스 영역별 제천시 한방산업 관련 사업 분포



- 제천시 한방산업은 서비스의 영역(후방관련 서비스, 전방관련 서비스, 생산자 서비스, 지역관련 서비스) 중 지역관련 서비스 분야가 특화된 양상임. 특히, 한방 및 지역의 자연자원을 연계한 관광 사업이 다른 사업보다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함.
 - 관광 사업은 다양한 세부 사업들을 접목하여 파생되는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임. 또한 이와 연계된 의약, 한방 제품 생산 및 판매를 위한 R&D와 마케팅 사업 분야도 비중이 높음.
 - 반면, 저장, 유통, 판매 서비스의 기능을 제공하는 전방관련 서비스와 생산 부문으로 투입재를 지원하는 후방관련 서비스 분야는 사업 추진이 미흡한 실정임.

1.5.2. 시사점

- 지역특화 클러스터사업은 지역의 고용효과, 소득증대효과 등 종합적으로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사업관련 규제 등 제약요소를 해소하고 예산지원, 교육, 민간투자유치 등의 노력이 필요함.
- 농림수산업의 산업 영역이 과거 1차 산업 위주에서 최근 2차, 3차 산업으로 확대됨에 따라 개별 산업 영역에서 파생되는 서비스의 종류도 다양화되고 있음. 농림수산업 관련 산업이 갈수록 분업화, 전문화되면서 기업 활동을 구성하는 가치사슬(R&D, 제조, 마케팅 등)도 점차 분할되고 있음.
- 산업간 연계성이 강화되면서 서비스의 공급자로서 때로는 수혜자로서 시너지가 극대화됨으로써, 새로운 개념의 서비스 창출 능력이 농림수산업 경쟁력 제고의 원천으로 작용할 수 있음. 즉, 농림수산업, 식품, 공공부문의 관련 서비스산업은 농식품 및 농촌지역에서 소득 및 일자리 창출에 있어 매우 중요함.

- 이렇게 볼 때, 제천시 한방관련 서비스산업 발전 사례는 약초를 중심으로 한방관련 전·후방연관 산업이 서로 연계되어 지역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있는 측면에서 큰 의의를 가짐.
 - 특히, 최근 전 사회적으로 경제적 효율성이 강조되고 있는 바, 한방클러스터 사업은 서비스 제공에 있어 참여 주체간 역할 분담을 통해 효율성을 추구하는 서비스산업의 발전모델 중 하나임.
- 하지만 서비스 영역별 추진 사업을 살펴보면, 지역관련 서비스 분야의 사업으로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음. ‘한방체험+건강+관광+상품판매 및 홍보’가 연계된 사업의 비중이 높고, 의약, 한방 제품 생산 및 판매를 위한 R&D와 마케팅 사업 등 생산자 서비스 분야의 사업도 적극 추진되고 있음. 반면, 후방관련 서비스와 전방관련 서비스 분야의 사업 추진은 다소 미흡한 실정임.
- 제천 한방산업의 후방관련 서비스와 전방관련 서비스 분야의 사업이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스마일 커브식 사고를 지양할 필요가 있음. 한방산업 발전에 있어 전·후방관련 서비스 산업의 중요성도 함께 인식해야할 필요성이 있음.
 - 제천 한방관련 서비스산업은 전 서비스 영역에 속한 개별 사업들이 지역 내 한방 인프라를 기반으로 상호 연계·발전을 도모해야 승수효과를 낼 수 있으므로 전 서비스의 영역의 고른 성장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한방산업은 오랜 시간과 대규모 투자재원이 요구되는 중·장기 사업임. 그렇기 때문에 개별 사업은 주어진 예산 제약 하에서 투자의 우선순위가 정해질 수 밖에 없음. 사업 선정 시 효율성, 효과성, 시행가능성,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한방산업의 사업 예산은 대부분 국비(신활력사업 지원 등) 및 지자체의 정책 자금으로 운영되어 왔음. 정부의 정책 지원은 정치권의 이해, 정

부의 정책 기조 변화 등으로 연속성이 유지될 수 없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민간 부문의 역량도 한방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핵심 요소 중 하나인 바, 적극적인 민자 유치 방안도 동시에 모색할 필요가 있음.

1.6. 지역관련 서비스: 사회적기업¹¹⁾

1.6.1. 현황

- 사회적기업에 대해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보편적 정의는 존재하지 않음. 나라마다 사회적기업의 개념과 요건은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나, 사회적기업은 일반적으로 “영리적인 기업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창출된 수익은 사회적 목적을 위해 환원하는 기업”이라고 정의됨.
- 이들 중 한국의 사회적 경제의 흐름을 주도하는 영역은 생산과 소비의 영역으로 평가되고 있으며(김정원, 2009), 지역자활센터와 같은 매개 영역의 조직도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농어촌 지역 등 사회적 경제 주체들의 활동이 미미하여 자치단체의 매개 역할이 중요한 사례도 있음.

□ 영농조합법인 새벽

- 2007년 도내 첫 노동부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영농조합법인 새벽은 2001년 남원지역자활센터(당시 남원자활후견기관)의 ‘새벽채소 자활사업단’으로 첫발을 내딛음. 유기농 채소를 생산해서 판매하는 구조로 당시

11) 이 부분은 오내원 외, 「농촌지역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기업 육성방안 연구(1/2차연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0의 내용을 인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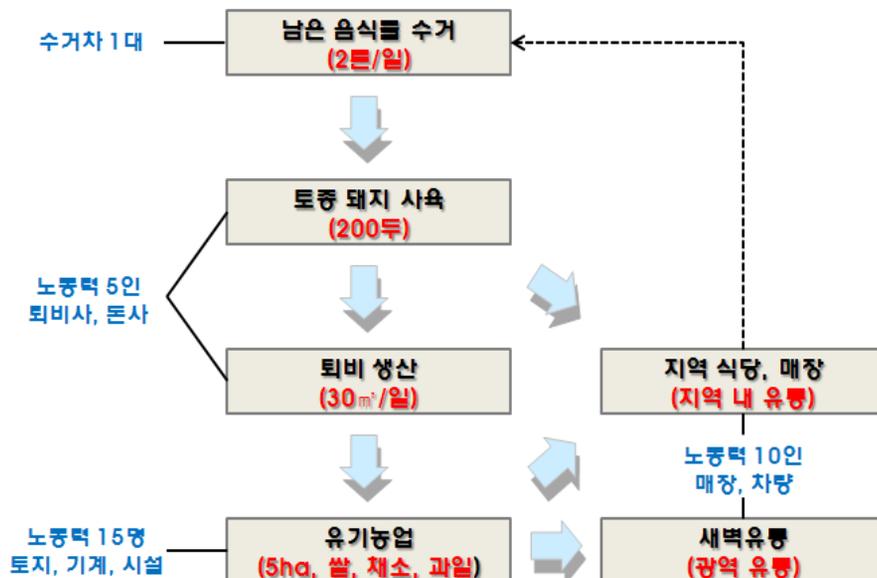
대형 유통회사에 판로를 정하면서 안정적 수익구조를 가질 수 있었음.

- 2003년에는 자활공동체로 독립, 독자적인 생존 구조를 만들어갔고 영농조합법인으로 등록했음. 이 무렵 남원지역자활센터에는 돼지를 사육하는 '흙살림 사업단'이 설립됨.
 - 새벽채소와 흙살림은 같은 자활기관 소속인데 가축분뇨가 유기농산물 생산에 활용되는 '자원순환'의 연결고리가 형성됨.
- 2005년에는 '맛나식당'을 개업하여 사업 영역이 확장됨. 기관에서 생산된 축산물과 유기농 채소가 맛나식당으로 공급되어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는 등 수익창출의 새로운 기반을 마련함.
 - 맛나식당의 개업은 수익창출의 기반이 마련된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짐. 즉, 맛나식당에서 배출하는 음식물 쓰레기는 가축사육의 사료로, 가축의 배설물은 농사의 퇴비로, 유기농으로 생산한 신선한 채소와 돼지고기는 식당의 원재료로 활용되는 자원순환 영농의 틀을 완성한 것임.
- 영농조합법인 새벽은 취약계층 일자리제공형 사회적기업임. 2010년 기준, 고용인원은 69명(직원 7명, 일자리참여 62명), 예산규모는 14억 7,000만 원임(국고 보조 6억 1,000만 원).
- 새벽영농조합의 사업은 크게 5분야로 구성됨. 이 중 지역순환형 농업사업은 저소득 취약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 남은 음식물 재활용으로 순환영농을 실천하여 환경 보전, 지역 내 공공급식을 중심으로 로컬푸드 활성화와 유통전문인력 양성 등 다면적 목적을 가진 사업체계라 할 수 있음.
 - 남은 음식물 재활용으로 양돈 사육에 사용: 남원시 공동주택 인구 1,140 세대의 남은 음식물을 수거하여 토종 흑돼지를 사육하고 양질의 퇴비를 생산(최근 잉여노동과 풀 활용을 위해 한우 5두와 육우 10두 사육 병행)
 - 유기재배: 돈분 퇴비를 활용하여 5ha에 곡류, 양념류, 근채류, 과수 등 50

여 품목의 농산물 생산

- 시장교섭: 남원 시내에 상설유기농 매장 1개소, 유기농식당 2곳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유기농산물의 사회적 유통을 시도함. 이는 유기농산물 중에서 외관상 품질이 떨어져 시장판매가 어려운 B급 이하의 유기농산물을 전라북도 내의 지역복지센터, 경로당에 단체급식용 식자재로 판매하는 사업임. 개별 생산물에 대해 가격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일정 기간, 일정 가격에 납품물량을 확정하고 공급하는 형태인 ‘사회적 유통(CSA)’을 추진하기로 결정함(‘새벽유통’과 공급계약 체결).
- 민속전승: 가양주, 한과, 장류 등의 토속음식 발굴 사업을 기획 중이며, 최근 전통 주거와 생활상에 대한 조사사업을 진행하였으나 뚜렷한 성과는 거두지 못함.
- 주거복지 서비스: 저소득층 주거개선 사업

그림 4-3. 영농조합법인 새벽의 지역순환형농업 사업구조



자료: 오내원 외, 「농촌지역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기업 육성방안 연구(1/2 차연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0

□ 사단법인 청람

- 청람은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에 소재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임. 당초 사회 서비스업에서 출발하였으나 지역농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있음.
- 청람의 사업계기는 1993년 영광종합병원 내의 자원봉사 동아리와 인연을 맺은 것에 기인함. 2002년에는 경제적 형편 때문에 병원에서 조기 퇴원하는 환자들을 위한 종합적 재가서비스를 위해 병원 직원 60여 명으로 구성된 자원봉사대를 발족함. 이후 혼자 사는 환자에게는 식생활, 청소, 빨래 등을 도와주고, 전기시설과 벽지 도배 등 주거환경까지 도움의 손을 넓힘.
- 처음에는 병원 직원을 중심으로 자원봉사를 하였으나, 영광군과 인근 지역(광주광역시, 나주시 등)의 인적, 물적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장애인과 독거노인에 대한 재가방문서비스, 경로잔치, 입원환자 영농도우미 등 활동을 확대해 나감.
 - 청람의 사회봉사 활동이 전국적으로 알려지면서 2003년과 2004년에 전국자원봉사대축제때 사회봉사부문 봉사상과 국무총리상을 수상함.
- 2005년에는 사회적일자리 창출업체(민간자원동원형)로 지정되고, 2007년 10월에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으면서 사업을 체계화하게 되었음.
- 청람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사회서비스, 환경지킴이, 농수산지킴이 총 3가지 영역으로 구분됨. 아직까지 사회서비스 분야가 아직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점차 농수산지킴이 분야로 확대할 예정임.
 - 농업분야는 조기퇴원 환자나 응급 입원환자를 돕는 과정에서 그들의 영농문제를 해결해주고자 시작하게 됨.
 - 2009년에는 고추를 비롯한 여러 작물의 모종을 키우는 육묘장 사업(하우

스 2310m²)을 시작함.

- 2010년에는 전라남도의 특화사업 지원을 받아 새싹, 어린잎 채소 재배시설을 도입함.

- 지역의 환경친화적 농산물 직거래 사업을 통해 단체급식까지 확대할 목표로 사업을 구상 중임. 지역 이장 출신 농민들로 청람농가특화위원회(70명 가입)를 구성하여 모임을 갖고 있으나 아직 뚜렷한 결실은 없음. 앞으로 휴경지에서 땅 주인을 포함하여 영농을 재개할 수 있는 조직도 구상 중임.

표 4-5. 2009년 청람의 사업 현황

영역	내용	종사자	사업규모 (계획)
사회서비스	가사, 간병, 복지시설 지원	39명	706백만원 (한수원 150백만원)
환경지킴이	전문청소, 폐자원, 주거개선	19명(청소 15명)	277백만원
농수산지킴이	육묘장, 농가지원, 추가사업	25명. 추가 25명 계획	280백만원 (노동부지원 279.6백만원)

자료: 오내원 외, 「농촌지역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기업 육성방안 연구(1/2 차연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0

- 그간 사업이 꾸준히 확대되어 왔지만, 자본시장의 부재와 정책의 변경, 제도적 제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사회적기업은 민간의 투자와 지원을 받기 어려워 정부의 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한계점이 있음.
- 영농조합법인은 노동부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사단법인으로 등록해야했음. 또한 육묘장에서도 면세유를 사용할 수 없는 등 각종 농림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됨. 정부의 인건비 지원이 갑자기 줄어들어 2009년에는 191명이던 종사자를 2010년에 88명으로 줄일 수밖에 없었음.

- 돌봄사업도 사회적기업과 사회복지법인으로 나누어 운영함. 사회복지법인은 가정봉사원 파견, 주간보호사업, 장기요양, 무료급식, 식사배달 등 재가 노인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반면, 사회적기업은 가사·간병사업을 실시함. 이는 인건비 지원을 받는 사회적기업이 장기요양 바우처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와 관련이 있음.
- 2010년 재정운용계획을 보면 총수입 15억 6,700만 원 중 영업수입은 11억 3,700만 원(전체 수입의 73%)임. 그 중 사회서비스는 50%, 환경사업과 농촌지킴이 사업이 각각 25%를 차지함.
 - 정부지원금은 2억 8,000만원(총 수입 중 17%)이며, 한전수력원자력이 1억 5,000만원(10%)을 지원함.
 - 2010년 현재 총 고용인원은 88명인데 이 중 취약계층이 52명임.

1.6.3. 시사점

- 사례를 통해 살펴본 사회적기업은 1차 산업인 농업 생산을 근간으로 농촌지역에서 공공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출발점으로 삼았음. 그러나 점차 사업이 2차·3차산업적 성격을 지닌 사업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음.
- 서비스 제공자로서 사례 기업은 농촌의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소득원 제공, 돌봄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공공 서비스를 제공함. 또한 농산물 생산을 위해 기술지도, 자금 지원 등의 생산자 서비스와 비료, 생산자재 등 후방관련 서비스를 제함. 유통업체와의 제휴 또는 유통관련 자회사를 운영하여 전방 관련 서비스도 제공함.
- 새벽영농조합의 지역순환농업은 거주자가 2,000명 규모의 주택단지에서 수거한 남은 음식물을 자원화하여 양돈을 사육하고, 발생하는 축분을 퇴비화

하여 유기농산물 생산에 활용함. 또한 유기농업으로 생산한 농산물 및 축산물은 식자재 유통과 직영 판매장, 식당과 연결하여 공급하는 체계임.

- 투자액은 3억 원, 연간 매출액은 4억 7,700만 원이며, 고용인원은 30명임. 고용효과는 높으나 투자액에 비해 매출액이 크게 높은 편이 아니므로 수익창출을 위한 신규 사업 발굴이 요구됨.

- 순환영농의 기술적인 부분은 8년 간의 현장 경험으로 어느 정도 확립되어 있으나 사업의 경제성 개선의 여지는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보임. 사업모델이 확산되기 위해서는 각 사업 단위마다 사회적 목적에 대한 이해와 기술적 능력을 가진 리더의 양성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청람은 사회복지법인에서 시작하여 환경, 농업생산과 유통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의 전형적인 사례임.
 - 청람의 실질적인 책임자인 사무국장의 인적 역량은 뛰어난 것으로 평가됨. 2005~2006년간 숭실대에서 열린 아카데미 교육에 참여하였고, 2008년도에는 전남대학교 경영대에 예비아카데미 과정을 개설하는데 관여하고, 한국사회적기업협의회 결성을 주도함. 또한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다양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였고, 인적교류 및 관련 기업과의 네트워크 활동도 매우 활발히 수행함.
- 청람은 리더의 지도력과 기획력, 추진력은 높은 수준이라고 판단되며 많은 협조자를 확보하고 있음. 단, 지역경제사회 순환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다른 사회적 경제의 움직임이나 지자체와의 협력관계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 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와는 2010년 9월 14일에 '1사 1사회적기업 결연' 협약을 맺어 금융, 판로, 자원봉사 등의 지원을 통해 사회적기업을 육성하여 지역사회 공헌모델 구축에 협력하기로 합의함.
- 한편, 청람은 농업 생산지원과 유통으로 활동영역을 넓히고 있음. 농업생산

과 관련해서는 농업기술센터의 지원을 받고 유경험자를 영입하여 해결하고 있으나, 전체 사업의 기획과 판로확보, 상품개발 등에 대해서 전문성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2009년 하반기에 시작한 육묘장 사업의 경우에도 낮은 시설가동률, 난방비용 증대 등의 원인으로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음. 농업 분야의 사업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보다 면밀한 사업영역 판단과 기획, 농협 등의 외부 투자 유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사회적기업 중에 농업 생산과 유통 등의 영역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에 대해 영농조합법인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1.7. 농림수산분야의 규제개혁 사례¹²⁾

- 규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 또는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으로 정의됨(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1항).
- 또한 동법 제1조에 따르면, 규제개혁의 목적은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의 지속적인 향상을 도모하는 데 있음.

12) 이 부분은 「이명박 정부의 규제개혁 이야기(정책자료집)」, 농림수산식품부의 「규제개혁 추진과제」, 규제개혁 관련 정부 보도자료 등을 활용하여 작성함.

- 그간 농림수산물식품 분야도 범정부 차원에서 공정경쟁을 제한하거나, 농어업인·기업인·소비자에게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함.
 - 농지 소유 및 이용규제 대폭 완화, 농축산물 가공을 활성화하고, 유통구조 개선 등 진입장벽, 해소, 식품표시·인증, 식품제조 위생기준 합리화, 자재산업 진입장벽 해소, 농촌지역개발관련 제도개선 등
- 최근에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농업·농촌, 수산·어촌, 식품, 산림의 4개 분야 100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식품산업 규제합리화 과제 16건을 발굴·확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등 산업으로서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 이 부분에서는 농림수산물분야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요 개선내용을 살펴봄. 농림수산물분야 규제개혁을 통한 제도 개선의 목적은 농림수산업을 단순히 생산만 하는 1차 산업이 아니라 가공, 유통까지 염두에 둔 복합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것임. 따라서 이러한 제도 개선 사례는 본 연구에서 서비스산업 발전전략을 수립하는 데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판단됨.

1.7.1. 농지이용 규제완화

가. 농지의 효율적 이용 및 전용절차 완화

□ 개선 전

- 농업진흥지역을 개발용도로 편입하여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새로운 농지를 농업진흥지역으로 대체 지정해야함.
- 농업진흥지역 내에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은 3,000㎡까지 설치가 허용됨.
- 개인사업자가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할 때에는 시·구·읍·면의 농지관리위

원회 확인을 거친 후에 시·군·구로부터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함.

□ 제도 개선 및 추진 성과

- 농업진흥지역 개발 시 대체농가를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를 전면 폐지함.
 - 추진 성과: ①산업단지를 조성하거나 택지 개발 시 입지적 제약에 따른 어려움이 해소되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농지이용의 효율성 제고 ② 새로운 농업진흥지역 지정에 따른 농업인의 불편 해소
- 농업진흥지역 내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의 설치면적은 1만㎡까지 확대
 - 추진 성과: 농업진흥지역 편입에 따른 입지적 제약 문제 해소
 - ※ 경남 통영 일반산업단지의 경우, 산업단지 부지에 경지정리된 농업진흥지역이 28만㎡가 편입되었으나, 농업진흥지역 대체 지정제도 폐지로 농업진흥지역 28만㎡를 추가 지정하지 않게 됨으로써 산업단지 조성을 원활히 추진한 바 있음.
- 농지관리위원회도 폐지하여 농지전용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함.
 - 추진 성과: ①고부가가치 농수산물 가공업체를 농어촌지역에 적극 유지하는 등 농어촌의 다양한 소득원이 창출되는 기반 마련. ②제조업체는 충분한 부지확보가 가능하여 산업규모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게 됨.
 - ※ 농지전용허가 처리기간이 5일 단축되었고, 행정절차도 간소화되어 농지전용에 따른 불편한 점이 크게 개선

나. 농지소유 규제완화

□ 개선 전

- 「헌법」의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농지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농

업경영에 이용할 목적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또한 학교·공공단체 등의 시험지·실습지용 소유 농지, 주말체험영농 농지, 상속받은 농지 등에 예외적으로 소유를 허용

-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 소유한도(1ha)를 초과하여 농지은행에 임대할 수 있는 농지 규모는 2ha로 제한(1ha 본인소유+2ha 농지은행 위탁)됨.
- 농업회사법인이 농지를 소유하려면 대표자가 농업인이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2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이어야 함.

□ 제도 개선 및 추진 성과

- 비농업인 소유의 상속농지 농지은행 임대위탁 한도 폐지
 - 추진 성과: 농지은행 임대를 통한 영농규모화와 농지의 소규모 분할 방지 등 농지의 효율적 이용 효과 극대화
-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소유 요건 중 대표자의 농업인 조건을 폐지하고 농업회사법인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농업인 비율을 3분의 1로 완화
 - 추진 성과: 외부의 유능한 전문경영인을 농업회사법인의 대표자와 업무집행임원으로 영입하여 농업회사법인의 농업경영이나 농산물 유통·가공 분야의 경쟁력 강화

1.7.2. 산업단지 규제개선

가. 시·군별 농공단지 개발 가능면적 확대

□ 개선 전

-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 지침」에서는 시·군·구별 농공단지 지정 가능면적을 최대 166만㎡로 제한

- 상위 법령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조의2에 규정된 시·군·구별 농공단지 최대 지정 가능면적 200만㎡보다 제한적

□ 제도 개선 및 추진 성과

- 시·군·구별 농공단지 최대 지정 가능면적 200만㎡까지 지정이 가능하도록 통합지침을 개정
 - 추진 성과: 농어촌지역의 공장용지 수요증가에 탄력적 대응이 가능
 - ※ 「농공단지 통합지침」 개정('09.3.17)에 따라 '09년 1개단지(강원도 횡성군 우천제3농공단지), '10년 2개단지(경남 밀양 대미, 미전 농공단지)등 총 3개 단지 추가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 완료 등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 및 향토기업 육성 등에 기여

나. 매립지 등의 관리·처분기준 개선

□ 개선 전

- 매립지 등 간척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임차대상자가 매립지를 임대할 수 있는 적정기간을 5년 이내로 설정 운영하면서, 사업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대 기간 연장

□ 제도 개선 및 추진 성과

- 임대기간이 짧아 대규모 농어업회사 설립 등 간척지 장기임대에 문제점이 있어 임대기간을 30년 이상 가능하도록 임대관련 규정 개정
 - 추진 성과: ①자본·기술·경영이 결합된 대규모 농어업회사법인 설립이 가능해지는 등 농생명·녹색 등 미래 농림수산물산업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농어업경영체 육성을 추진할 수 있게 됨. 이로 인해 농식품산업의 수익 및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짐. ②농식품산업이 신성장 동력(BT·IT·NT 등 산업·기술간 융·복합화 및 생명·식품·건강·녹색

등)으로써 간척지에 대규모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제도 개선 후 대규모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간척지 임대사업자 지정:
영산강지구 4개소[한빛들(파프리카, 190ha), 장수채(땅콩나물 등, 140ha), 삼호용양(한우, 180ha), 매봉합작회사(양파 등, 100ha)], 새만금지구 3개소[농산(시설원예, 250ha), 새만금팜(시설원예, 축산 등, 333ha), 초록마을(축산, 가공식품 등, 117ha)]

1.7.3. 농산어촌 현장애로 및 규제개선

가. 영농여건불리농지의 소유·거래 제한 폐지

□ 개선 전

-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 경작이 어려운 농지라도 직접 경작할 경우에만 취득이 가능하고, 농지전용은 허가사항
 - ※ 읍·면 중 평균 경사율 15% 이상이고 농지의 집단화 규모가 2ha 미만인 곳

□ 제도 개선 및 추진 성과

- 경작이 어려운 농지(영농여건불리지역)의 경우 소유제한을 폐지하고, 농지전용절차도 허가에서 신고로 간소화
 - ※ 전업농 등에게 임대케 하여 특용작물 등의 재배지로 활용 가능, 소유제한으로 거래가 되지 않는 열악한 농지의 거래 활성화(전체농지 174만ha 중 8%인 15만ha로 추정)
- 추진 성과: ①그간 매매가 어려웠던 농어촌지역의 농지 거래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어 농어촌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②영농여건이 불편해 경작하지 않고 방치되던 농지를 임대하여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됨.
 - ※ '10년에 전체 농지(1,737천 ha)의 6.4%에 해당되는 111천 ha의 영농

여건불리농지가 지정되었고, 이를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표시하여 일반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함.

나.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견본거래 등 제약기준 완화

□ 개선 전

- 본거래는 도입('09.6) 이후 도매시장 개설구역안에서 도매시장법인이 일정 기준 이상의 보관·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농산물을 직접 도매시장 내로 반입하지 않고 견본 농수산물을 반입하여 거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견본거래 농산물의 보관위치 및 시설조건 등이 현실에 맞지 않아 활성화에 장애가 됨.

□ 제도 개선 및 추진 성과

- 보관·저장시설의 위치제한을 폐지(도매시장 개설자의 개설구역내 규정 폐지) 및 보관·저장시설(저온저장고) 면적기준 완화(330㎡→165㎡), 도매시장 사용료 인하(거래액의 0.5%→0.3%)
 - 추진성과: 교통 혼잡 완화, 물류비용 절감, 농수산물 거래의 효율화 추구
 - ※ 견본거래 활성화로 교통혼잡 완화 및 유통·물류비용 등 연간 140억 원 절감 예상(연간 5% 견본거래시)

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확대

□ 개선 전

-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는 원산지표시를 모든 음식점에서 실시하나, 쌀·김치류는 100㎡ 이상 음식점만 하고 있고, 주류(술)는 원산지표시 대상에서 제외

□ 제도 개선 및 추진 성과

- 100㎡ 이하 음식점에도 쌀·김치류 등의 원산지표시를 확대하고, 주류에 대

한 원산지 표시도 실시

- 개선효과: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시행으로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 충족 및 경제적 효과가 창출

※ 음식점 원산지 실시 전후 기간대비시(시행이전('07.1-'08.6) vs 시행 이후('08.7-'09.12)) 매출액(물량×가격)을 비교하면 쇠고기의 경우 9,153억원 매출 증가

라. 농어업재난복구비용 산정기준 단가 개선

□ 개선 전

- 태풍·집중호우 등의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재해시 감귤 등 복구비가 현실대비 낮고, 누락 작물의 추가 필요

※ 감귤 보상 기준단가 : 1ha당 2,940천원(사과 10,062천원의 29.2%)

□ 제도 개선 및 추진 성과

- 감귤의 복구비 기준단가를 인상하는 한편, 키위(참다래)를 재해복구 지원 품목으로 추가하도록 「농어업재난복구비용 산정기준단가」(고시)를 개정
 - 개선효과: 농업재해에 대한 현실적인 피해복구비 지원으로 농업인의 신속한 영농 재개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피해에 따른 피해농업인의 부담 경감을 해소하도록 함.

※ 감귤 1ha당 2,940천원→4,410천원(50% 인상시)

→ 감귤재배 농어민 지원효과 : 3,675백만원, 키위재배 농어민 지원 효과 : 490백만원

1.7.4. 농축수산물 생산·가공·유통 등 영업환경규제 개선

가. 농어촌체험 휴양마을 지정마을에 대한 관련법 적용 배제

□ 개선 전

- 농어촌 마을에서 거주하는 주민이 숙박업, 음식점, 승마장 등을 운영하여 도 농교류와 농어촌관광을 활성화하고자 할 경우 숙박업은 「공중위생관리법」, 음식점은 「식품위생법」, 승마장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 시설기준을 각각 갖추고 시장·군수 등에게 개별적으로 사업을 신청 한 후에 추진할 수 있었음.

□ 제도 개선

- 숙박업: 연면적 5천㎡이하인 폐교를 연면적 1천㎡ 이하의 숙박서비스시설로 운영하는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연면적이 2천㎡ 이하인 마을회관, 체험관, 경로당, 건강관리실 등의 마을공동시설 중 연면적 500㎡ 이하를 숙박서비스시설로 운영하는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 실외승마장: 3천㎡ 이하 실내 승마장은 1천 500㎡ 이하인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 음식점: 체험·휴양프로그램에 부수 음식을 제공하거나 지역 농림수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즉석식품을 제조·판매·가공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36조에도 불구하고 냉장고, 조리·세척시설, 환기시설, 급수시설, 화장시설만 갖추어도 영업 할 수 있도록 시설 기준 완화

□ 추진 성과

- 이 같은 규제 개선 및 적극적인 홍보에 힘입어 그동안 농어촌체험마을이 많

이 늘어나고 방문객도 늘어나면서 매출액이 증가하는 등 제도개선 취지에 부합되게 농촌주민의 농가소득이 증대함.

나. 된장, 고추장 등 장류의 자가품질검사 주기 완화

□ 개선 전

- 된장, 고추장 등은 월1회 품질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메주는 같은 발효 식품이지만 제외

□ 제도 개선 및 추진 성과

- 검사주기를 ‘1월마다 1회 이상’에서 ‘6월마다 1회 이상’으로 개선
 - 추진 성과: 검사횟수가 줄어들면서 잦은 검사 일정에 따른 장류 생산업체의 업무의 부담을 덜어주고, 검사비용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둠.
 - ※ 검사비용절감액 : 76,800원×10회(12회-2회)×434업체=333백만원(연간)

2. 해외 농림수산 서비스산업 발전 사례

2.1. 뉴질랜드의 농업교육¹³⁾

2.1.1. 농업기술보급

- 뉴질랜드의 농업기술보급은 농림부의 농업기술보급 서비스국(Farm Advisory Service Division of MAF)을 통해 무료로 농업인에게 제공되었으나, 1987년

13) 이 부분은 김병률 외, 「뉴질랜드의 농업과 농정개혁」, 2009.의 내용을 인용함.

부터 단계적으로 사용자지불서비스(fee-for-service)로 전환되었고, 1992년 완전히 유료화됨.

- 1994년 농림부 농업기술보급 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중단됨. 기존의 지도요원들은 뉴질랜드의 뉴질랜드 최대 농업회사 Wrightson Ltd가 설립한 민간컨설팅회사(Agriculture New Zealand)로 이직할 것을 종용받았으며, 1995년에 이 회사가 농업기술보급 서비스를 완전히 인수함. 이 회사는 Pyne Gould Guinness Limited라는 회사와 합병하여 현재 PGG Wrightson이라는 회사명으로 농업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현재 뉴질랜드에는 국가 재정이 지원되는 농업기술보급서비스는 없고 유료화된 컨설팅 서비스만 있음.
- PGG Wrightson은 뉴질랜드 최대의 농업 회사로 2,700여 명에 이르는 자체 전문인력과 다양한 분야와의 협력을 통해 뉴질랜드 농업인뿐만 아니라 외국의 농업 관련 종사자들에게 축산, 양모, 종자, 농자재, 재정, 부동산, 보험, 교육, 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
 - 또한 농업기술보급과 관련해 토론 조직, 워크샵, 현장지속 프로젝트, 기술이전 조직, 현장 학습 등의 활동과 더불어 사업계획, 목장관리, 가축생산, 작물관리, 재정관리, 벤치마킹서비스, 인력관리, 자산관리, 부동산관리, 위기관리, 상속계획 등의 분야에 농업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함.
- 이밖에도 AG Challenge Ltd, Agribusiness Training Ltd, National Trade Academy Ltd, Rural Training Solutions Ltd, Tectra Limited: Wool Industry Training, Land Based Training Ltd 등의 민간 농업컨설팅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함.

2.1.2. 농업교육 정책 방향 및 지원기관

- 뉴질랜드의 농업교육 정책 방향은 농산업 단체, 정부, 농업인, 교육·훈련자들이 농업 인력육성 문제를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 만든 **Human Capability in Agriculture & Horticulture(HC in AgHort)**라는 연합기구의 전략 목적에 잘 드러나 있음. HC in AgHort의 교육 및 인력 정책의 전략적 목적은 “모든 농업·원예업이 성공에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힘.
 - 이를 위해, ① 농업·원예업에 일할 충분한 수의 인력 확보, ② 변화에 맞서 농업·원예업 인력들이 산업적·개인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역량 육성, 인적자원의 활용을 통해 경제적 활력, 사회적 이익, 그리고 환경적 지속가능성 확보 등을 성과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음.
- HC in AgHort는 2002년 농업·원예 분야가 직면한 인적자원 문제(공급, 개발, 유지)의 심각성을 공감한 산업계, 농업인, 교육·연구자들이 연합하여 결성한 농업 인력 육성관련 연합기구임.
 - 참여 기관: 농업부, 노동부, 사회개발부, 농민단체(Meat & Wool New Zealand, the New Zealand Fruitgrower Federation, Deer Industry New Zealand), 산업체(Dairy Insight, Dixel), 교육·훈련관련 기구(The Agriculture ITO, The Tertiary Massey University), 국영연구소(AgResearch) 등
 - 또한 농업부의 지속가능농업기금(SFF:sustainable farming fund)과 정책 개발조직(MAF Policy) 추진에 필요한 자금지원 및 전문인력 지원, 참여기관의 각종 사업추진 운영에 필요한 재정 및 인력 지원 등도 담당함.

2.1.3. 농업교육체계

- 농업인에 대한 전문 농업교육은 농업전문학교, 폴리텍, 농업계 종합대학, 민

간컨설팅회사 등을 통해 제공됨. 농업전문학교, 폴리텍, Agriculture New Zealand와 같은 농업컨설팅회사는 일반자격 또는 전문대학 수준의 농업교육을 제공함.

- 이들 교육기관은 정규코스 이외 농장고용 전에 해당 분야의 일을 체험할 수 있는 코스(pre-employment course), 농장에서 일하면서 이수할 수 있는 코스(on-job training) 뿐만 아니라 개별 국가자격 취득을 위해 필요한 교과(Unit)를 이수하는 단기 코스도 제공함. 뿐만 아니라, 각 교육기관별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차이가 있음.
- Massey University와 Lincoln University 등의 농업계 종합대학은 연구 및 산업 인력 양성을 위한 농업학사 학위(Agriculture Degree) 코스 이외에도 농업인들을 위한 전문학사학위(Agricultural Diploma)과정을 운영 중임.

2.1.4. 사례: 뉴질랜드 타라타히 농업학교

- 타라타히 농업학교는 1919년 개교 이래 예비 농업인과 재교육을 원하는 농업인들을 위해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정규과정 학생은 약 60여 명이며, 학생들은 대부분 16~19세의 청소년임. 별도의 연령 제한은 없으나, 중학교 과정을 마친 16세 이상 학생에게만 입학자격이 주어짐.
- 교육과정은 기간에 따라 27주(레벨4),34주(스트래트퍼드 자격증과정),40주(타라타히 자격증과정)으로 나뉘며, 주요 프로그램은 이론부문, 기술부문, 농장일부문으로 구분됨. 학교에서 실시되는 교육과정은 빠르게 변화하는 농업기술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유연하게 설계됨.
 - 이론부문: 가축건강, 컴퓨터, 농장경영, 농장관리, 재무기술, 축산학 등
 - 기술부문: 농화학, 송아지기르기, 톱질, 작물재배, 펜스세우기, 트랙터운전
 - 농장일부문: 가축먹이기, 양치기, 우유짜기

- ‘농장맛보기’ 프로그램에서 4일간 학생들은 입학 전 농업이 적성에 맞는지 시험을 거친 후, 20주의 기본교육을 마치면 34주 또는 40주 과정의 자격증 코스를 이수할 수 있음. 이 과정을 졸업한 학생은 농장에 중간관리자로 취직 가능하며, 이후 심화프로그램인 27주과정의 ‘레벨4’나 4년제 대학의 농업학과에 지원할 수 있음. 최근에는 외국의 농업이민자를 위한 국제교육 과정도 개설함.
- 학교 운영을 총괄하는 최고 경영자가 따로 있지만, 관리는 정부에서 담당하며, 실제로 1인당 연간 1만 달러의 학비 중 6,000달러를 정부에서 보조함.

2.1.5. 시사점

- 농작업에 필요한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각하지만, 한편으로 영농조합법인 등 농촌지역의 소규모 농관련기업들은 생산성을 갖춘 숙련 노동인력 부족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농업 분야의 경쟁력을 보고 신규 진출하고자 하는 예비농업인들에 대한 교육을 체계화함으로써, 고용창출 효과를 가져오는 동시에, 농업 현장에서 직면하고 있는 노동력 부족 현상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임.
- 농업인 교육 강화를 위하여 농식품부는 2008년 「신농업교육체계」 및 2011년 1월 「농업교육 3개년 기본계획」 등을 수립·실시해왔음. 농어업, 식품산업 분야 경쟁력 제고, 농어촌 활력창출 지원 인력 확보, 농어업·농어촌에 대한 대국민 가치 제고를 목표로 2011년 9월 「농업교육 체계개편 계획」을 수립하여, 전문성 있는 교육 추진과 성과 창출을 바탕으로 교육생에게 도움이 되는 실용적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임.
- 그러나 아직까지 농림수산분야를 아우르는 교육추진체계가 미흡하고, 시행기관별로 중복과정, 편중교육 등 운영의 비효율성이 발생하며, 성과로 이어

지는 실효성 있는 교육체계가 부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선진 사례를 참조하여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함.

2.2. 미국의 로컬푸드 사례

2.2.1. Know Your Farmer, Know Your Food 캠페인

- USDA의 “여러분 지역의 농업인과 농산물을 알자(Know Your Farmer, Know Your Food)” 는 식품 생산자와 소비자간 연결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2009년 8월부터 시작된 캠페인임.
 - 2008년 개정된 농업법에 의거하여, 향후 농촌개발정책 영역에서의 로컬푸드 활성화 정책방안을 제시함.
- 지역의 농업인 지원, 지역 공동체 강화,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건강한 식생활 촉진, 자연자원 보호, 학교급식에 지역 내에서 생산된 식품 공급 등 농업 관련 주요 이슈들을 다루고 있음.
- 오바마 대통령이 강력한 정책 의지를 가지고 추진 중에 있고, 영부인인 미셸 오바마가 전면에 나서 캠페인을 주도하고 있음. 이를 위해 미 농무부는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기보다는 현행 정책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전반적으로 농정의 방향성을 바꾸어나가고 있음.

2.2.2. 파머스마켓 진흥 프로그램(Farmers Market Promotion Program)

- 파머스마켓 진흥 프로그램(Farmers Market Promotion Program) 대상을 선정하여, 영부인 미셸 오바마 참석하에 백악관에서 개최된 FRESHFARM Market의 오프닝 행사에서 발표함.

- 미국 전역의 파머스마켓과 직거래를 장려하기 위해 2009년 기준 37개 주를 대상으로 총 450만 달러를 투입하였음.

- Tom Vilsack 장관은 파머스마켓이 소비자로 하여금 건강하고 영양가 있는 식품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준다는 점에서 지역단위의 식품시스템에 중요한 기능을 하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파머스마켓이 확대되고,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자신의 지역에서 생산된 식품을 소비하게 되며, 지역 농민은 소득 증대 효과를 얻게 될 것'이라고 발표함.
- 또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식품시스템의 장려와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어린이 기아문제 해소, 신선식품에 대한 저소득층 소비자의 접근성 증대, 지역사회의 건강과 영양 상태 개선을 기대한다고 밝혔으며, 특히 신선과일과 채소류에 대한 접근성 증가를 통해 저소득층 소비자가 특히 이득을 보게 될 것이라고 강조함.

2.2.3. 농축산업 창업 개발 프로그램(Beginning Farmer and Rancher Development Program)

- 농축산업 창업 개발 프로그램(Beginning Farmer and Rancher Development Program)은 지정된 29개 기관을 통해 총 1,700만 달러의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는 신규 농업 인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미국 농업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을 가짐.
- 영농경력 10년 이내인 농축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USDA 산하의 국립식품농업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Food and Agriculture)가 시행하는 농축산업 창업개발 프로그램(Beginning Farmer and Rancher Development Program)을 통해 예산이 지원됨.

- 신규 농업인들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며 수익성 있는 영농을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이번 예산 지원을 통해 제공될 교육 및 훈련은 차세대 영농인들의 성공을 보장하고, 지역 주민, 나아가 전세계의 식량을 공급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2.4. 경기부양법안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 식품 시스템 지원 계획 (Recovery Act Efforts Aimed at Creating Jobs, Supporting Local and Regional Food Systems)

- 경기부양법안에 따라 지역 식품 시스템(농산물 생산-가공-유통 등 식품과 연관된 일련의 체계) 지지를 통한 농촌경제 강화를 위해 총 9개 주 11개 사업 분야에 각각 100만~900만 달러의 자금을 지원함.
 - 예를 들어, Nebraska주 Garden Fresh Vegetables의 온실 확장 사업이나 Oregon주 Torii Mor Winery의 경영부채 경감 및 자금 지원을 통한 일자리 보전 등의 사업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음.
- 이러한 농민과 식품 소비자 간의 연계 강화를 통해, 생산자에게는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고, 소비자에게는 건강하고 영양가 있는 식품에의 접근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예산은 USDA 농촌개발국의 B&I(Business & Industry) Loan Program에서 지원됨. 이는 경기부양법안에서 지원하는 1억 5천7백만 달러로 조성되었으며, 농촌경제활성화 및 지역커뮤니티 지지를 위해 지원되는 자금임.
 - B&I Loan Program은 개인사업자, 협동조합, 비영리법인, 그 외 공익적 단체 등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재의 경기 침체로 인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건불리지역을 위해 일자리 창출 등의 목적으로 조성된 지원 자금임.

2.2.5. 시사점

- 지역의 식품시스템(생산-가공-유통)에 활력을 불어넣어 고용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농촌지역 경제도 활성화하는 전략을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우리 농업 및 농촌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특화사업을 강화하는 시스템적 접근, 생산에서 가공, 유통을 아우르는 접근이 필요함.

- 우리나라도 소비자 부담 경감 및 생산자 수취가격 제고를 위해 소비지에서의 직거래 확대를 위한 정책을 수행 중이나, 비효율성 등의 문제로 활성화 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함.

제 5 장

농림수산 서비스산업 발전방안

1. 농림수산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방향

- 농림수산 서비스산업은 농산물의 생산(1차), 식품제조(2차), 농자재 생산(2차) 및 농어촌 지역주민의 생활과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모든 서비스를 포함하며, 국가적으로 지역적으로 일자리 창출과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매우 큰 산업이며 성장잠재력이 큰 산업임.
 - 따라서 농림수산 서비스산업을 농림수산업의 외연확대 차원에서 적극 육성·지원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생산 및 전후방관련 중심정책을 유지해오던 농림수산 분야가 향후 안정적 성장을 견지하기 위해서도 농림수산 서비스산업의 발전은 필수요건으로 부각되고 있음.
 - 따라서 농림수산 서비스산업의 발전정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농림수산 서비스산업이 전체 농림수산분야 성장에 기여한다는 인식이 중요하고, 정부 부처간의 원활한 협의를 통해 정책추진의 일관성과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함.
- 이와 같은 맥락에서 농림수산 서비스산업에 포괄되어 있는 전후방, 생산자,

지역관련, 식품관련 서비스산업 등 중분류의 산업 또는 수많은 개별 서비스 부문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육성, 지원을 위해 (가칭) ‘농림수산 서비스산업 육성지원법’과 같은 법적 기초를 조성하여 체계적인 육성이 필요함.

- 현재 정부의 현행 정책은 농림수산 서비스산업을 총괄하는 정책 체계의 정립이 없이 업종별 접근을 취합하는 수준에서 정책이 수립 및 집행되고 있음.

2. 농림수산 서비스산업의 중장기 발전방안

2.1.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발전방향 및 지원체계 차별화

- 지역 기후서비스, 농업고용촉진서비스 등 공공적 기능이 있어 민간이 담당하기 어렵고 시설(H/W), 정보시스템(S/W) 등 고비용이 수반되는 공공서비스의 경우 중앙정부 차원에서 특별한 예산지원을 통해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조속히 제공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농림수산 서비스산업의 중분류 및 세분류 부문 중에서 고용효과,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큰 서비스부문에 대해서는 별도의 육성방안을 마련하여 집중 육성이 필요함.
- 이와 달리, 기존에는 낮은 수익성이나 인력 부족, 인식 부족 등의 원인으로 민간부문에서 진출하기 어려웠던 분야에서 전국적·지역적으로 성공을 거두고 있는 농림수산 서비스산업 사례들을 적극 발굴·수집한 후, 모델화하여 전국적인 확산 프로그램을 구축함으로써, 농림수산 서비스산업의 지속적 확산 속도를 높일 필요성이 있음.

- 같은 맥락에서 농림수산 서비스산업 전반에 걸쳐 영농법인, 중소농기업, 농업벤처기업 등 의 창업을 촉진하고 금융자금이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하는 정책방안의 강구가 매우 중요함.
 - 창업과 성장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업종 군별 또는 유형별로 범 정부적 정책협조 체계의 구축이 중요함.
- 지역 고용효과, 농외소득 및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큰 클러스터 사업(한방클러스터 등), 로컬푸드 등 사회적 기업, 산지유통센터 등 농산물 상품화시설, 농어촌 관광산업 등에 대해 체계적인 육성방안 마련이 필요함.

2.2. 농림수산 서비스산업의 R&D 투자 확대

- 우리나라의 전체 농림수산분야에서 농림수산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점차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농림수산 관련 서비스산업 자체가 낮은 생산성 및 영세성으로 발전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농림수산 서비스산업과 관련된 R&D 투자확대 추진이 필요함.
 - 연구개발투자 부진이 국내 농림수산 서비스산업의 저생산성의 주요인이라는 점에서 생산성 제고 및 이를 통한 경제전반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투자 확대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을 의미함.
 - 일반 서비스 부문과 같이 전체 농림수산 분야의 연구개발비 중 농림수산 서비스산업 부문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연구개발 비중을 보이고 있음.
- 따라서 농림수산 서비스산업의 혁신과 성장동력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률적인 하나의 사업보다는 농림수산관련 서비스산업별 특성과 패턴을 반영한 복수의 유형을 가진 농림수산 서비스 R&D 사업을 육성해야함.

2.3. 농림수산 서비스 관련 통계 개선

- 농림수산 서비스산업 뿐만 아니라, 서비스산업 관련 연구 전반에 걸쳐 통계 자료의 불충분이 지적되고 있음. 현재 서비스산업에 관해 공공기관에서 발표되는 통계자료로는 통계청의 「사업체기초통계」와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가 있음.
 - 그러나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 자료는 세분류 수준의 통계치가 제공되지 않고, 사업체기초통계의 경우에는 자세한 분류에 따른 통계치를 제공하나 표준산업분류체계 상에 농림수산 서비스산업 분야의 업종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마찬가지로 농림수산 서비스산업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농림수산 서비스산업 분야에서 새롭게 생겨난 업종이나 직업군의 경우, 공식통계에서 잡히지 않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현황 파악에 어려움이 있음. 뿐만 아니라, 이러한 업종이나 직업군 종사자들의 경우 적절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실정임.
 - 예를 들어, 농작업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 농촌관광사업을 실시하는 마을의 실무 운영자 등 기존에 없었던 농림수산 서비스 관련 업종 및 직업군에 대해 보다 신뢰성 있는 현황 파악이 선행된 후에, 이를 바탕으로 제도적 지원이나 복리 후생 제공, 교육 체계 수립의 토대가 될 수 있음.

- 따라서, 농림수산 서비스산업 관련 통계편제 확대 및 DB 구축 등 통계 인프라를 확충하는 한편, 관련부처의 지원기능을 통폐합하여 정부 지원체계의 효율화 및 일관성 제고도 도모해야 함.

2.3. 농림수산 서비스산업 관련 규제 개선

- 농림수산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지원으로 금융, 세제 지원이 유력한 수단이라는 하나, 보다 근본적인 정책은 실질적인 서비스산업의 규제개혁 및 제도개선이라고 할 수 있음.
 - 이는 농림수산 서비스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다양한 규제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업종별 또는 지역적으로 특수한 환경들을 고려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를 강구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이와 같은 규제완화를 통한 공정경쟁 촉진과 서비스산업에 대한 정책적 차별성 철폐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경제구조변화에 대응하여 관련 법 및 제도 개편을 추진함.

3. 농림수산 서비스산업 발전의 유형별 세부 추진과제

- 지역관련 서비스산업 및 식품관련 서비스산업은 다른 농림수산 서비스산업 유형들에 비해 비중이 높음. 또한 부가가치 창출의 증가는 서비스 업종으로 향후 총량적인 부가가치 증진을 위해 이들 서비스산업의 발전 및 활용이 매우 중요함.
 - 특히 지역관련 서비스산업의 경우 주5일 근무제 시행과 2012년부터 전국 초중고교에서 주5일 수업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른 여가문화 확산 추세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농촌관광, 농촌체험학습, 관광숙박시설 운영 등 관련 프로그램 및 육성방안을 마련해야 함.
- 전·후방관련서비스의 경우 비중이 소폭 감소한 반면, 생산자·지역·식품관련 서비스의 비중은 소폭 증가함. 특히 지역관련서비스는 비중은 크지 않으나 종사자 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에 따라 향후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됨.

- 서비스 사업체 수는 감소하는 반면 종사자수는 증가추세를 보임에 따라 농림수산 서비스산업의 규모화가 지속적으로 진전되는 산업구조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서비스산업 구조 변화에 능동적으로 부합하는 제도적 지원도 개선될 필요성이 있음.
- 소득수준의 향상과 기호의 다변화 등으로 농수산물 및 식품에 대한 구매 패턴이 다양화됨에 따라 관련 서비스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부가가치 확대도 모가 요구됨.
- 지역별 농림수산 서비스산업 사업체 및 종사자 수 비중이 수도권 및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농림수산업과 보다 관련이 있는 지방확산을 유도할 수 있는 유인책도 필요함.

부록 1. 사회적기업¹⁴⁾ 현황

□ 사회적기업의 정의

- 사회적기업에 대해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보편적 정의는 존재하지 않음. 나라마다 사회적기업의 개념과 요건은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나, 사회적기업은 일반적으로 “영리적인 기업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창출된 수익은 사회적 목적을 위해 환원하는 기업”으로 정의함.
- 이들 중 한국의 사회적 경제의 흐름을 주도하는 영역은 생산과 소비의 영역으로 평가되고 있으며(김정원, 2009), 지역자활센터와 같은 매개 영역의 조직도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농어촌 지역 등 사회적 경제 주체들의 활동이 미미하여 자치단체의 매개 역할이 중요한 사례도 있음.

□ 정부 인증(예비) 사회적기업 현황

- 노동부의 인증제도를 통해 공고된 이른바 인증 사회적기업은 2010년 제2차 인증 공고를 기준으로 모두 353개 업체임.
 - 지금까지 인증된 사회적기업은 총 364개(총 12차례)이지만, 이 중 11개 업체는 인증이 취소 또는 반납됨.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한 784개 업체를 기준으로 인증된 비율은 46.4%임.
-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속한 인증 사회적기업은 전체의 44%를 차지하며 나머지는 전국 시도에는 고루 분포되어 있음.
- 유형별로는 일자리제공형이 178개 업체로 전체의 50.4%를 차지하며, 사회

14) 오내원 외, 「농촌지역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기업 육성방안 연구(1/2차연도)

서비스제공형은 11.3%, 혼합형은 24.1%, 그리고 지역사회공헌형은 14.1%를 나타냄.

- 사회적기업의 경로를 보면 인증 직전에 사회적일자리에 참여하는 예비 사회적기업이었던 조직이 52.4%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는 자활공동체였던 기업(17.6%), 장애인작업장이었던 기업(12.5%) 순임.

부표 1-1. 사회적 기업의 인증 전 유형

단위: 개소, %

구분	사회적일자리 참여	자활공동체	장애인작업장	협동조합	기타	합계
조직수	185	62	44	11	51	353
비율	52.4	17.6	12.5	3.1	14.4	100.0

자료: 오내원 외, 「농촌지역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기업 육성방안 연구(1/2 차연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0.

- 조직형태는 상법상 회사가 43.1%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는 민법상 법인(23.8%), 비영리민간단체(17.3%), 사회복지법인(11.9%) 순으로 나타남. 반면 생활협동조합은 3.1%, 영농조합법인은 0.8%에 머물고 있음.
- 도시지역에 분포하는 인증 및 예비 사회적기업은 전체의 약 65% 내외를 차지함.
 - 농촌에는 인증 사회적기업이 34.0%, 예비 사회적기업이 35.6%가 분포하며, 군 지역보다는 주로 도농복합시에 위치함. 군 지역에 입지하는 업체의 비중은 인증 사회적기업이 10.5%(37개 업체), 예비 사회적기업은 6.6%(27개 업체)로 나타남.

부표 1-2. 인증 및 예비 사회적 기업의 공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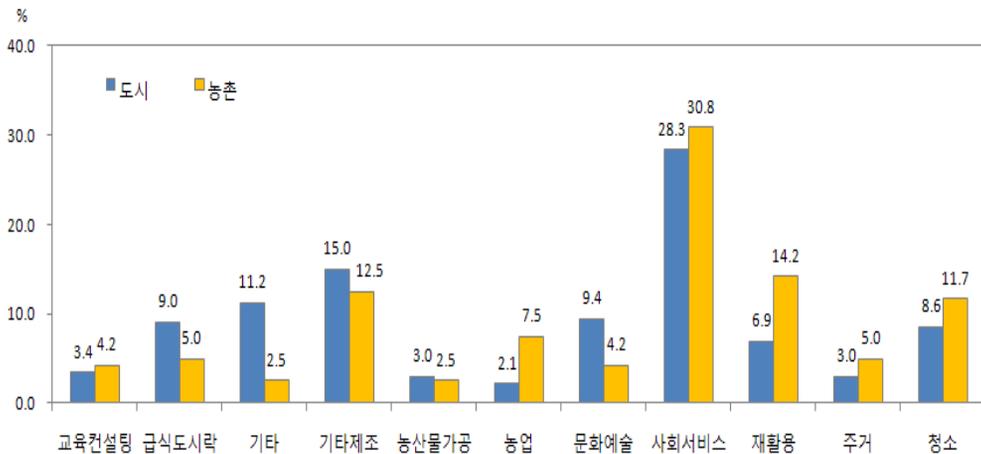
단위: 개소, %

지역구분		인증				예비			
		개소수		비율		개소수		비율	
도시	광역시	233	161	66.0	45.6	266	195	64.4	47.9
	일반시		72				20.4		67
농촌	도농복합시	120	83	34.0	23.5	145	118	35.6	29.0
	군지역		37				10.5		27
총합계		353		100.0		407		100.0	

자료: 오내원 외, 「농촌지역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기업 육성방안 연구(1/2 차연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0.

- 업종별로 살펴보면, 인증 사회적기업의 경우 도시와 농촌 모두 사회서비스 분야(가사·간병·돌봄·보육) 업체가 가장 많음. 농업생산 및 유통 분야는 농촌의 분포비중이 도시보다 높지만, 농산물 가공업은 오히려 도시에서 분포비중이 높음.

부도 1-1. 도시와 농촌의 인증 사회적 기업 업종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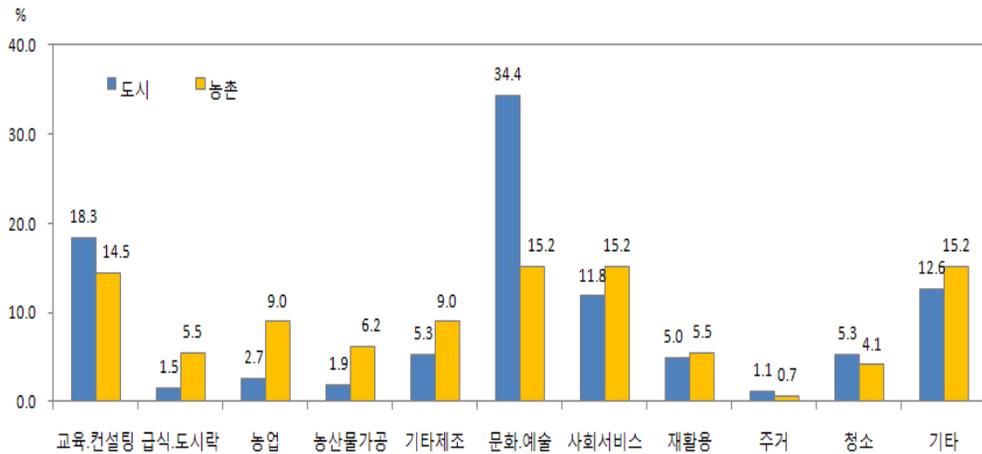


자료: 오내원 외, 「농촌지역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기업 육성방안 연구(1/2 차연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0.

○ 예비 사회적기업은 사회서비스보다 문화·예술 및 교육·컨설팅 업체가 많음. 이 두 분야는 도시뿐만 아니라 농촌에서도 비중이 높으며 향후 사회적기업의 중요한 활동분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됨.

- 더욱이 인증 사회적기업과는 달리 농촌의 예비 사회적기업은 농산물 가공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기업형태를 갖춘 인증 사회적기업 일수록 가공사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부도 1-2. 도시와 농촌의 예비 사회적 기업 업종별 분포



자료: 오내원 외, 「농촌지역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기업 육성방안 연구(1/2 차연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0.

부록 2.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서비스업 포괄범위

제9차 한국표준산업대분류	C. Clark 분류 등
A 농업,임업및어업	1차 산업
B 광업	2차 산업
C 제조업	2차 산업
D 전기,가스및수도	서비스의 특성 요건 부적합
E 폐기물,환경복원	서비스업
F 건설업	서비스의 특성 요건 부적합
G 도매및소매	서비스업
H 운수업	서비스업
I 숙박및음식점업	서비스업
J 출판,영상,정보등	서비스업
K 금융및보험업	서비스업
L 부동산및임대업	서비스업
M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N 사업시설,사업지원	서비스업
O 행정,국방,사회보장	서비스업
P 교육서비스	서비스업
Q 보건및사회복지	서비스업
R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
S 협회,수리,개인	서비스업
T 자가소비생산활동	서비스업
U 국제및외국기관	서비스업

부록 3. 그림 2-1의 서비스산업 세부항목 설명

“G 도매 및 소매업 중분류(50~52)”은 구입한 각종 신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구매자에게 재판매하는 도매 및 소매활동을 말하며 판매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지 않고 구매자와 판매자를 위하여 판매 또는 구매를 대리하는 상품중개 대리 및 경매활동이 포함된다.

“H 숙박 및 음식점업(55)”은 숙박업과 음식점업을 포함한다. 숙박업은 일반대중 또는 투정회원에게 각종 형태의 숙박시설 캠프장 및 캠핑시설등을 단기간으로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음식제공 설비가 결합된 음식을 함께 제공하는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와 철도운송업을 수행하지 않는 별개의 사업체가 침대차만을 운영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음식점업은 구내에서 직접 소비할수 있도록 점객시설을 갖추고 조리된 음식을 제공하는 식당, 음식점, 간이식당, 카페, 다과점 등을 운영하는 활동과 독립적인 식당차를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I 운수업(60~63)”은 각종 운송시설에 의해 여객 및 화물운송업 창고업 및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운송업은 노선 또는 정기운송 여부를 불문하고 철도 도로 파이프라인 해상 및 항공 등으로 여객 및 화물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운송관련 서비스업은 여객 및 화물운송업을 지원·보조하는 화물취급업, 창고업, 여행알선업, 터미널시설 운영업, 화물운송주선업 및 기타운송관련 서비스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J 통신업(64)”은 일반대중이나 다른 사업체를 위하여 국내외에 송달되는 우편물 및 우편 수화물을 수집운반 배달하는우편사업 시설 소포송달업 전신·전화 및 기타 통신시설에 의하여 음성 또는 비음성전달요소를 전기식

또는 전자식방법에 의하여 송달하는 전기통신업이 포함된다.

“K 금융 및 보험업(65~67)”에는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이 포함된다. 금융업은 보험 또는 연금목적 이외의 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재분배 공급 및 중개하는 산업활동으로서 각종 금융기관의 본점, 지점, 영업소, 등의 활동을 말한다. 보험 및 연금업은 장·단기에 발생할 수 있는 생명 또는 사고의 위험을 분산시킬 목적으로 기금을 조성·관리하는 보험업과 노후 또는 퇴직후의 소득보장기금을 조성하여 관리하는 개인 및 단체공제사업 또는 연금사업을 말한다.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은 금융업 또는 보험업 및 연금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제공되는 각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활동을 말한다.

“L 부동산 및 임대업(70~71)”에는 부동산업, 조작자가 없이 각종 기계장비 및 개인 또는 가정 용품을 임대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된다. 부동산업은 자기소유 또는 임차한 건물, 토지 및 기타 부동산(묘지 제외)의 운영 및 임대 구매 판매 등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임대업은 개인 가정 또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작자가 없이 각종 산업용 기계장비 또는 개인 및 가정용 기계장비·용품을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K 사업서비스업(72~75)”은 다른 사업체를 위하여 기술 및 과학적 업무와 일상적 업무를 계약에 의하여 수행함으로써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달성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 연구 및 개발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과 다른 사업체의 일상적 업무를 지원하는 산업활동인사업지원 서비스업 등이 포함된다.

“N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76)”에는 국가 및 지방행정기관이 일반 대중에게 제공하는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업무가 포함된다.

“O 교육서비스업(80)”에는 교육수준에 따른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수준의 정규교육 기관 성인교육등의 기타 교육기관이 포함된다. 초등교육기관은 유아교육기관과 초등학교의 교육과정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을 말한다. 중등교육기관은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을 말한다. 고등교육기관은 전문대학, 대학교 및 대학원의 교육과정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을 말한다. 기타교육기관은 성인 또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된 교육기관으로서 특수학교, 외국인 학교, 직업훈련기관, 사회교육기관, 일반 또는 전문학원 등이 포함된다.

“P 보건및사회복지사업(85~86)”에는 의료업, 수의업과 사회복지사업활동이 포함된다. 의료업은 인간의 건강유지를 위한 각종 질환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 의원 및 기타 의료기관과 의료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포함한다. 수의업은 동물질병의 예방 치료 및 수의학적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사회복지사업은 정부 또는 비정부기관에서 조성한 이전지출기금 또는 자선기금에 의하여 아동, 노령자, 장애인 등과 같이 자립능력에 제약을 받는 특정 범주내의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용복지시설 또는 비수용복지기구를 말한다.

“Q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87~88)”에는 영화 제작, 배급, 상영 및 관련서비스, 방송, 연극, 음악 및 기타 예술활동, 도서관, 자료실, 박물관 및 기타 문화서비스, 뉴스제공, 운동 및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이 포함된다.

“R 기타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90~93)”에는 하수 및 폐기물처리 서비스 회원단체, 세탁 및 개인대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된다. 회원단체는 회원 상호간의 복리증진과 특정목적 실현을 위하여 조직된 각종

회원단체를 말하며 산업, 노동 및 전문가 단체 또는 조합, 연합회 및 지부, 종교, 정치 및 기타 회원단체가 포함된다.

“T 국제 및 외국기관(99)”에는 국제연합 및 전문기구, 아주기구, 구주기구, 경제협력개발기구, 유럽공동체, 국제대사관 및 기타 외국지역단체 등의 공무를 수행하는 국제 및 외국기관이 포함된다.

부록 4. 농림수산물관련 서비스 지역별 사업체 수

단위: 개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강원	37,200	36,292	36,260	36,195	36,061	35,048	38,329	38,559	38,594	38,784
경기	125,186	124,930	129,320	132,334	133,407	132,969	135,534	138,044	139,068	140,393
경남	61,369	58,223	58,648	59,063	58,378	57,141	57,835	58,013	57,993	58,517
경북	57,496	55,043	54,772	54,589	53,632	51,920	53,084	53,345	52,813	52,497
광주	20,566	20,781	21,276	21,056	21,316	20,645	21,067	21,068	21,012	21,220
대구	43,371	42,424	42,519	41,946	41,348	39,659	38,546	38,463	37,677	37,307
대전	22,948	22,937	23,158	22,975	22,636	21,802	21,397	21,532	21,262	21,225
부산	70,631	68,746	68,792	68,414	67,961	65,260	63,644	63,480	61,761	61,785
서울	157,558	153,935	153,251	154,247	153,203	150,996	143,031	143,380	140,991	140,671
울산	16,648	16,819	17,477	17,583	17,522	17,043	16,880	17,017	16,995	17,133
인천	35,287	35,630	35,716	35,731	35,846	34,592	34,847	34,880	34,407	34,812
전남	44,224	42,138	41,813	40,977	39,828	38,074	37,946	37,608	36,909	36,455
전북	36,393	34,268	34,072	33,219	32,669	31,226	30,805	30,757	30,333	30,924
제주	11,757	11,601	11,778	11,731	11,735	11,824	12,801	12,930	12,935	13,354
충남	39,359	37,565	37,530	37,643	37,468	37,361	38,395	39,026	38,997	38,678
충북	29,241	28,407	27,892	27,506	27,182	26,205	26,660	26,904	26,795	26,831
전국	811,412	791,888	796,394	797,335	792,285	773,844	772,258	775,172	768,718	770,770

부록 5. 농림수산물관련 서비스 지역별 종사자 수

단위: 개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강원	85,402	84,532	86,960	86,031	85,635	83,039	88,486	91,139	92,601	94,686
경기	318,948	340,132	361,152	371,512	373,862	391,546	398,061	420,275	427,187	439,748
경남	137,815	133,062	137,531	139,736	137,174	139,819	139,259	144,194	145,571	149,638
경북	126,334	122,583	125,940	124,736	121,442	122,228	121,590	124,196	124,822	126,032
광주	52,632	56,182	58,874	58,019	57,359	57,728	57,731	58,869	57,555	59,207
대구	97,397	101,458	105,612	104,777	100,359	98,511	96,101	98,583	95,684	97,935
대전	55,570	58,374	61,032	59,808	58,325	59,600	58,052	60,127	58,852	61,392
부산	159,718	166,429	172,108	168,820	168,705	164,240	157,622	159,858	159,691	160,509
서울	448,752	466,698	457,736	462,911	458,281	467,696	441,092	459,602	461,725	475,749
울산	37,264	39,132	41,218	40,881	41,455	41,352	40,438	42,485	42,170	43,504
인천	83,994	90,107	92,454	91,865	91,691	91,049	91,736	93,916	93,996	95,949
전남	104,666	99,170	100,083	98,185	93,772	94,140	92,709	93,227	91,283	93,044
전북	84,637	80,785	85,687	82,265	80,760	81,011	77,514	81,201	77,633	81,763
제주	36,449	37,497	39,470	38,925	36,601	36,846	39,386	39,285	39,710	42,016
충남	91,808	87,439	91,926	93,233	91,076	93,589	95,418	99,020	99,331	100,100
충북	67,916	67,616	69,333	67,587	65,767	66,091	66,697	69,100	70,482	71,619
전국	1,993,753	2,035,551	2,091,502	2,093,703	2,066,544	2,093,585	2,068,584	2,135,764	2,138,956	2,193,627

부록 6. 한미일 총산출액 및 부가가치 비교(2005년)

단위: 백만 달러

서비스업 부문	한국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부가가치		총산출액		부가가치		총산출액		부가가치		총산출액		부가가치		총산출액		부가가치		총산출액	
	후방	전방	후방	전방	후방	전방	후방	전방	후방	전방	후방	전방	후방	전방	후방	전방	후방	전방	후방	전방
농림수산업	24,307	41,934	133,338	317,583	62,470	116,702	43,915	98,143	22,136	54,047										
도소매업	1,286	0	2,159	0	25,619	4,819	38,626	7,265	12,780	203	18,280	290	8,601	78	16,598	150	5,899	357	10,000	605
숙박음식점업	0	2,331	0	5,809	563	9,287	1,066	17,571	0	9,122	0	18,719	69	3,117	141	6,369	108	930	208	1,794
운송및창고업	281	0	657	0	5,672	22	11,013	43	3,499	26	5,922	44	1,043	35	2,199	73	211	127	533	320
통신서비스	152	0	307	0	738	17	1,654	38	76	0	126	0	35	7	70	13	95	11	204	23
금융및보험	680	0	1,084	0	5,090	8	8,831	14	3,678	0	5,354	0	2,003	4	4,158	8	1,044	20	2,370	46
부동산	391	0	520	0	33,403	5,396	48,069	7,765	360	7	412	8	97	67	120	83	892	2,006	1,148	2,579
정보통신서비스	97	0	140	0	517	3	1,191	7	415	24	688	40	523	4	1,010	8	0	201	0	261
건설관련서비스	109	0	201	0	199	13	323	22	365	0	575	0	14	11	23	18	11	24	16	36
연구개발	8	15	11	22	1,875	162	3,274	283	80	356	122	542	189	15	462	38	0	3	0	7
기타서비스	0	0	0	0	472	17	700	25	116	0	185	1	1,004	84	1,865	156	2,431	61	3,799	95
공공·국방	2,087	361	3,027	523	27,516	2,522	45,302	4,153	0	33	0	53	1,313	1,444	1,839	2,022	1,332	2,223	1,965	3,277
교육	112	10	139	13	65	181	110	307	10	237	11	275	1,455	971	1,759	1,173	300	265	385	340
보건·의료	2,073	330	3,707	590	118	702	190	1,128	0	3,392	0	5,436	5,149	799	6,820	1,059	12,827	1,855	18,267	2,642
기타	148	21	276	39	3,030	9,885	5,256	17,145	205	1,128	301	1,655	174	258	329	487	771	229	1,249	371
합계	7,423	3,068	12,227	6,997	104,877	33,034	16,604	55,766	21,584	14,528	31,976	27,062	21,670	6,895	37,386	11,658	25,921	8,311	40,145	12,396

부록 7. 한미일 총산출액 및 부가가치 비교(2000년)

단위: 백만 달러

서비스업 부문	한국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부가가치		총산출액		부가가치		총산출액		부가가치		총산출액		부가가치		총산출액		부가가치		총산출액	
	후방	전방	후방	전방	후방	전방	후방	전방	후방	전방	후방	전방	후방	전방	후방	전방	후방	전방	후방	전방
농림수산업	20,730		33,451		98,020		254,288		77,678		142,189		33,730		70,846		21,614		45,264	
도소매업	574	0	929	1	26,202	5,046	39,243	7,557	13,961	9,156	21,399	14,034	5,840	61	10,742	112	4,269	340	7,023	560
숙박및음식접업	0	1,272	0	3,408	583	9,595	1,099	18,091	33	9,116	72	19,773	51	1,915	105	3,900	80	886	171	1,891
운송및창고업	257	0	609	0	5,776	19	11,354	38	3,458	142	6,032	248	626	23	1,395	52	148	103	371	259
통신서비스	89	0	159	0	918	13	1,877	26	221	9	404	17	23	4	46	8	99	10	191	20
금융및보험	853	0	1,278	0	3,301	5	6,192	9	4,486	27	7,025	43	1,402	4	2,724	8	591	13	1,387	31
부동산	187	0	249	0	28,731	3,570	39,183	4,869	1,357	74	1,593	87	72	63	90	79	504	1,448	686	1,971
장비대여서비스	71	0	121	0	676	3	1,281	5	639	48	994	74	378	4	639	7	0	138	0	180
전산관련서비스	5	0	14	0	221	8	348	12	1,128	59	2,183	114	12	12	18	18	6	16	9	24
연구개발	8	8	12	11	1,805	118	2,980	195	104	361	167	581	123	14	278	31	0	2	0	4
기타사업서비스	805	28	1,267	44	417	11	629	17	737	885	1,793	2,151	590	72	1,097	134	1,432	38	2,206	58
공공·국방	0	31	0	45	19,350	2,867	30,550	4,527	27	180	38	253	1,491	2,014	2,097	2,831	990	1,959	1,399	2,769
교육	55	9	67	11	56	143	98	253	228	214	266	250	858	2,737	1,031	3,290	451	288	551	353
보건·의료	290	166	570	327	131	681	213	1,102	5,533	2,697	9,587	4,674	3,141	535	4,223	720	15,164	1,302	22,347	1,918
기타	93	2	206	3	2,965	7,425	5,289	13,246	283	949	455	1,525	103	200	198	381	538	186	876	304
합계	3,287	1,516	5,480	3,850	91,130	29,504	140,336	49,949	32,196	23,917	52,008	43,822	14,712	7,658	24,681	11,572	24,272	6,731	37,218	10,342

부록 8. 산업연관표 부문분류표(한국은행)

통합대분류(28부문)		통합중분류(78부문)		통합소분류(168부문)		기본부문(403부문)	
번호	부문명칭	번호	부문명칭	번호	부문명칭	번호	부문명칭
01	농림수산물	05	농림어업서비스	011	농림어업서비스	029	농림어업서비스
19	도소매	57	도소매	129	도소매	321	도매
		57		129		322	소매
20	음식점 및 숙박	58	음식점 및 숙박	130	음식점	323	일반음식점
20		58		130		324	주점
20		58		130		325	기타음식점
20		58		131	숙박	326	숙박
21	운수 및 보관	59	육상운송	132	철도운송	327	철도여객운송
21		59		132		328	철도화물운송
21		59		133	도로운송	329	도로여객운송
21		59		133		330	도로화물운송
21		59		134	택배	331	택배
21		60	수상 및 항공운송	135	수상운송	332	연안및내륙수상운송
21		60		135		333	외항운송
21		60		136	항공운송	334	항공운송
21		61	운수관련서비스	137	운수보조서비스	335	육상운수보조서비스
21		61		137		336	수상운수보조서비스
21		61		137		337	항공운수보조서비스
21		61		138	하역	338	하역
21		61		139	보관 및 창고	339	보관및창고
21		61		140	기타 운수관련서비스	340	기타운수관련서비스
22	통신 및 방송	62	통신	141	우편 및 전화	341	우편
22		62		141		342	전화
22		62		142	부기통신 및 정보서비스	343	초고속망서비스
22		62		142		344	부가통신
22		62		142		345	정보서비스
22		63	방송	143	방송	346	지상파방송
22		63		143		347	유선 및 위성방송
23	금융 및 보험	64	금융 및 보험	144	금융	348	중앙은행 및 은행예금취급기관
23		64		144		349	비은행예금취급기관
23		64		144		350	기타금융중개기관
23		64		145	보험	351	생명보험
23		64		145		352	비생명보험
23		64		146	금융 및 보험관련서비스	353	금융 및 보험관련서비스
24	부동산 및	65	부동산	147	부동산	354	주거서비스
24	사업서비스	65		147		355	부동산임대 및 공급
24		65		147		356	부동산관련서비스
24		66	연구기관	148	연구기관	357	연구기관(국공립)
24		66		148		358	연구기관(비영리)

24		66		148		359	연구기관(산업)
24		66		149	기업내 연구개발	360	기업내연구개발
24		67	사업관련 전문서비스	150	사업관련 전문서비스	361	법무및회계서비스
24		67		150		362	시장조사 및 경영컨설팅
24		67		151	광고	363	광고
24		67		152	건축 및 공학관련서비스	364	건축공학관련서비스
24		67		152		365	기타공학관련서비스
24		67		153	컴퓨터관련서비스	366	소프트웨어개발공급
24		67		153		367	컴퓨터관련서비스
24		68	기타사업서비스	154	기타사업서비스	368	기계장비및용품임대
24		68		154		369	청소및소독서비스
24		68		154		370	인력공급 및 알선
24		68		154		371	기타 사업서비스
25	공공행정 및 국방	69	공공행정 및 국방	155	공공행정 및 국방	372	중앙정부
25		69		155		373	지방정부
26	교육 및 보건	70	교육서비스	156	교육서비스	374	교육기관(국공립)
26		70		156		375	교육기관(비영리)
26		70		156		376	교육기관(산업)
26		71	의료 및 보건	157	의료 및 보건	377	의료및보건(국공립)
26		71		157		378	의료및보건(비영리)
26		71		157		379	의료및보건(산업)
26		72	사회복지사업	158	사회복지사업	380	사회복지사업(국공립)
26		72		158		381	사회복지사업(비영리)
26		73	위생서비스	159	위생서비스	382	위생서비스(국공립)
26		73		159		383	위생서비스(산업)
27	사회 및 기타서비스	74	출판 및 문화서비스	160	출판서비스	384	신문
27		74		160		385	출판
27		74		161	문화서비스	386	문화서비스(국공립)
27		74		161		387	문화서비스(기타)
27		74		161		388	영화제작 및 배급
27		74		161		389	영화상영
27		74		161		390	연극,음악및기타예술
27		75	오락서비스	162	오락서비스	391	운동및경기관련서비스
27		75		162		392	기타오락서비스
27		76	사회단체	163	사회단체	393	산업및전문단체
27		76		163		394	기타 사회단체(비영리)
27		77	기타서비스	164	수리서비스	395	자동차수리서비스
27		77		164		396	기타개인수리서비스
27		77		165	개인서비스	397	세탁
27		77		165		398	이용및미용
27		77		165		399	가사서비스
27		77		165		400	기타개인서비스

부록 9. 산업연관표 부문분류표(OECD)

구분	분류 코드	부문 명칭
농림어업	C01T05	Agriculture, hunting, forestry and fishing
서비스업	C50T52	Wholesale and retail trade; repairs
	C55	Hotels and restaurants
	C60T63	Transport and storage
	C64	Post and telecommunications
	C65T67	Finance and insurance
	C70	Real estate activities
	C71	Renting of machinery and equipment
	C72	Computer and related activities
	C73	Research and development
	C74	Other Business Activities
	C75	Public admin. and defence; compulsory social security
	C80	Education
	C85	Health and social work
	C90T93	Other community, social and personal services

참고 문헌

- 국무총리실. 2011. 「이명박 정부의 규제개혁 이야기」.
- 김기환 외. 2010. 「소규모 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 산업연구원.
- 김병률 외. 2009. 「뉴질랜드의 농업과 농정개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_____. 2010. 「농업분야 고용현황 분석 및 인력수급 안정화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철민 외. 2008. 「농림수산물관련산업의 부가가치 및 종사자수 추정」.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홍석 외. 2008. 「서비스산업 혁신지원체제 연구」. 산업연구원.
- 박명호 외. 2007.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업 육성 방안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 박성재 외. 2010. 「농어업·농어촌 비전과 전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손상익 외. 2008. 「한국의 서비스산업: 서비스업총조사 종합보고서」. 통계개발원.
- 오내원 외. 2010. 「농촌지역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기업 육성방안 연구(1/2차 연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유지윤 외. 2009. 「한방의료관광 활성화 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정은미. 2010.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에 대한 지자체 조례(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하봉찬. 2006.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정태현상과 시사점”, 「KIET 산업경제」, 산업연구원.
- 한국개발연구원. 2010. 「서비스 중장기 선진화 계획 수립을 위한 공개토론회 자료집」.
-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각 연도.
- 황수경. 2010. “경제의 서비스화와 경제성장 및 고용 간의 관계”, 서비스 중장기 선진화 계획 수립을 위한 공개토론회 자료집.
-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 각 연도.
- Morgan, C., & Murgatroyd, S. Total quality management in the public sector, Buckingham, UK, Open University Press.
- Schettkat and Yocarini(2005), The Shift to Service Employment : A Review of the Literature, Structural Change and Economic Dynamics.
- Helmut Albert(2000), Agricultural Service Systems - A Framework for Orientation, GTZ
- Helmut Albert. et. al., (2001), Services for Market and Consumer Oriented Agrifood Systems, GTZ.
- OECD Stat Extracts(<http://stats.oecd.org/Index.aspx>).

연구보고 C2011-31

농림수산 서비스산업 발전방안 연구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인 쇄 2011. 11.

발 행 2011. 11.

발행인 이동필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119-1

02-3299-4000 <http://www.krei.re.kr>

인 쇄 크리커뮤니케이션

02-2273-1775 E-mail: cree1775@hanmail.net

-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